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전국 409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생활 속에 인문학을 전파하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강연과 탐방(체험)으로 이루어진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책-사람이 서로 어울려 인문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자유학년제), 직장인(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중장년(함께읽기, 함께쓰기)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인문독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평택은 서로를 격려하며 펜데믹 코로나 상황을 끝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며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발하는 올해, 평택 어르신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구술생애사업이 7회를 맞았습니다.

2021년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는 '이야기'로 꽉 채웠습니다. 평택 할머님들의 삶의 이야기, 2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글쓴이들이 수필부터 창작동화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놓았습니다. 평택이 자양분인 이야기들입니다. 마을은 이야기가 되고 평택을 기록하였습니다.

— 펴내는 글 가운데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이 시행으로 진행된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결과물입니다.

ISBN 979-11-967406-1-2

평택인물백과사전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3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평택인물백과사전 2021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3

평택 기억수집가 & 마을이야기 창작자 17인 엮음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평택, 기억수집가
김소라 김예주 노준식 정계숙

평택, 수필과 창작이야기
고인정 권오휘 김경아 김예주 민윤희 박경화 백진주
이경미 이종진 이해복 최유선 한명문 허은주

2021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기획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박영선(비전도서관 사서)
김정옥(안중도서관 사서)

2021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사
이나영(동화작가)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한정은(평택시 기록관리전문요원)
조은정(문학치료 강사)
배준표(사진작가)

표지/ 책마을해리+친북스bookdota@naver.com
평택인물백과사전, 책마을해리가 함께합니다.

평택인물백과사전 2021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3**

2021년 구술사업은 배다리도서관에서 시작하여 올해 8월 도서관 조직개편으로안중도서관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평택인물백과사전 2021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3

발행일 초판1쇄 2021년 10월 29일
발행처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엮은이 김소라 김예주 노준식 정계숙
고인정 권오휘 김경아 김예주 민윤희 박경화 백진주
이경미 이종진 이해복 최유선 한명문 허은주
기획진행 이수경 박영선 김정옥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시행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20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ptlib.go.kr
연락처 031 8024-8341, 8347

편집제작 책마을해리 ×친친북스

ISBN 979-11-967906-1-5

[비매품]
이 책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함께 쓰기 구술기록과 이야기 창작 모음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이 책에 대한 무단전제와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업안내 및 홍보 이외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어르신들의 말씀과 기억은 오롯이 어르신들의 것으로 사실 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읽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인물백과사전 2021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3

평택의 기억수집가들이 귀하게 만든 인물백과사전
우리 평택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택 기억수집가 & 마을이야기 창작자 17인 엮음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이야기꽃 피는 평택은, 힘이 세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평택은 서로를 격려하며 펜데믹 코로나 상황을 끝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며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발하는 올해, 평택 어르신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구술생애사업이 7회를 맞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스크 너머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구술 어르신들에게 오롯이 귀를 기울인 평택 시민 기록가들이 평택 할머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오성 어르신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며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는 '이야기'로 꽉 채웠습니다. 평택 할머님들의 삶의 이야기, 2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글쓴이들이 수필부터

창작동화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놓았습니다. 평택이 자양분인 이야기들입니다. 마을은 이야기가 되고 평택을 기록하였습니다.

펜데믹 코로나를 넘어서는 기록사업에 함께 해주신 이나영 동화작가님,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님, 한정은 선생님, 조은정 선생님, 그리고 함께 기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평택사의 또 다른 한 순간이 될 이야기꽃 피는 평택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함께 만든 이야기는 평택을 지키고 보존하는 이 땅의 의미와 뜻이 되고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2021년 10월

평택시장 정장선

차례

004 발간사 이야기꽃 피는 평택은, 힘이 세다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010 김금옥 이북에서 이십년, 이남에서 칠십년
025 김명옥 대동강 건너온 아기, 자매패션 사장님 되다
039 기록후기_김예주 맏딸의 역사: 맏딸 4대 이야기
042 신남순 84년의 이야기를 담다
053 기록후기_김소라 경청의 의미를 되새기다
055 죽4리 어르신들의 음식 이야기 친동기간처럼 정답게 살아가는
066 기록후기_정계숙 평택의 먹을거리에 관심을 갖다
068 노준식 노준식 형제들의 구술자서전 실행계획안

마을, 이야기가 되다

<수필>

081 이해복 중매 반 연애 반
084 김예주 지금, 나의 평택
087 김경아 평택은 섞박지다
089 이경미 평택은 징검다리
092 민윤희 인연
094 이종진 평택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좋은 곳
096 고인정 슬기로운 숫자생활
099 권오휘 사 먹는 김밥도 맛있다
101 백진주 계절의 맛
106 최유선 영감
109 한명문 '마을, 이야기가 되다'를 시작하면서
113 허은주 지금 나의 '평택'에 대하여
116 박경화 나에게 평택은

<동화: 창작 이야기>

120 고인정 누가 누가 잘하나
129 권오휘 1급 부탁
138 김경아 배추흰나비의 선물
146 김예주 멋진 어른이 뭐예요?
154 민윤희 미미(美美) 의상실
163 박경화 포스트잇
172 이경미 쑥쑥이와 씨앗
180 이종진 정선의 토요일
188 이해복 장하다 해솔이
196 최유선 어린 나무에게
205 한명문 금상 은상
213 허은주 내 동생 콩알이
223 이나영 동화작가가 추천하는 <마을, 이야기가 되다>참고도서

길 위의 인문학 함께쓰기

226 사진 모음
230 일정

소감

231 이수경 시간을 함께한다는 것
233 박영선 나와 이웃을 돌보는
234 조은정 삶은 향연이다
235 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 만남, 친밀감 쌓아올리다

부록

238 허분순 어르신 이야기 일하랴 애들 키우랴 정신없이 살았네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2021년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기획의 글

올해 구술생애작업은 평택 기억수집가들의 개별 기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딛고 선 땅에서 성실하고 꿋꿋하게 자리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기록하였습니다. 마무리된 기획도 있고 걸음을 뗀 만남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듣고 기록하는 이, 모두 평택사의 귀한 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를 여기 펼쳐 놓습니다.

이북에서 이십년, 이남에서 칠십년

김금옥

— 구술자 **김금옥**(1929년생, 93세)
— 면담일 **1차_8월 12일, 2차_9월 4일**
— 장　소 **할머니 자택**(안성시 공도읍 소재)
— 면담자 **김예주**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어

나는 저기 이북의 평양시. 평양시 노흥리 저 378 뭐 38 몇 번인지 모르겠네. 나는 태어나기를 평양 시내에서 태어났어. 그렇게 해가지고 스물두 살에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스물두 살에 평양서 대동강을 건너가지고 공주까정 와서 이렇게 피난을 했다고, 응. 거기 이북에 있는 동생들이 시방 몇 살 났나 하면, 칠십 살 될 짜리도 있고 팔십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남동생은 한 칠십 됐나 봐.

나는 워낙 착하게 살았어

나 이북에서 4학년까지밖에 못 댕겼어. 6학년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본 놈들이 와서 학교를 다 폐교시킨다고 부셨어. 이제 이북에서 고모하고 나하고 한 집에서 살았어. 할머니(구술자의 친할머니) 막내딸. 엄마가 큰 며느리인데 옛날에는 큰며느리는 살림을 안 내주더라고. 나하고 고모하고 한 살 차이여, 한 살. 여기 저기들(요즘 애들) 같으면 싸움도 했을 거 아니야. 나는 워낙 고모 하라는 대로 말썽 하나 안 피웠어.

나보다 한 살 아랜데도 고모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평양 시내 학교 간대. 근데 나는 저기 시골 동네 학교가 있었어. 국민학교. 그래 거기 가서 난 6학년 졸업하고 엄마 아기 봐주려고 (했지). 그냥 엄마 불쌍해서 죽겠어.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할머니는 그때 이북에서 엄마가 낳은 자식들은 내가 업고 댕겼어.

그래서 이북에서는 6학년 졸업도 못하고 4학년 댕기다가 이제 열아홉 살에 결혼한 거야. 이북에서 할머니야, 친정엄마네 원체 부자라 아기만 봐주면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고 나 학교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되지. 그런데 아줌니(고모)는 안 그래. 그거 가고도 또 대학 가

고 이러려고 하는데 나는 그러기 싫고 국민학교 졸업만 하고 엄마 아기 봐주고 막 그러고 싶으더라고. 그러게 워낙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내내. 그리고 엄마는 애기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막 애 받아주고 업고 댕기고 돌아다니면 돼. 아이고. (웃음) 그래 아유 그렇게 해서 세상 살았어.

어릴 때 뭐하고 놀았나면

친구들하고 소꿉장 놀이 하는 거는 맨날 저기고(매일 했고). 화투 하다 혼나던 생각 나. 열두 살인데, 그때 학교 갔다 오다가 그냥 저기 산소가 있었어. 많아. 공동묘지. 거기 앉아서 화투 치다 동네 애새끼들이 저기 김금옥이 화투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혼난다고 놀리기만 해. 할아버지한테 한 번 혼나고는 화투 안 해.

애들하고 소꿉장 놀이 하네야 뭐 그거지 뭐. 별 거나 있어. 화투 하다 혼난 생각 나고, 그냥 거기 학교 갔다 오다가 그냥 거기 동네 어디에 앉아서는 쌀도 요만큼씩 독에서 퍼가지고 오래. 퍼가지고 오면 이만한 저기다 밥을 해. 공동묘지에다가 이렇게 잔디밭에서. 응달. 바람 불지 않는 데. 거기서 밥을 해. 그래서 소꿉장 놀이 해는 거야. 그렇게 밥 하면 되게 맛있어. 그러면 거기다 반찬은 뭐 있나. 새우젓이나 그냥 조금 훔쳐가지고 가서. 그냥 엄마 보고 달래지도 않고 부엌에 들어가면 다 있어, 반찬. 그거 조금씩 해가지고 학교 가방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엄마는 그냥 알아도 좀 모르는 척하고 그랬지. 엄마는 야단맞는 거 싫으니까. 딸 야단 맞는 게 싫으니까 그냥 암말도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알았어 그랬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마당에다 멍석 펴고

옛날에 엄마가 밭에서 옥수구(옥수수) 쪄주는 게 제일 맛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해도 그냥 그런 거 쪄서 고모네 저기 마당에 앉아놓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 다 불러서 먹이는 게 일이드라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마당에다 멍석 펴고 먹어.

열 다섯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을 때

그때 열다섯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내는 맨날 애나 업고 돌아댕기고. 엄마는 그냥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불 땐 재 있지? 불 땐 재. 볏짚 때니까. 그 아궁이마다 세 개 다 걷어서 내고 저기 소여물 얹어놓고 불을 때 엄마는. 또 자기 동서들은 한 사람은 물 긷고, 한 사람은 밥하고 한 사람은 설거지하고. 아주 당번이 그렇게 딱딱딱 있드라고. 나 참 우스웠는데. (웃음) 엄마는 그냥 재 긁어내고 불만 때주고. 또 그 전에 동서 둘째 동서는 아침이면 맞아 물만, 우물에 가서 물 길어 와. 물 길어다 독마다 채워놔. 아이고 나 어쩌면 웃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 그래도 뭐 삼 동서가 살아도 말없이 잘 살고 그냥. 한 사람은 이렇게 해다가 저 집 장만 되니까 내보내더라고. 거기는 이북에서는 셋방살이가 없어. 그냥 벌으면 집 장만해서 내보내고 또 그렇게 하지. 그냥 여기서처럼 뭐 전세로 나간다 뭐 (그런 게) 없더라고. 거긴 그냥 돈 벌면 집 사줘서 내보내.

먹고 사느라 고생 많았지

농사도 아버지네 농사가 오십 마지기나 돼. 뭐 이십 마지기 삼십 마

지기 이러면 되나. 우리 친정아버지네는 삼사십 마지기가 있으면 탈곡하면은 탈곡기 두 대를 놓고 막 해가지고 공출을 하더라고, 공출을 삼십 가마 하라, 이십 가마 하라 이렇게 배당을 해줘. 삼십 가마 사십 가마 그걸 다 하고도 먹을 거 많으면 왜놈들이 또 막 다 뺏어가. 그러면 항아리에다 쌀 넣고는, 시방도 생각이 나. 우리 친정에 쌀독 감춘 거 나 눈에 환해. 우리 친정 왜 조그만 방, 엄마 아버지 자는 방이 있어. 방 뒤로. 항아리 이런 거를 한 섬지기 쌀이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달려있어. 그러면 창문으로는 돼지 울타리 밑에 항아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쌀을 감춰놓고 먹었어. 그래도 식구가 많으니까 쌀을 큰 걸로 한 다라 먹고 열흘이면 다 먹어.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더라. 그래 부자로 살면 뭐 해. 그냥 너무 고생하는데. 소 새끼 밥만 해먹일래두. 소가 두 마리. 그런 거 다 뺏겨나가. 다 뺏겨 있을 거야. 그냥 이북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걸. 땅 다 반납, 나라에 반납하는 거지 뭐. 공출을 하면은 그 땅덩어리도 뺏는대. 내 땅도 내 땅으로 못 생각하고 다 뺏긴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살런지 모르겠어. 아휴.

우리 남편은 철도국 공무원이었어

우리 남편 직업이 이북에서 철도국 댕겼어. 이북에서 철도국 공무원이야. 거 댕기다가 이렇게 피난 나왔지. 이북에서는 철도 공무원이라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걸 누가 알아. (웃음) 할아버지 그때는 나이가 스물다섯도 안 됐는데 철도국 댕기니까. 그냥 뭐 구두 두, 거기 이북에서 구두 신고 댕기기가 힘들어. 근데 할아버지는 거기도 공무원이라고 또 구두도 신고 댕기고. 저기 옷도 그냥 사제 옷으로 입고 다니고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피난 나오니까 그렇게 난리잖아. 그

래 가만히 있었으면 이북에서 철도국 공무원들 가족이 다 저기 저 부산으로 가는 건데. 할아버지가 그냥그냥 겁 먹어서 그놈들한테 만나면 죽는 것 같으니까 그냥 먼저 넘어왔지. 할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건너왔어. 대동강을 먼저 건너서. 하루 이틀 먼저 건넜는데도 그때 할아버지가 저 다리를 다쳤댔어. 그래도 다쳤대도 어떻게 건너다가 또 오다가는 우리 친정 남동생들. 여기 남자들 이북에 있는 조카들 다 만나서 같이 피난을 했어. 그냥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어도 할아버지는 안 죽더라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그냥 그냥 죽으니까 시방은 안 와. 올 사람이 한 세 명밖에 없어. 다 죽고. 근데 나는 그래도 끈질기게 사네. 죄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친정이 그립네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네, 원체 부잣집에서 시집 왔기 때문에. 부잣집엔 시집갈 게 아니여. 그냥 저기한 사람들(손님들) 오면은 대접하는데 그렇게 걸치더라고. 친정엄마의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다고. 부잣집에 시집가면 맨날 그거 할아버지 손님 오면 대접하는 거고. 원체 부잣집

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시집간 뒤에 마음대로 엄마네 집에 벌룩벌룩 못 댕겼어. 시집가면 딱 시집 식구. 애는 여기 댕기는 게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딱 말뚝 박고.

1년에 7월달 되면은 친정 가라고 시집에서도 허락하고, 친정에 갈 때는 이렇게 음식을 해서 다 가득 마차에 실어 보내. 근데 나는 저 뭐인 줄 아냐. 그 인력거라고 있어, 인력거. 7월 달에 집에 갈 때는 인력거 한 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엄마 집에서 또 시집을 갈 때 또 이렇게 해서 싸서 보내. 마차에다가. 뭐 자동차에다 타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마차에다가. (웃음)

친정엄마, 아빠는 이북에서 헤어지고는 못 봤지

친정엄마, 아빠는 이북에서 헤어지고는 못 봤지. 이북에서 딸 업고 친정에 한 번 갔어. 그냥 난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시방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난리가 나긴 나겠는데 엄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는 시집 식구 따라 댕겨야지 우리 집에 왔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엄마 있다고 엄마 집에 오면 안 된다고 막 엄마가 모질게 딱 부러지더라. 너는 시집 식구 따라 댕기라고 막 엄마가 빨리 가라고 막 야단치고. 그래서 애 업고서 울면서 돌아왔는데. 그 열흘도 안 돼서 그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나는 저기 평양서 엄마네 집이 저렇게 신작로만 건너면 아버지가 방앗간을 했어. 할아버지가 방아를 저기 했는데. 궁궁 궁궁. 친정아버지가 방아를 찧더라고. 근데 삼 일 있다가 아버지가 후퇴하는 상황에 방아를 찧고 있어. 우리는 피난 나가는데. 그 건널래니까 미군들이 그냥 어떻게 많은데. 미군 부대, 미군들이 땅크차(탱크)니 뭐니 그

냥 신작로를 이렇게 못 건너.

그냥 이렇게 외길로 댕겨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 친정 식구들은 신작로 하나 걸으면 보는데 못 보고 이렇게 피난을 나온 거야. 하, 말해 뭐 해.

아이 업고 피난길, 고생고생 내려왔지

거기에서 저 대동강 다리를, 너희 할머니(딸, 김명옥 할머니를 이름)를 대동강 다리에 포대기 띠고. 그리고 대동강에 시퍼런 물이 얼어가지고 이래. (양손으로 위아래 출렁거리는 물 표현) 그렇게 거기 이북에서 넘어올 적에 대동강 다리로, 그때 10월달이니까 눈이 와서 얼었다 녹었다 했어. 강에 얼음이 얼어서 철렁철렁철렁이는 거를. 평양에서 이제 대동강 건너면 저기 서울 쪽이 아니고 경기도로. 여기 이남에로 넘어오는 출입구야. 그 즈음에 황주뻘에, 황주래는 데가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 애기를 업고서. 다 산이 저보다 더 높아. (창 밖에 아파트 건물 가리키며) 저 높은 거를 건너가지고. 그 담에는, 건너니까 38선이 딱 만나더라고. 그걸 건너야, 38선을 건너야 남한에 이제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38선을 건너가지고 저 애기 업고도 저걸. 저거 막 솔나무 잡고 있으면 (손에서) 솔나무가 빠져나오면 죽는 거야. 아이고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애 데리고 피난 나온다고 막 지랄을 해. 그러니 남자들이 나 그때 스물 셋이니까 얼마나 더 예쁘긴 하간. 애를 남자가 업고 간대. 업어서 그 강을 건너준대. 그러면 시집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갔어. 남자를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봐서 만나는가 보다 그렇게 걱정이 돼. 안 된다고 나 애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데리고 강 건너주면 애 업고 건너는 것보다는 편안하지. 애 잊어먹을까 봐. (웃

음) 그래. 한 번에 업고 도망갈까 봐. 누가 애 업고 도망가니. 피난 나와서 제 새끼를 내버리는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건너서 공주까정 그냥 하루에 삼십 리도 걷고, 십 리도 걷고. 그렇게 겪은 거여. 피난을. 근데 애는 감기 한 번 안 걸려. 살 팔잔가 봐. (웃음) 어우 막 추우면 내가 포대기로 막 씌우구. 잠 자는데 저기 아궁이 앞에 앉아서 자다 보면 문턱에다가 (머리를) 받아. 근데 애는 울지도 않아. 그냥 업고 이렇게 자면 저도 자고. 앓지도 않아요. 팔자인가.

무서운 게 어딨어, 기가 막히지 뭐.

열다섯 식구 밥을 내가 해줬다니까. 열다섯 식구를 그냥 버섯 따러 갔다 와서 버섯 팔아가지고 보리쌀 사가지고 와서는 밥을 또 한 솥 해서. 저녁밥을 먹잖아. 저녁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냐면 죽 쒀야 돼. 쌀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죽 쒀야 되잖아. 그냥 밭에 나가서 그냥 냉이 있지 냉이. 냉이도 있고. 뭐 그런 잡풀 뜯어서 그걸 삶아가지고 죽 쑤는 데다 그냥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한 사발씩 먹고. 더 먹을 것도 어디 있어. 한 사발 먹으면 되지. 더 먹는 건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피난을 다니면서 고생했다고. 아이고 말하면 뭐 해. 이북에서 여기로 넘어오니까 참 기가 막히지 뭐. 이북에서 우리 시어머님이 돈 가지고 넘어왔어. 이북에서 소 팔고 뭐 팔고 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면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북에서 있는 거 소 새끼 두 마리 다 팔아 오더라고. 그리고 과수원 하고 이북에서도 괜찮았어 그냥. 우리 친정도 워낙 부자지만. 시집으로 가니깐 시집도 그때 과수원 하더라고.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해.

우리 시어머님이 배짱도 큰 분이었지

그렇게 하는데 저기 시어머님이, 뚱뚱한 할머니가 배짱도 이거야. (엄지 들어올림)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북에서 경상도 저기 풍기라는 데로 고향 사람이 있었대. 옛날에. 우리가 난리가 이제 아무 때든 날 거니까 할머니는 참 공부도 못한 사람이 머리는 막 저기야. 앞을 내다보더라고. 우리가 풍기라는 데로 피난을 가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딸이 우리 두고 엄마만 가면 어떡하느냐고 막 울고불고 할머니 저 풍기로 간다니까 못 가게 하더라고. 그게 이북에 있는 딸이지. 그래서 그렇게 딸 생각하고 주저앉은 거야. 그냥 이리로 남한으로 안 넘어가고. 이북에서 남한으로 시 가족이 다 풍기로 가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그때 나는 약혼만 해놨됐어 그냥. 그런데 간다고 그러더니 저기 이북에 있는 딸이 막 울고 난리니. 그냥 그리로 가지 말라고, 여기서 살자고. 그냥 그래서 주저앉아서 그 이북에서 그냥 한 1년인가 2년인가 사는데 난리가 이렇게 났어. 기존에 가면 난리 전에는 그냥 가족이 다 넘어올 수 있는데 그 시누는 못 넘어왔어.

내가 지독하게 먹고 살았지

그냥 이북에서 나올 때부터 저 공주가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가서 석 달을 머물다가 김포로 와가지고 저 미군 부대 댕기면서 남자들이 돈 벌고. 나는 밥 해주고 맨날 산에 가서 버섯 따다 팔고 그랬어, 내가. 스물두 살, 스물세 살 됐겠네. 그때 산에 가서들 시누이들하고, 나 아버님하고 그렇게 한 다섯 명이 가서 버섯을 따면은 이런 소쿠리로 하나 따 와. 그러면 내가 김포 비행장 거기 시장에 가서 그 버섯을 팔아서 스물 두 살에 스물세 살에 뭘 알겠어. 그래도 버섯을 그렇게

따가지고는 이렇게 솥에다 살짝 데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꼭꼭 해서 이만한 소쿠리에다 하나 가지고 가면 그때 돈으로 얼마나 되냐면 그냥 3만원, 2만원 그래. 그게 큰돈이야. 그래가지고 팔아서 모아가지고는 보리쌀 사다 먹었어. (웃음) 남자들 아버님하고 어머님 나 시누들, 다 있어도 그렇게 해서 따가지고 와서 팔아서는 보리쌀 사가지고 와서 밥을 한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었어. (웃음)

그때 먹고 사느라 애쓴 게 꿈같네

할머니 할아버지 시누들 (같이 살았어). 그런데 시누들은 나보다 저기 한 세 살, 네 살 아래지. 그래도 시누는 시누라고 (일을) 안 해. 그러면 나는 우리 딸 명옥이. 그냥 너 어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 다락에 있으라고 했지. 다락. 엄마가 거기 갔다 올 때 너 빵 사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기달리는 거야. 빵 먹으려고. 걔는 저기 뭐야 다섯, 여섯 살이나 그러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미군 부대 저기 드럼통 있잖아. 그걸 남자들은 굴리러 갔지. 할아버지도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 그때 염병 앓아서 다 죽어가는 건데 그냥 할머니가 별거 다 팔아서. 우리 거기서 영등포 역에 저기 가면. 그래 거기 가서는 팔아가지고는 이제 먹을 거 조금씩 사다 할아버지 보신하라고 주고. 그리고 내가 댕기는데 버섯을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한 달 정도 버섯 따다 팔면은 그래도 남자들하고 나도 보리쌀 사서는 먹겠더라고. 아이고 별거 다 했어.

미군부대 세탁 빨래도 했어

그런데 이게 그때 석 달 살고는 저 김포. 김포 가서 또 살다가 그 담

에는 저기 송탄으로 간 거야. 평택 미군 부대. 미군 부대 따라 저 송탄에로 왔어. 남자들은 미군 부대 댕기잖아. 나는 미군 부대 세탁 빨래. 아주버님이 그냥 이만큼씩 한 백자루 있잖아 그걸로 세 개씩, 하루 건너 세 개씩까지 와.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빨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맨날 그 냇가에 가서 그 미군 부대 놈들 아주 빨래해줄라고 징그러웠어. 돈 버느라고. 그때 나이 스물세 살 난 게. 스물넷 났겄네. 돈 번다고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죽겠어. 그래서 할머니는 송탄서 거기 구멍가게같이 가게를 했거든. 땅을 좀 얻어가지고. "어머님 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빨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냐" 그러면서 빵을 식빵을 이만한 거 왜 길게 먹는 식빵 있잖아. 그걸로 냇가에 가서 물 한 사발 가지고 가서 먹어가면서 미군부대 빨래 해가지고 와라 그래. "예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고서 그렇게 또 세상을 살았어. 그래가지고 시아주버님은 맨날 미군 부대에서 그 빨래 백자루 이런 거를 하나씩 둘러메서 놓고 나갔어. 그러면 삼 일에 세 개를 빨아야 되는데 하나씩 빨아서 또 다 거기서 삶아가지고 미군 부대 놈들이 저 바지는 얼마나 커. 그거 바지. 또 하얀 난닝구. 난닝구는 또 하얗게 빨아를 줘야지 돈 받아먹지. 그냥 빨면 돈도 줘? 그러면 거길 냇가에 이만한 다라를 가지고 장작을 이만큼 가지고 가서 불 지펴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오면은 다 말러. 그걸 냇가에다 널어놓으면 다 마르면 아주버님이 또 낼 아침에 거기 가지고 가. 미군들이 빨래한 걸 갖다 주면 이제 월급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돈 받아서 나 하나 쓰라고 주지도 않고 다 살림에 보탰는지 어쩐지 몰라. 난 빨래만 한 거야. 내가 돈 받을 게 뭐야. 아주버님이 돈 받아서. 그냥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 나 그렇게 살아온 거 보면 말려 죽을 거 같아도 그래도 그

게 아닌가 봐. 고생은 엄청나게 많았어.

남편이 미군부대 다닐 때

우리 남편은 그때 스물셋밖에 안 났어. 그러니까 보초 서는 걸 시켜 주는 거야. 미군 부대에서 보초 서는 거를. 그 들어가고 나가는 정문에서 총 메고 해주는데 할아버지 옷은 사제 옷을 입어야 된대.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데서 누가 돈 내놓고 사제 옷을 사줄 사람이 있어? 내 여기 마구자 있지. 여기 안에 털이 있는 마구자. 쪼깨(조끼)거든. 그 영등포 가서 내가 팔아왔어 내 거를. 영등포 가서. 그 이북에서 하나 그건 싸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영등포 가서 내가 그걸 팔아오니까 쯔봉(바지)하고 요기하고(상의를 가리킴) 사 갔어.

미군 부대에 댕기니까 (미군이) 물어보더래. 베비 베이비가 있느냐. 그러길래 있다 그러니까 그 미군이 우리 집에 와서 그 베비 한 번 보겠대. 그래서 미군 부대에 차 타고 출근 퇴근할 때 미군이 얼마나 잘 봤는지 (웃음) 그런 베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빵에다가, 뭐에다가. 그냥 차에다 막 실어 보내는 거야. 그냥 갖다 아기 주라고. 그런데 와서 애기 한번 볼 수 있냐 그래서 있다고 그러니까 미군 부대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아기를 보더니 아주 애를 예뻐서 죽어 그냥, 미군이. 근데 얘가 코 크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내뺄려고 자꾸 그러지.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먹을 거 갖다 줘보고 했더니 얘가 또 뭐도 없이 좋아해. (웃음) 그냥 먹을 거, 맨날 이렇게 빵이니 뭐. 베비 갖다 주라고. 이렇게 싸 보내서 잘 얻어먹었어 한 일 년을. 미군 부대 아버지 보초 서는 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애기 빵이다 뭐이다 잔뜩 가지고 애기 먹이고. 그 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자기가 아기 보고 싶어서 와야 된대. 그냥 차

타고 와서는 빵이랑 뭐 이냥 다 주고 가고는 그냥 애기 맛있는 것만 골라서 해서 준 거야. 그래서 부대 빵을 실컷 먹었지. (웃음)

이산가족 신청도 이젠 안하고 말어

이북에서 내가 스물두 살인가 나와 가지고 시방 구십 둘, 셋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북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산가족 찾는 거 맨날 신청하라고 와. 근데 접때도 저기 이북에 신청하라는 거 기권하려고 그냥 오는 거 쪽지 하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 안 오네. 이제 누굴 보겠어. 시방 내가 구십셋인데 엄마가 날 스물두 살인가 봐서는 100살도 더 됐는데.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말어.

이제 살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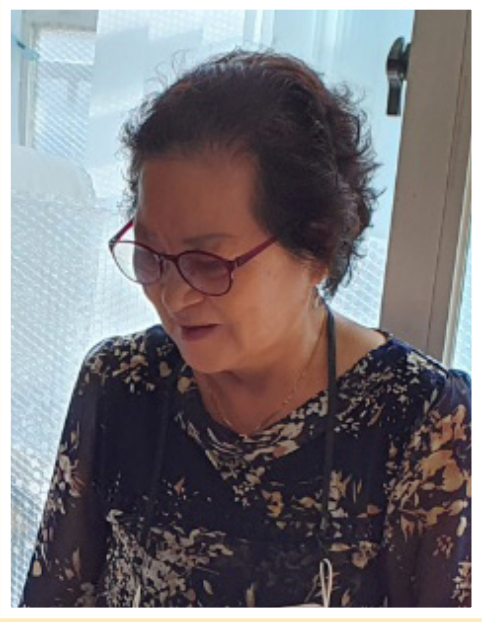
제일 좋아한 것도 이제 칠십이, 칠십이 넘으니까. 그때야 저기 뭐야 조금 이 집도 장만되고. 그때는 저기 할아버지하고 저 남산리에서 살았어. 서정리 저기 송탄서 살다가 이제 다 팔아가지고 과수원을 하는 바람에 남산리로 가서 살다가. 남산리서 정부에서 저기 집 다 (분양)했어. 말하자면 그거 뭐냐. 대토 나온 거 대토. 그냥 니 할머니도 저기 남산리에다 땅 사놓은 거 그 바람에 돈 많이 벌었어. 거기 땅 사놨던 거. 이제 할머니가 그 남산리에다 저 집 하나 조그만 거 장만되고 돈 조금 있고 그랬어. 근데 네 할머니는 그 땅을 나 믿고서 거기서 십만원인가에 산 걸로 천만원 돈 받았어. 그래가지고 부자 되니까 할머니가. 나 그때 오백인가 얼만가 줬어. 그렇게 줬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할머니가 장사하면서 조금씩 더 보태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불은 거야. 그래 불어가지고 집도 장만되고 막 이렇게 했어. 아이고.

인생은 순리대로 흘러야지

아유 힘들 때는. 나 저기 너희 할머니 나이 때지 뭐. 그래도 그때는 조금 나을 때야. 저기 뭐야 여기 들어올 때 70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대성이 봐줬잖아. 대성이. 대성이를 한 5년 동안 봐줘야 소용도 없어. 그냥 잘 살면 저 잘 사는 줄 알지. 내가 그 5년 동안 업구 댕기면서 그냥 저 평택 시장에 한 번 갔다 오려면 대성이를 업고 댕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가 고생했다는 거는 생각을 못해. 그래도 좀 저 잘 사니까 그냥 됐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돈이 좀 많이 불은 거야. 내가 그러면 거기에 남산리 거기 집 팔고 땅. 그 돈 조금 있던 거 하고 해서 합하니까 그때 돈으로 저기 뭐야 천만원인가 얼마인가 봐. 500인가 600인가 돼. 돈이. 그렇게 되고 네 할머니는 천만 원이 넘고. 그러게 그렇게 된 데서 모으려니까 이 집을 장만된 거지. 그래서 이 집은 그냥 피난 나와서 벌어서 산 거 아니야. 송탄서 벌어 와서 산거지. 그러니까 이거 끌고 다니면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지 뭐. 아유, 그냥 말하면 뭐 해. 이 할머니 고생핸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웃음) 나이가 그때 뭐 나이가 많기나 해? 잘나서(잘 해야) 그거 좀 뭐 몇 살 났나. 그렇게 나이도 많지도 않아도 그래도 벌 욕심에 그냥 그냥 고생 안 한 거 없이 다 했지 뭐.

대동강 건너온 아기, 자매패션 사장님 되다

김명옥



— 구술자 **김명옥**(1949년생, 73세)
— 면담일 **1차_8월 16일, 2차_9월 4일**
— 장　소 **할머니 자택**(안성시 공도읍 소재)
— 면담자 **김예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열여섯에 결혼했다지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열여섯 살인가에 결혼했다지 아마? 옛날에는 그랬어. 다 열여섯 살 열일곱 살에 결혼하고 그랬어. (피난을) 아버지가 먼저 나온 거지.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뭐 6·25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북에서 밀고 여기 이남으로 나와서 전쟁이 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피해 다니다가 여기에 아버지가 먼저 나왔대. 그래서 수원역에서 만났대. 할머니 시누이 남편이 같이 살았대. 피난 나와가지고 다 한 집에서 같이 살았대. 시댁 식구들이 같이 살아서 그렇게 열여섯 명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많이 했지. 밥 해 먹이고 다 했을래니까.

우리 아버지 피난 나온 이야기

그때 아버지가 수원역에서 열병 걸려가지고. 열병이 뭐냐 하면 머리카락 하나 없이 다 빠지는 병 걸렸대. 그래가지고 깡통 차고 밥 얻어먹더랜다, 왕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이제 시누이 남편을 만났는데 부르려니까 힘이 없더래. 지나가는 거. 허벅지를 붙잡았대. 자기 앞으로 지나가길 바랐는데 지나가더래. 딱 붙잡으니까 처남이지. 처남하고 매제가 만난 거 아니야. 깜짝 놀라면서 명옥이도 데리고 나왔다고. 니 딸도 데리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있으라고. 내가 리어카 가지고 와서 자네 업고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있으면은 리어카 가지고 와서 태워 가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내가 병 났으니까 나를 버리갔지. 자기 형 같으면 믿갔는데 시누이 남편 말을 못 믿겄더랜다. 그래서 업고 가라고 그랬대. 업으려고 하니까 이 잠바가 막 이가, 옛날에 이가 많았대. 벌레 같은 게 막 이가 몸땡이에 들어가지고 털으니까 깨 터는 건 이유도 아니더래. 드럽긴 얼마나 드럽겄냐. 그래서 업고 가

니까 엄마가 자기 남편을 3년 만에 만났대. 피난 나와서 이북서 나와 가지고 3년 만에 만났는데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이 다 죽어 가는 환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서 어머니가 이북서 피난 나올 때 베레드 옷이라고 있대. 그거를. 옛날에는 옷 사 입기 힘드니까 남준 거 사 입은 거 그게 다 좋아 보이면 돈 주고 사 입었대. 그거 팔아 가지고 아버지 병 고쳐줬다 그러더라고. 돈이 어디서 나올 구멍도 없고. 그래서 병 고치고 애를 낳은 거지. 그러니까 병을 치료해 가지고 내 동생, 남동생이 5년 차이야.

내가 정착한 곳은 평택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안 했지. 내 때만 해도 6·25가 터지는 바람에 나를 끌고 다니면서. 어머니가 업고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지. 전쟁이라는 게 없어야 돼. 전쟁이 있으면은 고아도 생기고 힘든 거야. 그때 6·25 때, 세 살 때 나와가지고 평택서 주로 살았지. (공주나 김포는) 이제 피난길에 왔다 갔다 했겠지.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는데. 어머니한테 그 얘기는 안 들었지. 공주 왔다 갔다 했던 건 모르지.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피난길에 왔다가 간 거지. 정착한 거는 평택이지. 나는.

어린 시절 내 기억엔

전쟁이 나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러더래. "저기 사람하고 인민군하고 싸운다." 막 그렇게 했대. 우리 여기 사람들은, 이남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고 인민군 사람들은 좀 달랐나 보지. 그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데. 사람하고 인민군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그 얘기만 들은 것 같

아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했다고. 행동을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저기 미제 사탕.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고 이제 헬로헬로 하고 따라 다니지, 아마? 그렇게 하면 미군들이 껌 주고 사탕 주고 그랬었어. 우리 그때 당시에 애들이 막 따라다니더라고. 그러면 미군들을 따라다니면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살았어, 한국에. 그럼 따라 다니면 이제 그런 거 하나씩 껌 하나씩 얻어먹고 하는 재미에 미군들만 보면 헬로 헬로 하고 따라 다녔던 생각 나.

(전쟁)끝날 무렵에는 저 강원도 철원에서 산 거 기억나. 강원도에서 아버지가 군인이었었어. 이남에 나와가지고 군인을 간 거여. 그때 당시에 아버지도 젊잖아. 그때 아버지도 스물 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군인을 간 거지. 이남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라에서 저기 보훈청이라 그러나. 저기 연고지 만들어줬잖아. 죽으면 가는 거. 보훈청에 가서 있잖아, 아버지가. 여주 이천에 그 나라에서 공훈 묘지 만들었는데. 거기 간 거야. 이북서 피난 나와가지고 전쟁 때 군인 간 사람들은 나라에서 연금을 줬어. 그러니까 나도 조금씩 지금 타 먹어. 할아버지 앞으로 연금 나오는 거.

나는 송탄에 있는 송북초등학교를 다녔어

초등학교는 저 송탄 송북초등학교라고 있어. 지금도 거기 송북이 있나 몰라. 저기 뭐야 시내버스 그 주차장이 어디지. 거기 지산동에 있었나 봐. 그 지산동에서. 우리 초등학교 가려면 논으로 이렇게 해서 꾸불꾸불 가. 학교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거기 전체가 아파트 들어서서 학교만 있는지 몰라 지금. 거기도 안 가봤어. 거기 내가 그것도 잊어먹었네. 6회인가, 지금 한 뭐 내가 일흔세 살이니까. 초등학교 여덟

살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꽤 오래됐갔지. 그 초등학교 가면 70년이 다 됐나 모르겠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큰 난로 위에다가 다 올려놓는 거야.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사람은 또 누른밥이 될 수 있어. (웃음)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또 너무 그냥 찬 거 싫다고 서로 바꿔놓는다고 막 내려놨다가 올려놨다 막 그짓 했어. 그리고 책가방이나 있냐?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런 넓은 보자기에 공책이랑 책이랑 학교에서 나눠주잖아. 그러면 보자기에 똘똘 말아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메고 여자는 이렇게 메고 그랬어. 남자는 하여튼 이렇게 멨어. 이렇게 앞에다가 어디야. 내가 흉내를 내줄게. 남자는 책가방을 이렇게 해서 멨어. (사선으로 어깨에 걸치는 모양을 표현) 요새 가방 비스듬하게 하듯이 메고, 여자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 책을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배 앞에 일직선 모양으로 걸친 모양을 표현) 얼마나 웃기냐. 무거우나 마나 그 시절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불만이 없지. 그리고 지금 애들은 약아서 학교에서 이제 다 시간표를 정해줘가지고 가방에 다 안 가져가잖아. 이때는 옛날에는 다 가지고 갔어. 그거 옛날에는. 그거 다 가져가고. 가방을 이렇게 메고.

그땐 누구나 다 먹고살기 힘들었지

그때 생활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달팠겄냐. 살 때는 보릿고개 있어가지고 배고프면 가서 농사 지으면은 가지 따 먹고. 배를 그렇게 채운 거지. 보리밥 먹으면서. 나도 꽁보리밥 한두 번인가 세 번 먹었어. 지금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그랬지. 요즘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다 했잖아. 근데 우리는 무슨 명일 때나 고기 먹었지. 고기도 구경도 못했어. 1년에 서너 번 고기 먹으면 잘 먹는 거여. 생일날도

미역국 끓여가지고 큰 그릇에다 하나 퍼가지고 그냥 고기는 없이 둥둥 떠서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활했다야. 그때만 해도. 고기도 1년에 서너 번 먹으면 잘 먹는 거여.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어디 그래. 밥맛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그러지. 라면도 못 사 먹을 판이었지 그때 당시엔.

아버지가 중학교 입학기념으로 시계를 사주셨어

중학교는 효명중학교. 서정리 효명중학교 있잖아. 그때 시험 보고 들어갔을 때 내가 그때 공부가. 할머니가 시원찮다고 선생이 한광을. 당시에 한광은 그냥 인원이 미달이라 줄만 서면 갔었어. 효명은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합격했다고 아버지가 시계 사준 생각이 나. 시계 받아가지고 내가 좋다고 폼잡고 다녔어. (웃음) 나는 시계가 지금 휴대전화 좋은 거 사는 것보다 더 셌었나 봐. 시계 차고 다니는 애들이 없었어. 근데 나는 시계를 차고 다녔었어. 할아버지가 사줬지. 거기 다니면서 졸업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어려워서 중퇴를 했어. 내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도 배워야 산다

(그런 사람들) 많았지. 졸업 제대로 못했어. 근데 그때는 할머니가 몸이 약했어. 몸이 안 좋아서. 할머니가 이제 맏이고 아프다 하니까. 그냥 그때도 뭐 학질인가. 무슨 병을 걸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이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그러면 치료받고 며칠 있다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또 공부도 하기 싫은데다. 어머니가 아프면 관두지 막 안 가도 된다 하니까. 졸업 안 한 게 굉장히 후회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보내달라면 부모가 안 보내갔어?. 지금 내가 살아

오면서 생활하니까. (중학교 중퇴해서는) 집에서 동생들 보고 그랬지. 저기 내 밑으로 동생이 태옥이, 현조. 저기 필조 셋이 있었으니까 내 밑으로 또 동생들 봐주고. 어렸을 때 내가 키웠지. 옛날에는 동생들 언니가 키워주고 그런 거야. 저기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러 가면 내가 애 봐주고 그런 거야. 애 키워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몸 시원찮다 그래도 며칠만 쉬면 학교 보내야 되는데. 가기 싫으면 관두라 식으로 하니까 내가 더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후회가 돼. 배울 때 배웠어야지.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해야 된다는 걸 애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게, 못 배우면 답답하다.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딸들한테도 배워야 산다 그 식으로 해. 배운 게 없으니까 답답하잖아. 항상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우리 딸들도 그렇게 살아온 걸 보고 사회생활하면서 다 그게 늦게 공부를 튼 거야. 그래서 지금 늦게까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한 거고.

아쉬움이 남가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남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다 야무지고 똑똑하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도회장도 하고 권사회장도 하고 누구 인솔하는 거 하잖아.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사회 보는 거는 배짱은 있으니까 다 하잖아, 그런 거는. 남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못 배우면 답답한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 내가 근데 공부는 이거 한땐데. 그때 당시에 내가 배웠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남편도 배운 거는 공주 고등학교에 나갔어. 그때 당시에 많이 배운 거야. 나는 못 배웠어도. 근데 많이 배웠어도 취직을 해, 뭐를 해.

그냥 나하고 장사하는 거 그냥 뒷바라지만 하고. 아주약품에 경비로 몇 년 있었지. 그냥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냥 제발 공부 잘해서 남보다 뛰어난 생활해. 그게 진짜 하고 싶어.

어쨌든 그 시절은 살아내느라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

난 어릴 때 미용 배우고 싶었어. 미용 기술. 근데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해서 공장도 못 다녀봤어. 남들은 다 공장 다니고 돈 벌었는데. 그때는 미용 배운 친구들이 돈 많이 벌더라고. 그래서 미장원 같은 데 가서 좀 배우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못 하게 해서 못 다녔어.

20대는 자유스럽게 못 생활했지. 지금은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아버지가 구속하면 무서워서 못 다닌 거야. 아버지가 몇 시에 들어와라 하면 그 시간에 꼭 들어와야 되지. 해 넘어가면 나가지도 못했어. 아버지가 그랬어. 교육을. 해만 넘어가면 못 나가게 했어.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이해가 안 가지? 옛날엔 그랬어, 노인네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저 여자는 가정주부같이 살림만 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직장, 공장이나 뭐 간 사람도 있겠지. 간 사람도 있는데 나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못 나가게 했어. 직장을 다니지 말라 집에서. 응 엄마 도와주고. 애들 봐주라 그런 식으로 살았어.

과수농사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간병도 열심히 하고

그때 할아버지는 농사지었지. 과수원. 그때 나에게는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북서 피난 나와가지고 여기다 시골에다, 송탄에서 구멍가게 했어. 구멍가게 돈 벌어가지고 땅을 사서 사과나무를 심었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이렇게 심어가지고 과수원 했었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많이 만 2천 평인가 넓은 땅이었어. 커, 1만 2천 평이면. 지금 그렇게 있는 사람 없지. 그래가지고 그걸 친할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몇 년을 병원에 있는 바람에. 그걸 다 팔아가지고 없앤 거지. 서울 병원에서 한 그때 어렸을 때니까 나도 한 몇 년 있었지 아마. 3~4년 있었지. 병원 생활. 다리 불구 됐잖아 아버지가. 그래서 다리가 좀 절룩절룩 했었잖아. 그래서 쳐놓고 뺑소니 못 잡아가지고. 치료비랑, 어머니 아버지가 다 댔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치료해 준 거지.

슈퍼를 할 때도 있었어

그때 구멍가게 같은 그런 슈퍼를 했어. 근데 지금은 마트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 동네 사람이 급한 거나 몇 개 사러 오는 거지. 그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구멍가게 할 때는. 슈퍼 같은 데고, 대형마트가 없었어. 구멍가게지, 다. 그게 다 슈퍼라고 다 차린 거여. (웃음) 그래서

된 거야. 그때 당시에는. 어디 뭐 큰 대형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흐르니까 대형마트가 생기기 시작한 거여. 그렇게 이제 되니까 구멍가게가 안 되는 거지.

그 시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이제 피난 나와 가지고는 큰 집 작은 집 부모님 다 모시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식구가 많았지. 어머니가 힘들게 고생했지. 왜냐하면 구멍가게 하면서 두부도 만들어 팔아야 되고 콩나물도 만들어 팔아야 되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지. 머리 파마도 못하게 화장도 못하게 했어. 어 그거 꼬불꼬불하게 해 온 거. 뵈기도 싫다고. 쪽 들이고 아마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라고 파마도 해지 못하게 했어. 그냥 쫌매고 살으라고. 시집살이지. 지금 그러면 누가 살아. 안 그러냐. 옛날만 해도 그 옛날이지.

내가 드디어 결혼을 했어

그랬다가 이제 내가 결혼한 거지. (결혼을) 스물두 살에 했나 세 살에 했나 그래서 딸을 낳은 거야. 내가 스물네 살에 낳았나 봐. 스물두 살에 결혼했어. 스물두 살 스무 살. 스물다섯 살 넘으면 노처녀라고 그랬어. 그때 그 무렵에는 다. 그래서 나도 빨리 간 것도 아니고 늦게 간 것도 아니고 스물세 살 났으면 그때 그 시절에 간 거여. 일찍 간 것도 아니고 늦게 간 것도 아니고.

양품점을 31년 했다

결혼하고서는 뭐 하냐면. 옷 가게 했어. 양품점. 그때 이제 악세사리

장사하고 옷 장사하고. 결혼하고 남편이 서울 가서, 내가 장사하려면 서울 가서 하고 싶다니까 같이 간 거야. 그래서 니 엄마는 내가 어디서 낳았지. 맞아. 서울서 낳았어. 구로동에서 낳았다. 구로동에서 네 엄마. 그리고 둘째도 구로동에서 낳았고. 막내이모는 가리봉동에서 낳았고. 거기 가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막내. 할아버지하고 재혼해서 낳은 게 그 막내야 지금. 그때도 서울에 계속 있었어. 큰딸 초등학교 때 여기 내려온 거야 평택에. 거기서(서울에서) 한 15년 하다가 평택 내려와서 16년 했어. 그래서 31년 했어.

사업수완도 좋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어

옛날에는 평택에 미도 백화점이라고 그렇게 들어섰었어. 거기서 몇 년 하다가 나와서 개인 양품점을 차렸지. 거기에 미도 백화점 앞에 통복시장 있는 데 근방이야. 옛날 그게 백화점 이름으로 돼 있었어. 2층이 미도 백화점이라고.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활한 거지.

남대문 시장에서 떠다가 여기 평택 와서 장사한 거지. 물건 떼다가. (장사가) 잘 됐지. 돈도 많이 벌고 서울에서도 잘 됐어, 할머니 장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장사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랬지. 수완은 있었어. 사람 대인관계는 할머니가.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싶어. 교회서도 바로 권사 주고 직분 주고 여전도회 회장 권사 회장 다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사람 사귀는 걸 잘한 거 같아.

거기서 미도백화점에서 나와 가지고 자매 패션이라고 양품점으로 차렸던 거지. 매장 두 군데를 가지고 있었어. 막내동생이 전에는 축산기업에 공무원으로 있었어. 그런데 잘 나갈 때 공무원에 있다가 이제 집에서 놀으니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게 하나 더 내가지고 니가 이쪽 가게를 봐달라. 하나는 월급 주고 봐달라고 그러고 하나는 내가 보고 그렇게 두 개를 내가 거닐고(운영하고) 있다가. 그때 자기도 이제 집에 살림하면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걔가 이제 공부해라 그러면 학원 가래면 안 가고. 지 엄마한테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들어앉아서 끼고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 엄마가 그냥 학원 보내고 학원에서 데리고 오고 차로 지가 운전해가지고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선생 만들었잖아.

시절마다 유행도 달라

옛날에는 단정한 옷들만 팔았지만 지금은 시원한 거 막 팔잖아. 그렇게 뭐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니스 있고 막 그런 거는 없지. 할머니가 옷 장사 할 때는 딱 맞는 거 그런 거. 박스를 딱 맞는 거에다 그냥. 박

스 그냥 했지 뭐. 지금은 휘황찬란하게 옷이 나오잖아. 유행이.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그랬어. 지금도 그렇게 입는 애는 단정하게 입지만 지금도 뭐 이상하게 옷 입고 막 그렇잖아. 그런 옷을 파니까 그런 거 사입는 거지. 우리 할머니 적에는 그런 게 없었어. 단정한 옷들이 많이 나왔지.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니까 세월이 다르지.

차곡차곡 성실하게 벌었어

내가 지금 일흔세 살이니까. 25년 됐나. 장사 관둔 지가? 쉰 몇 살에 관뒀으니까. 쉰세 살인가 관뒀으니까. 20년 좀 넘어. 이 집 진 지가 20년 됐으니까. 근데 동아 모란서 내가 장사를 관뒀어. 그때 딴 아파트 살을 때. 그러니까 이십 한 삼 년 정도 됐겠네. 수입은 많이 벌었지.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가 다 먹고 제하고 쓰고. 한 달에 500 정도 벌었나 봐. 그때 당시에 그 장사가 잘 됐어. 그래서 동아 모란 아파트 살 때 돈 벌은 걸로 몇 개월 있으면은 내가 분양받았으니까 그거를 1차 2차 이렇게 부금을 넣는 거야 회사에다가. 그때 넣을 때 짓기 전에 다 그걸 넣어.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분양 받는 가격을. 그런데 그거 내가 장사해서 그냥 그때 34평인데 동아 모란 아파트가 8천 몇백만 원에 그거 다 부었으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몇백씩 들어가는 걸 넣었으니까 600인가. 하튼 500인가 얼마씩 넣었어. 그때 그거를 다 계산해서 넣었으니까. 하여튼 먹고 쓰고 뭐. 애들 키우고 살면서 그래도 500씩은 저축한 거 같아.

지난 세월 생각할수록 감사해

기억에 남는 거는 물론 이제 자식들 고생은 시켰지만. 노후에 자식들

이 부모 속 안 썩이고 잘 그래도 성공했다 생각해. 그래서 감사해. 자녀들이 잘 커줘가지고 감사하긴 해. 애들도 고생 많이 했지. 왜 그러냐. 내가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했으면 자식들한테도 따뜻한 밥에다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사랑을 못 줬어. 소풍 간다 하면 김밥도 사다가 그냥 저기 내 손으로 싸줘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그렇게 키웠어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다 결혼해 가지고 공부 다 마치고. 자식 딸 잘 낳고 우리 손녀딸 손자 다 대학 좋은 데 가고 그래서 감사한 거야. 애들 입장에는 조금 불만도 있을는지 누가 알아. 그래도 자식들이 불만은 가지고 안 했어. 힘들다 어쩌다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 내가 살아온 건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지. 손자손녀들 잘 커주고 그래도 속 썩이는 자식 없고 아픈 자식 없고 난 정말 감사하긴 해.

기록 후기

맏딸의 역사

맏딸 4대 이야기

— 김예주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부터 다시 배다리 도서관에서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평택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구술 면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이 어려우면서도 즐거웠다. 작년에는 평택의 배농사를 주제로 해서 평택에서 배농사를 지으셨거나 현재 지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면, 올해는 기록자가 자유롭게 면담 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다. 구술자를 누구로 하겠냐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왕할머니, 그러니까 나의 증조할머니였다. 나보다 70년을 더 사셨지만 여전히 소녀처럼 웃으며 그 옛날 피난 시절 이야기를 또박또박 해주시는 분이다.

무턱대고 찾아간 할머니 댁에서 왕할머니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강렬하게 옛이야기를 전해주셨다. 평양 시내에 살던 부잣집 딸이 열아홉에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아, 스물둘에 철렁이는 대동강 다리를 건너온 이야기. 시집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바람에 버섯을 따다가 팔아 열다섯 식구 밥을 다 해먹인 이야기. 전쟁통에 잃어버린 남편을 3년 만에 다시 만나 구멍가게와 과수원을 하던 이야기. 어딜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할머니는 몇 번이나 '아이고 말해

뭐 해' 하시면서도 당신의 어리고 젊었던 시절 기억을 풀어내주셨다.

왕할머니와의 면담 이후에는 외할머니를 만났다. 대동강 다리 위에서 울지도 않고 왕할머니에게 업혀 있던 외할머니는 그 시절을 또 다르게 기억하고 계셨다. 엄한 아버지 때문에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는 할머니는 스물두 살 즈음 결혼을 하셨다고 했다. 순간 마음에 무언가 탁 걸렸다. 스물둘에 아기 업고 피난을 나온 왕할머니, 스물둘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외할머니, 스물둘에 직장에 들어간 엄마, 그리고 스물둘인 지금의 나. 대동강 다리를 건너느라 무섭지 않았냐고 여쭤봤을 때, 왕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무서운 게 어딨어, 애기는 업고, 난리가 났는데.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의 할머니와 같은 나이인 나는 아직 무서운 게 너무나 많다.

신기하게도 우리 넷은 모두 맏딸이다. 특히 왕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업어 키우셨다고 한다. 그래도 면담을 준비할 때까지는 할머니들과 엄마, 나 사이에 공통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녹취록을 정리하다가 알았다. 왕할머니는 면담 내내 힘들었다, 힘들었다 하시면서도 아마 인생에서 가장 고달팠을 시집살이 얘기와 할아버지가 다치셨던 얘기는 슬쩍 넘어가셨다. 오히려 외할머니한테서 당신의 엄마가 젊은 시절 고되게 일했던 이야기를 속속들이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옷 장사가 잘된 이야기만 해주셨다. 하지만 엄마한테 물어보면 늘 당신의 엄마가 새벽같이 동대문에서 옷을 떼오느라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고 보니 왕할머니는 이북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도 당신의 엄마가 부잣집에 시집와서 항상 바쁘게 밥하고 애 보는 것이 불쌍했다고 한다. 하나같이 자신의 힘든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자기 엄마만 걱정하는 모양새다. 문득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30년쯤 뒤에는 나도 나 대신 엄마를 더 걱정하고 있을까?

면담 기록을 마무리할 때쯤 책에 실을 사진을 찍으려고 모처럼 왕할머니 댁에 넷이 다 같이 모였다. 엄마와 엄마와 엄마와 딸. 또는 딸과 딸과 딸과 딸. 사진을 찍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는데 외할머니가 왕할머니한테 감자를 썩힌다고 타박을 하셨다. 이때 엄마의 뾰족한 한 마디. "하여간 엄마 구박하는 건 딸들이 다 똑같아." 자신이 누구보다 걱정하는 사람을 향해 항상 틱틱대는 웃긴 여자들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닮아 있었을까.

84년의 이야기를 담다

신남순

— 구술자 **신남순**(1938년생, 84세)
— 면담일 **9월 12일**
— 장　소 **할머니 자택**(평택시 동삭동 소재)
— 면담자 **김소라**

7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야기 시작을 하면 끝도 없어예. 고향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 뭐 달수 그런 건 모르겠어. 내 결혼하기 전까지, 월암동에서 결혼도 하고. 근데 살다가 그때 왜 월성동에 갔는건 그걸 모르겠어예.

친정 엄마는 얼굴도 몰라예.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 막내 돌이 안됐는데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때 내가 알라(아기)지 뭐. 내 형제들이 그래…… 다섯인지 일곱인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 일곱이지 싶다. 언니는 죽었지. 지금은 막내랑 나랑 형제밖에 없는 갑십니더. 엄마 성은 김가야, 이름은 몰라. 옥포 김가라. 아부지는 신호범.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뭐. 이야기만 들었지.

아부지 얼굴은 기억나요. 뭐 농사일하고, 옛날에 장사도 했어. 할아버지가 장사도 했는데. 시장에 다님이시랑 장사했어. 뭐 그렇게 살만해. 엄마도 없는데 고생이 많지. (우리 아부지가) 재혼은 안 했지. 아부지는 우리랑 같이 살다가 80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열세 살에 전쟁 나서 피난 갔어요. 앞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 가며 창호(큰오빠 아들, 조카)를 업고 그 진천 2구에서 신달섭이 아재 집에 구루마에 물건을 싣고 가는데 구루마를 붙잡고 조카를 업고 그 앞산까지 내가 갔어예. 그때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조카가 더위를 다 먹었다카네. 내가 그거를 업고 우예 그리 갔는가 몰라요. 열세 살에. 구루마를 잡고 한참을 걸어갔지. 창호 외숙모 집에 거 가있었어. 6·25사변 끝났다고 집에 가라 캐가지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나락이 다 익었어. 나락이 다 익어가지고. 가을이 됐는데. 8월 대목에 왔지 싶어.

딸은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캤는데 그때는

학교만 보내줬시면 내가 이렇게 모릴까봐. 내가 열심히 해가 그 국문이라도 알지. 안 그라면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학교 안 보내줬어요. 학교 보내줘야 가지. 또 여자는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캤다. 그때는 옛날이라서. 막내아들은 학교 갔다. 딸 많고 아들 좋아했고, 딸은 미워했고 이랬어예, 옛날에. (막내동생이) 중학교 간 건 모르겠고 학교는 갔다.

학교 안가고 집일만 했어. 밥 해먹고, 조카들 업어주고 그래 살았지. 업고, 집일하고 그랬지. 열세 살 먹어가지고 부엌일 했써예. 밥 해먹고 그런 거 다했지. 그때 뭐했는지 그건 안 잊아뿐다. 살림 내가 다 살아줬지 뭐. 엄마가 없으니께예. 어디 누가 그거 해줄 사람이 어딨습니꺼. (누구든지) 엄마가 오래 살아야지. 아버지야 뭐. 오래 살던지 안 살던지. 자식들한테는 엄마가 오래 살아야지. 설움 받고 그리 컸지. 그래도 오빠는 참 좋았어. 오빠는 내한테 고맙게 했다. 오빠가 동생이 엄마 없이 큰다고 글도 가르쳐주고, 신문보고 이야기 다 해주고 그랬어. 그거는 기억에 남는데 다른 건 기억에 안 남아. 그라고 큰오빠가 조카 다섯인가 낳은 걸 내가 다 업어 키웠어요. 기저귀 다 빨고, 똥기저귀하고. 내가 요새도 기억에 남는데 그 많은 걸 다 빨고, 말라가지고 착착 쌓아가지고 장구들 밑에 이래 뜨끈뜨끈한데 거기 갖다 여놓으면 밤새도록 갸들 밑에 다 널잖아요. 조카들 밑에. 내가 다 했어. 살림 다 살았는데 뭘.

양철 필통 딸그락 소리 울리며 부지런히 야학에서 배웠지

야학에서 글 배운 적 있는데 내가 그 밤에 저녁 먹고, 설거지해놓고, 국문 그거. 기역, 니은 하는 거 그거 배웠어요. 1, 2, 3, 4 그걸 알고. 국

문도 알고 그러지. 그것도 안 배웠으면 몰라요. (야학)선생 이름이 이해찬. 이름은 안 이자뿟다. 우리 글 가르쳐주는 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이해찬이라고 그 남자가, 선생님이 밤에 어디로 도망갔는데 한 집에 사는 아가씨캉. 그때 아가씨가 애기를 가져갖고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과수원 밭에 그 집에서, 그래 그 아가씨하고.

그때는 엄마가 없으니까네 설거지해놓고 가면 야학교 가면 한 시간(수업)했을 때도 있어. 그래도 댕겼어예. 보리밭이 양쪽에 이랬는데. 책가방을 그전에는 이래 매어가 댕겼거든요. 그때는 필통이 양찰 필통이거든요. 책가방을 둘러서 막 뛰어가는데 필통 소리가 따그락하고 소리가 났어예. 걸어가면, 막 뛰가면 그게 따그락 따그락거리면, 그 과수원 밭에 탱자나무 뒤에 따그락발이 나온다고 막 캐샀어.

나도 몇 살 안 됐지 뭐. 결혼 전에 저 집에서 밥해먹고 설거지해놓고 학교(야학) 가고 그랬으니께니. 밥물로 설거지해놓고. 솥을 못 씻꺼가지고 옛날에. 내가 아마 키가 작았지. 그러면 그걸 못 씻어가지고 뿌뜨막에 올라 앉아가지고 씻고. 이런 게 기억에 남아. 올케한테 꾸지람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야학은 그 동네에 나만 다니는 게 아니고 다 댕기니께에 따라간 거지. (애들) 따라가고. 야학에 배울 때 그때는 날말 떡(낱말 뜻)하는 건 많이 했어요. 낱말 떡하는 게 뭐고 하마 기냥 입으로 이우는(외우는) 기라. 글을 써가지고 입으로 다 해야 돼. 엄마가 없기 때문에 조카를 업고 그걸 적어가지고 뒷담에 가서 그 글을 내가 외우고 그랬어. 야학교 갔다 오마 다 자거든. 나는 청(마루)에 앉아가지고 공부했어. 어릴 때도 내가 부지런했어요. 어릴 때 왜 공부를 그리 했는가 몰라. 청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낱말 떡하는 것도 외우고. 적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외우고 그랬어. 그래서 국문이라도 알지. 안 그러면 국문도 모른다. 지금. 아이고. 학교 가고 싶었어요. 억수로 학교 가고 싶어서 울어쌌으요. 넘들 학교 다니는 거 보면 막 부럽고.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어릴 때라도 그랬어요.

만난 첫날 찍은 사진, 지금 내 휴대폰에 있어요

결혼은 그때 스물셋에 중매 결혼했어요. 중매는 누가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결혼하니까 뭐 좋고 나쁘고 뭐 옛날이라야. 모르겠어. 그런 거는. 처음 만날 적에는 어디고 하마, 옛날에 연선 사진관이라고 있었어요. 사진관에서 우리 둘이 처음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어. 옛날이라도 처음에 사진을 찍었다. 사람들이 만난 첫날 사진 찍었다고 뭐라 캤어. 그래도 찍었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그냥 결혼했는기지. 그때 아부지(남편) 인물이 잘 났디라. 잘생겼어. 지금도 여 내 휴대폰에 여 사진 있어요. 여기 사진 이거 이거. 참 잘생겼지. 옛날이라도 그때도 잘생겼어요. 성격도 좋았어요. 남자는 원래 성질이 좀 이쓰야 돼.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느그 아부지는 야 남자다

웠지.

결혼할 때 패물로 금반지는 받았다. 금반지는 받았는데 그때 금목걸이 뭐 그런 건 없었다. 반지 그거. 시집가가 얼마 안 됐는데 돌라캐가 줘버렸잖아. 그때 빚도 있더라. 내가 시집오기 전에는 빚도 없고 사는 것도 괜안타 하고 왔는데 시집와서 보니까 전부 빚이라. 옛날에는 속아 하는 사람 많았다. 금반지 서 돈(세 돈) 해주더니만 3일도 안 되어가 팔라고 돌라캐가지고 줬잖아.

구박 맞았다고 눈물 안 나는 거 아니더라

할매(시어머니) 억수로 별났다. 억수로 무서웠어요. 뭐뭐 벌로 막 하면 나오는 대로 그냥 욕하고. 내가 오형제의 맏이(맏며느리)거든요. 아들 다섯 집에 내가 맏이로 (시집)가 가지고. (시어머니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무서웠잖아예. 며느리한테 구박하고. 옛날 시어머니는 다 그랬어예. 그거 안 그런 집이 몇 집 없지. 옛날에는 전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구박하고.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그래도 나는 예! 예! 카며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말로. 요새 어른 같으면 이해하지만,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 모양이라.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도 그래도 구박을 많이 맞았어요. 옛날 이야기를 다 할라카면 다 해도 못합니더. 얼마나 할 게 많은지. 얼마나 시집 살았는지 말도 못 해. 옛날에 뭣이 묵고 싶어가지고예 그래가 저녁에 빵을 먹으려고 샀는데 사와가지고 집에 오니까예 아가 우는 기라. 급해가지고 대문깐에 숨가놓고 갔어. 빵을 가지고 드갔으면 될낀데, 아 운다고 아부터 보러갔는기라예. 아 달래놓고 나오니까. 빵은 개가 물고 가뿔고 없어예. 옛날에 그랬어예.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빵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빵 하나 먹는 거를, 그 꼬라지를 시어머니가 못 봐가지고. 골을 부리고.

시집을 얼매 살았는가는 몰라도 할머니 밑에 시집 많이 살았다. 그 밑에서 아이 다섯을 낳아서. 어떻게 그렇게 구박 맞으며 살았나 몰라.

(따님: 할머니가 장사하셔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시고. 아버지 생긴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할머니도 되게 선이 굵게 생기신 분이셨거든요. 마을의 타고난 이야기꾼이셨기도 했고. 이야기도 되게 잘하셔서 놀러오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신기도 있으셨고. "니(신남순 어르신)는 괘안타." 우리 엄마한테. "딸도 니도 괜찮을기다. 니는 나름 괜찮게 갈기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우리 엄마가) 큰 며느리였잖아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잤는데 우리 할매가 엄마, 숙모들, 숙부들 욕 많이 했어요. (웃음) 말 안 옮기려고 참 힘들었어요.)

니가 할매보고 할매는 왜 우리 엄마 보고 욕하냐고 편을 한 번 들었어. 나는 그거 생전에 안 잊어뿐다. 저놈의 가시나가 어무이 편을 든다고. 시어미가 야를 욕을 얼매나 하든지. 야가 엄마 편을 들었는 기라. 아이고. 옛날 시어마시들 말도 많이 합니더. 요새 같으면 누가 그걸 살 사람이 있십니꺼. 근데 돌아가실 무렵에는 나한테 풀고 돌아가시더라고예.

"내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래. 니한테 그러케 했데이"라고. 내가 생전에 안 잊어뿐다. 그렇게 별나게 캤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돌아가실 그 무렵에예. 나는 뭐 입도 안 떼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도 자꾸 해 놔놓으니께. 그 말을 들을 때는 자기가(시어머니가) 속은 있는갑

다. 이래 생각했지. 그런 생각을 했지마는. 뭐 젊은 마음에 분하지. 어른한테 자꾸 구박 받고 그러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나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도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 기라예. 할매 돌아가시고 나니께 그렇게 눈물이 나네. 그래도 안됐쓰예. 그런 집에 며느리로 살았는데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눈물이 많이 났지. 내가 그러케 많이 울었습니더. 구박 맞았다고 눈물 안 나는 게 아니더라예. 죽고 나면 생전에 눈물 한 번 안 흘리지 싶어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안됐데이. 그게 미운정 고운정이라예.

부지런함으로 가족을 보살피다

공장은 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랬어예. 사람도 많았

어예. 근데 이제 오래 되니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없어요. 일 많이 했지예. 공장 일하면 공장에 아들(공장직원들) 밥 다해주고. 그리 살아나왔어예. 공장이 안 되기에 그 뒤에는 이제 농사짓고 살았지. 나락 농사.

(따님: 새벽에 나가셔서 논일 하시고. 공장할 때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밥을 해주셔야 하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김장을 다른 집들도 늘 그렇게 담그는 줄 알았어요. 세 접, 300포기하면 요즘은 김장나눔 할 때나 하지. 우리 집은 늘 그렇게 해서 나는 다른 집들도 김장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공장 하니까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한 거였어요. 그 살림을 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엄청 부지런하신 거죠. 엄청 일도 많이 하시고. 새벽에 나가서 다시 와서 아침 우리 먹으라고 해놓으시고 공장 또 나가시고. 공장 가서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녁하고, 집안일하고, 우리 보살피고.)

내가 그래가꼬 또 공장에도 다녔어예. 일하다가 다른 사람 공장에서도 일했어요. 장갑 공장도 댕기고. 실 풀러도 댕기고, 잠시도 안 놀고 내가 댕겼어요. 요새도 그게 생각난다. 실 감는게. 그때 할매가 편찮아 가지고 밥 심부름해드리면. 우리 앞집 농장에 실을 내가 푸는데, 실을 인쟈 쌓아놓고 또 할매 죽도 쑤고, 그때는 연탄이라. 연탄도 얹어 놔놓고. 또 집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내가 그때는 우예 그리 했는가 싶어. 요새 같으면 그리 하겠나? 그리 고생시리 살고나이 그래도 끝에 가서는 영 못 살지는 않았어예. 아들 모두 커서 결혼하고.

아부지(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 왔는 건 맞다. 집에 들어올 줄도 모

르고. 장에 그렇게 볼일이 그리 많은가 보다 생각했다. 맨날 살림 내가 혼자 다 살았지.

다시 팔십넷, 평택에서 살아요

(대구 월배 살다가) 평택에 언제 왔는지 잘 모르겠다. (2017년에 오셨어요.) 내가 요새는 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다. 요즘 (주간보호)센터에 아침에 가면 다 왔나 안 왔나 출석 부르고. 체조도 가르쳐주고, 점심 주고, 오후 중참 주고, 밥 먹고 나면 전부 다 저 안에 들어가 이불 전부 하나씩 들고 자. 어떤 사람은 막 코를 골고 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자고 안 옵니까. 집에 올 때는. 거기도 남은 사람들 전부 내 또래들이라. 나이 90살 넘은 사람도 있는데. 보면 연세 많은 노인치고는 그래 모여 재미있지 뭐. 이불도 다 있고, 전기로 방바닥에 불도 해주고. 이짝에서 누워가지고 있으면 저짝에서 이야기 해싸면 이짝에서 시끄럽다고 막 해쌌고.

이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인자 죽는 날 밖에는 안 기다린다. 나는 그것밖에 없다. 너희들은 뭐 다 잘 되고 잘 살면 되고 그렇지 뭐. 내야 뭐. 인자 뭐. 다 됐네. 내가 80이 넘었는데. 다 안됐십니꺼? 팔십네살이면 이제. 시집 살 때는 잘 사는 게 어딨노. 잘 살 수가 없어예. 그때는. 한창 시집 사는데 뭐 잘 삽니꺼. 뭘 잘 살아오기는 뭣을 잘 살아왔노? 뭐 클때야 고생시리 컸고, 시집살이도 했고, 그랬으니까예, 지금은 재밌잖아요. 아들(아이들)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이렇게 사니 마음이 편안하지요. 걱정이 없지요. 아무 걱정 없이 안 삽니꺼. 느그들 키워가지고 다 출가시킨 거 그게 잘 사는 일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 그런 때문에 요새는 묵고 싶은 거 묵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 살으라 안캅니까. 지금은 묵고 싶은 게 없어요. 묵고 싶어야 묵지. 나이가 많으면 묵고 싶은 것도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어. 나이가 많으면. 그러니까 젊을 때 좋은 걸 해야 해.

기록 후기

경청의 의미를 되새기다

— 김소라

'구술생애사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접하던 중심적 역사가 아닌 그 주변부의 이야기, 즉 개인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구술생애사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는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다독여주시고 여러 방안을 제시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글을 책으로 내는 순간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84세이신 신남순 할머니와 구술생애사를 진행했습니다. 나와 다른 세대를 살아온 개인의 역사를 들으며, 흥미를 느끼기도 했고 뭉클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20대로서의 삶을 보내고 있는 제가 80대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극이 있진 않을까, 구술자의 역사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녹취풀이를 하며 글을 써내려가면서 걱정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2차 편집본을 완성하고 나서 이 정도면 크게 문제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큰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편집본에는 구술자의 어투, 문체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구술생애사의 의

미를 잊고 저의 방식대로 그분의 역사를 편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경청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과정이 경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무리라는 매듭을 지으면서 지나온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제 안에 쌓인 것들을 바라보면 값진 것들이 남았구나 싶습니다. 구술생애사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시고, 진행해주신 도서관 관계자분들, 이수경 선생님, 한정은 선생님, 조은정 선생님 그리고 학생의 입장으로서 함께 출발하였지만 제게 많은 배움을 전해주신 노준식 선생님, 정계숙 선생님, 김예주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친동기간처럼 정답게 살아가는

죽4리 어르신들의 음식 이야기

— 구술자 1969년. 1971년. 1973년도 결혼해서 줄곧 살고 계신 세 분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심)친동기간처럼 정답게 살아가시는 죽4리 어르신들

— 면담일 1차_9월 10일, 2차_9월 16일

— 장　소 오성면 죽4리 노인회장님 댁 쉼터

— 면담자 정계숙

2021년 9월 10일, 16일 두 번에 걸쳐 죽 4리 노인회장님 댁 쉼터에서 1969년, 1971년. 1973년도에 결혼해서 줄곧 죽리에 사시는 세 분을 평택의 음식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발언 순서나 형식을 두지 않고 진행하여 세 분의 이야기가 섞여있어 구술자 구별 없이 내용을 정리하였음을 알려둔다.

나, 마을, 죽리

결혼한 지 나 53년 되었지? 나는 1973년, 나는 1969년도야. 이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14년 살았지. 먼저는 한옥이었지. 부모님 모시고 시동생 2명과 같이 살았어. 이집 헐기 전에 사진은 없는 것 같은데……. 회장님과 주위 어르신들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었지.

이 동네서는 줄곧 농사만 지었고, 들 쪽에 당거리 쪽에 배 타는 사람은 있었지. 비 많이 오면 학교 가서 자고 그랬지. 오성초등학교 체육관이 그전에 조그맣게 있었어. 수시로 물이 찾지. 들에 물이 차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지. 박정희 대통령이 아산만 막고부터는 괜찮아졌지. 진짜 우리는 절을 해도 몇 번씩 해야 해. 삽교천 막고 그날 준공식 하고 돌아가셨지.

죽리가 대나무와 관련됐는지 몰러. 여기는 없어. 대나무 구경도 못했지. 몰러 댓골(죽3리)이나 그런데는 있었는지 모르지. 그러나 여기는 없어.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죽1~죽4리, 죽5리는 (오성)초등학교 있는데 그 뒤쪽으로 기잖어. 죽5리는 생긴 지가 오래 안 되었잖아. 숙성리 관할이었잖아. 커졌지. 죽5리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커진 거지. 빌라가 많이 들어와서 확장된 거지. 숙성리였다가 죽5리로 된 거지. 아니지. 학교 그쪽으로는 죽5리지.

죽리에 온 게 내가 먼저지.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는 바깥구경도 못하고 살았잖아. 시장을 다녔어, 뭐했어. 하하~!! 요즘은 시장에 고기, 생선 사러 평택시장에 많이 가지. 요 앞에서 차 타기가 좋고 올 때도 시간 맞춰 타니까. 안중으로 가려면 걸어 나가서 타야 하니까. 예전에 안중 5일장은 컸지. 어머님, 아버님시대에는 쌀을 이고 걸어서 안중 장(場)에 다니셨어. 그때만 해도 차타고 다닐 줄 몰랐지. 지금처럼 길이 좋아? 빠져서. 옛날에는 그랬잖어. 오성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고. 포장되기 전까지는. 평택시 터미널이 내 시집올 때부터(1969년) 여지껏 고대로 있어.

예전에는 안중도 오성면에 속했지. 오성이 엄청 컸지. 숙성리에 시장도 섰는데 지금은 안서잖아. 3일, 8일에 쪼게 났게 섰는데 요즘은 안서잖아. 그전에 안중도 쪼겐 했어. 장도. 소 장(場)도 서고, 우체국 그 뒤로 있는데 우시장.

죽4리정미소

죽리가 예전보다 사는 건 훨씬 좋아졌지. 지금은 솔직히 빈부차이가 안 난다고 봐. 나가서 돈들을 많이 벌잖아. 땅 있는 사람들은 있는 농사 그대로 짓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다 돈 벌잖아. 그니까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 우리네는 땅덩어리는 있어도 들어오는 것은 한정이 되었잖아. 1년에 한번 딱 들어오면 없는 거잖아. 수매해서 1년 사는 거지. 애들 교육은 그때는 농사를 다 사람 손으로 지었잖아. 품앗이를 했으니 인건비가 안 들어갔지. 요즘은 다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 그때는 기계 값이 안 들어가서. 그래도 그냥저냥 시키고 살았어.

죽4리에 정미소가 있었어! 이거 다 아버님 계실 때 사용하신 거죠. 저쪽 끝에 있는 기계부터(기계와 저울 등 귀한 물건을 갖고 계셨고, 앞쪽 기계로 오니 미진정미소로 상호가 새겨져 있었다). 옛날에 정미소를 운영하시면 부자라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부자셨지요. 옛날에는 일이 많았지요. 밀 수확하면 밀가루·국수 작업하고 보리는 주식으로 사용하였지요. 콩으로 두부도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은 닭볶음탕이나 김치와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해주면 잘 먹었지. 특히 닭볶음탕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추석, 시제 큰 행사 때 준비하는 음식

추석에 준비하는 음식은 변화가 별로 없지. 추석에는 송편으로 제사 지내고, 송편은 작년에 처음 사먹었어. 인력이 없으니. 그전에는 다 집에서 조금씩 해먹지. 떡은 송편만 하고 부침개하고 다 기본이지 뭐. 구정에는 찹쌀부꾸미, 부꾸미제사 지내고. 그리고 떡국 끓이고. 떡은 부꾸미고. 대개 제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그대로 같은데. 삼색나물하지. 조기 쓰고 북어 쓰고, 과일 쓰는 것 다 똑같고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 다 그대로야. 어머니, 아버지 하시던 그대로 쫓아서 하지. 변화 없이. 앞으로 자식들은 저거대로 하게 둬야지. 지낼는지 안 지낼는지 두고 봐야 알지 뭐. 요즘도 종가집이여서 어른들 다 오시지.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 여기는 국수를 삶아서 무국에 다가 떡을 올리더라고. 우리는 진짜 사람들 많이 왔지. 옆에 아저씨네, 할아버지, 아버님 동기들, 사촌들 모여서 다 여기 와서 지내고 아침 먹고 큰집 작은집으로 댕기면서 지냈지. 이제 큰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사촌들은 안 와. 아버님 형제들하고 조카들과 우리만 지내지. 그래도 30~40명 되지.

동네 단합대회나 모임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 어른들이 아실 텐데. 지금 어른들이 별로 없어. 우리 아버님이나 작은 아버님이 계실 때는 옛날얘기 잘해주시지. 옛날에는 뒤에는 산이었데. 그리고 묘 자리가 많았다네. 그래서 위로는 집터가 안 좋다네. 산소가 많았다네. 나도 그때 처음 들었어. 죽4리만의 풍습이나 특이한 것은 없어.

그전에 단합을 위해서는 '길치'라고 모여서 풀 깎는 거는 했지. 특별한 것은 없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얼추 다 그런 것 같은데. 댓골(죽3리)이나 죽1리 같은데 보면 역사적으로 옛날에 뭐하고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어.

내가 살던 공주에는 장승배기라고 해서 돌 있는데 앞에 떡을 놓고. 쌀을 거둬 떡을 하고 저녁에 꽹과리 치면 가서 절하는 사람은 가서 절도 하고 떡을 나눠 먹었지. 꽹과리 치며 집집마다 다니면 술내는 사람도 있고 쌀도 한 말씩도 주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런 풍습이 없더라고.

1970년대에 예식장에서 결혼했는데 음식 준비를 집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갔지. 예식장 식당에 차려서 접대했고. 나는(1973년에 결혼해서 오셨다는 어르신) 홍어회무침을 잘해. 고향에서는 잔치에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죽4리에 한양 조씨가(家) 많으신데 내가 여기 산 지 81년 되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시제는 음력 10월에 떡과 부침개로 빈대떡, 갈납, 두부 그리고 산적, 소고기, 식혜를 했어. 떡은 예전에는 시루떡을 주로 썼는데 지금은 찰떡인절미(찹쌀 느리편)를 녹두고물로 하지. 그리고 배, 사과, 밤, 대추, 약과, 정종도 쓰고 숭어 쪄고 낙지를 수수깡 돌리면서. 산신제 때는 술, 포, 식혜를 썼지. 갈납전은 통새우 머리는 떼고 요렇게요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다섯 마리 놓고 홀수로. 계란·쪽파 넣고 부치지. 10월에 모여서 시제 지내는 거. 모여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제 다 모여서 벌초하고, 그런 것뿐이지. 다른 건 없어.

죽4리 어르신들의 먹을거리 이야기

정월 제사에 국수 한관에 흰떡

내가 시집왔을 때는 집에 일꾼 두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뒤치다꺼리하느라 엄청 힘들었어. 내가 우리 집에서 뭘 해봤어? 5남맨데 엄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하고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쪼금 해먹다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하니 내가 감당이 되겠느냐고. 엄청 힘들었지. 예전에는 농사지을 때 겹밥(겉두리)이라고 하루 두 번 내가잖아. 10시 반쯤 내가면 애기 업고 와서 젖먹이고 밥을 많이 먹어. 집에 오면 대청마루가 있거든. 거기서 밥을 하나씩(많이) 먹어.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에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불러서 그렇게 먹이고 했어.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살 때만 해도 보리밥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 쌀 한 가마니를 헐면 그전에는 90kg이 한 가마니였잖아(현

재 80kg). 보통 하루에 밥 네 끼를 하니까 하루에 보통 한 말이야. 쌀을 그렇게 먹었으니 반찬을 얼마나 먹었겠느냐고.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힘든 줄 몰랐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한양 조씨들이 넷 집정도 살았는데 다 일하는 사람들 두고 살았지. 제사를 정월에 지내면 국수 한 관에 다가 흰떡(떡국떡) 한 말을 다 먹었어. 아침에. 여기는 고기 넣은 국물에 다가 삶은 국수를 넣고 그 위에 흰떡을 조금씩 얹어주었어.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같어. 잔치를 해도 여기는 그랬어. 국수에다가 떡을 위에다 좀 얹어주었어. 국수면 국수. 떡국이면 떡국이야 되는데 여기는 안 그랬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떡국을 먹었지. 어머니 아버님 같이 제사 지낼 때는 계속 그렇게 먹은 것 같은데. 국수하고 떡 좀 같이. 우리 큰집도 작은집 식구 다 모이면 한 40명도 넘어요. 그래서 부꾸미도 한 말, 빈대떡도 한 말 그렇게 부쳐 먹었어. 빈대떡은 돼지고기 녹두 깔고, 고사리·숙주·김치 넣지. 양을 줄인 거는 3~4년 정도지. 요즘은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집 식구들이 안 오시니까. 우리는 5형제고 아버님 대(代)에는 3형제에 딸 3이었지.

옛날에는 전라도에서 모 심으러 한 20명씩 와. 주로 그 사람들이 심었어. 동네 사람들이 모 심으면 밥을 해서 예닐곱 명이 머리에 이고 쭉 갔어. 그 시절이 재밌었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그 후로는 소 마차, 경운기에 싣고 다니지. 요즘은 얼추 사 먹어. 그래도 3년 전만 해도 나는 못자리하고 벼 빌(벨) 때는 밥을 해서 줘. 요즘은 이제 안 해. 어떨 때 모심을 때는 한 끼, 벼 빌 때도 한 끼. 내꺼 빌 때는 해줘야지. 또 그걸 원해. 사 먹는 것보다. 김치 한 가지라고 밥해서 달라고 해. 사 먹는 것 지겹데.

봄에 마늘 감자 캐고, 참깨 심고 고구마 심는 거야. 그런 건 이모작

되는 거야. 올해는 참깨, 벼가 풍작이라네. 이번 비만 잘 지나가면. 날씨가 워낙 좋아서. 밭작물 재배는 예전에 주로 고추, 감자, 콩, 보리, 밀을 심었는데 요즘은 감자, 마늘 들깨, 서리태를 많이 심지.

석쇠에 동아(?) 구워먹기

미꾸라지 같이 생겼거든. 요렇게 길다란 거였어. 겨울에 사서 구워 먹었어. 그리고 밴댕이. 밴댕이도 많이 구워 먹었지. (두 분은 모르다고 하신다.) 청어 아니야? 청어. 아니야. 겨울에 사다가 구워 먹었잖아. 안중장에서.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평택은 안 다니셨어. 안중장에서 사 오셨는데. 동아라고 해서 동아라고 하는 거지 나는. 주로 석쇠에다 구워 먹었지. 소금 뿌려가지고. 요만했어. 조기 아니고 생긴 모양이 미꾸라지 같이 생겼지. 생선인데 소금 뿌려 구워 먹었지. 예전에는 나무 때서 밥 해먹었으니까.

단무지와 오양치

단무지를 직접 만들었지. 가을(음력 10월 정도)에 만들 때 무를 일단 말려 삐덕삐덕하게 말려서 노란 치자에다가 사카린 넣고 쌀겨에 버무려서 위에 덮어 놓고 그랬는데. 두 달 정도 됐다 먹었던 것 같은데. 겨울에도 꺼내서 먹고 주로 봄까지 밑반찬으로 먹지. 길게는 여름까지. 요즘은 안 만들지. 그전에는 여러 식구 살았잖아. 그러니까 반찬이…… 지금같이 시장을 자주 댕기나? 주로 밭에서 나는 것 많이 먹었으니…… 그전에는 오양치(늙은 오이 - 노각은 아니라고 하심)를 진짜 이런대로 하나씩 썰었어(두 팔을 크게 벌리셨다). 다 대접에 담아주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밥 비벼 먹었지. 오이 채 썬 거. 밭에 오이를 얼마나 많이 심

었다고.

평택의 음식과 문화에 대한 생각

평택은 관광이 하루 잠자고 갈 거는 없데여. 안성이 더 유명하지. 안성은 농악 구경하는 데가 있더라고. 아산만에도 농악 공연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한데 그전에는 했어. 빛 축제도 물 축제도 하고 밤에 가서 구경했어. 그때만 해도 잘 돌아다녔지. 음식은 우리 시집와서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변화가 없잖아. 그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대로지. 그렇지. 제사도 뭐뭐 놓고 하는 것 그대로지. 요즘 젊은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것 그대로 해놓은 것 보고 먹기나 하고. 아직 요즘 것으로는 안 올리지. 돈 버니까 친정에 쉬러 오는 거지. 원칙적으로, 자식들이 오면 반찬은 주로 내가 장만해놓고 저희들은 밥을 해먹지. 젊었을 때는 힘 안 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자식 노릇하기도 힘들고 서로 다 그래. 자식들은 줄 때만 좋다고. 암만 줘도 싫다 소리 안 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한없이 퍼줘야 하니까.

요즘은 장을 주로 오성에 있는 하나로 마트 가고, 시장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지. 그것도 장사(생선장수)가 오면 안 가게 되지. 하나로에 가고. 그리고 밭에 나는 가지, 오이, 호박, 주로 그렇지. 깻잎 같은 것 해서 먹고. 반찬은 깻잎김치나 찜보다는 간장으로 해서 밑반찬으로 먹지. 주로 생선과 야채 등으로 먹고 고기는 가끔 먹고. 우리는 토종이야, 토종. 그래도 고기, 생선 먹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지. 어른들 계실 때는 생신 때. 고기 두 근이면 동네사람 다 먹었잖아. 그렇지.

기록 후기

평택의 먹을거리에 관심을 갖다

— 정계숙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 식생활은 다른 어떤 생활과 우위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전 지구적으로 삶과 건강을 중요시하며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먹는냐에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2000년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살이', '로컬 푸드', '슬로푸드', '소울 푸드', '떼루아' 등의 용어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전달되었다. 그와 함께 드라마나 유명 쉐프들이 산지를 찾거나 종가음식을 재조명했고, 일반 대중들도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에 관심을 한층 갖게 되었다.

2004년 7월, 한여름 햇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에 죽4리를 처음 방문했다.

평택을 도농복합도시라고 일컫지만 방문했을 당시에 마을은 뒷산이 야트막하게 보이고 마을 앞 들판에는 초록빛의 벼들이 자라고 있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마치 시골 외가댁을 방문하는 것 같이 푸근하게 다가왔다.

시간이 흘러 2011년 1월경에 다시 찾게 되었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동네 어르신들과 친밀감을 느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간혹 회관에서 어르신들의 긴 세월 살아오신 얘기를 듣고, 들에서는 농사짓는 얘기도 들었다. 그리고 전통음식과 관련된 얘기와 근래는 어떤 음식을 해서 드시는지도 자연스럽게 여쭤볼 수 있었다. 어르신들은 마치 멀리 있는 친정 큰올케를 보는 것 같이 정이 넘쳤다. 한편으로는『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주인공 미치가 노은사(老恩師)를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러 가는 연민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어르신들을 뵙는 날들은 정과 함께 때때로 연민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 아마도 그동안 죽4리 어르신들의 지난한 삶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과 마주할 수 있었지만, 고향에 묻혀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노준식 형제들의

구술 자서전 실행계획안

2년전 형들과 매형 Sanjose

1. 구술 기획 목적

잘 나이 든 시니어에게는 싱싱한 젊은이들과는 다른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때로는 깊고 그윽하며 때로는 자유롭고 당당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려운 그 어떤 아름다움이다. 잘사는 자식들과 손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하는데도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는 80이 넘은 많은 노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다. 박스나 파지를 잔뜩 모아서 수레에 실어서 힘들게 끌고 가는 노인들에게서도 나는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을 본다. 내 주위의 어른들과 오래전에 외국으로 이민 가서 자리 잡고 살고 계신 형님들 뒷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놀라곤 한다.

그러나 노년을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노년은 분명히 신체적으로는 내리막길이다. 세월은 인간의 기력을 약화시키고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년의 아름다움과 어려움을 동시에 직시해야 한다. 노화의 단점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노화에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과정도 있다. 형님들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서 나는 나이 듦의 장점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이고 가치일까?

먼저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덧없어 보인다. 1970년대 유행한 Kansas(캔자스)의 노래 'Dust in the wind(바람 속의 모래)'처럼 인간의 삶은 한순간에 사라져갈 수 있고,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감사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노년기이다. 이 순간에 집중하며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시기가 인생의 귀하고 아름다운 황금기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현

재 속에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미래에 대한 통찰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이다.

이러한 노년기를 강화해 주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노년기의 지혜이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은 이 시기에 많이 발전한다. 노년이 더 큰 가치와 깨달음과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과, 죽음이 우주의 새로운 품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먼지도 아니고 낙관도 비관도 아닌 그 너머에 어디에 밤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둘째 노년의 아름다움이다. 물론 노년의 용모는 젊은이들에 비해서 그리 아름답지 않다. 이가 빠진 노인들이 식사하는 모습도 그렇고, 다리가 불편하여 질뚝거리며 걷는 모습도 답답해 보이며, 한번 한 소리를 끝없이 반복하는 노인들 소리도 듣기 싫다. 그러나 노인의 깊은 주름살과 거친 피부 그리고 흰머리, 그리고 천천히 사색에 잠겨 걷는 모습과 깊은 눈길에는 나름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로 그들에게는 제왕의 위엄마저 보인다. 노년이 젊은이들처럼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창조력이 있다.

노인들에게는 세속의 부와 명예에 대한 초월성이 있다. 부와 명예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동력이다. 그러나 80이 넘은 사람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과도한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면 달갑지 않은 수많은 일을 초래함을 알고 있다. 잘못된 유산분배는 자식들에게 분란만 일으키고,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을 심어주거나 오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흐트러짐 없는 생활 자세와 초월함에서 오는 여유가 있는 노인을 존경한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흰머리에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외면상으로는 측은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내면은 풍요롭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주목하는 것은 교육을 충분히 받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시니어들이다.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과거의 부모세대 노인들과는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년기를 저주받은 세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노인들이다. 그들은 과거의 어려운 시대에 고착된 수구적 인식에서 고착되지 않고 기후변화와 사라져가는 일자리와 사회의 불평등을 걱정하는 선진국형 시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 자신도 놀란다.

그들이 살아온 과거는 대부분 가족과 사회를 위한 희생의 시기였지만,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한 삶을 즐기겠다고 주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노인들이다. 이러한 사려 깊은 노인들은 "나이 든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일반의 상식 너머 나이 듦을, 절망으로 가는 길이 아닌 희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분명히 노년기는 여러 가지 기능의 쇠퇴로 인한 부작용과 노인 차별과 같은 사회경제적 압력으로 젊었을 때의 당당한 모습과 좋은 습관들을 잊어버리고, 더 넓고 활기찬 세상의 가치와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신노년층은 이와 같은 노인이 되면 나타나게 되는 위

둘째 형님 팔순잔치 행사를 3년 전,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가졌다. 한국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서 모인 뜻깊은 모임이었다.

산호세에서 어른들만의 사진

California Seacliff Beach 2011년

▲일본의 아들과 작은 교회에서 3년 전
◀나의 둘째 손자 일본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소박하고 아름다운 장인 장모집에서 2017년, 장인어른은 4년 전 작고

험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다가오는 위험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젊은이처럼 소리쳐 싸워서는 안 된다. 노년의 사회참여나 세상과 싸움은 젊은이들과 달라야 한다. 품위와 유머와 겸손을 보여주면서 싸워야 한다. 지혜는 단순히 책만 보고 얻을 수 없다. 온갖 풍파를 겪으며 나이가 들면서 성찰하고 성숙해져서 얻게 된 지혜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록 노화가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편도여행이지만, 그 여행에는 나름의 성장이나 긍정적인 발달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여러 변화를 자연스럽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나간다면 노년기는 새로운 삶을 창조해 가는 은혜로운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운이 좋다면 노년기를 '인간의 최고의 장점이 발현되고 유지되는 시기'로 만들 수도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내 형님들의 구술자서전을 통해, 나도 잘 모르고 있던 형님들 삶의 강점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해해보려 하며, 남은 생을 더욱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준비하고 있다.

2, 기본 기획(사업명, 내용, 대상, 일정…)

2-1. 사업명: 들바람 속을 헤치며 살아 온 세월

2-2. 내용

나는 몇 년 전부터 가족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침 2021년 8월에 배다리도서관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만나서 나의 형님들의 이야기를 구술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시발점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내 형제들은 오남매인데 나만 제외하고 오래전에 미국과 캐나다에 이민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다. 형님들은 80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손주 세대의 등장은 충격이었고, 어린 세대들에게 뿌리를 알려주어 그들이 자라나면서 겪게 되는 정체성 형성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미국에 살고 계신 형님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금년 88세이신 경기도 수원에 살고 계신 사촌 형님부터 인터뷰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사촌 형님을 시작으로 미국의 형님들(80대)을 차례로 인터뷰해서 1권의 책으로 엮어낼 계획이다.

[사촌형님과의 인터뷰]

사촌 형님 인터뷰는 5회 정도 진행하였다. 최근 형님 심정에 변화가 생겼다. 인터뷰는 했지만, 책으로 만들어 발표하지는 말아 달라고 하셨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었다. 안타깝지만 형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기획 담당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대신 구술 기획안과 계획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혹시 다음에 나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2-3. 구술자 섭외 계획

<면담자 1명> 노준식: 주소: 평택시 동삭동, 나이 74세

<구술자 5명>

회차	대상	내용	글계획
1차	사촌형님(수원)노두식	88세, 큰아버지 차남	2021.08~10월 50쪽 내외
2차	형님 2인 80대	미국 거주 (※캐나다 큰형님 사망)	2021.12~2022.06월
2차	누이 70대 중반		2022.07~09월(2차 150쪽)
3차	내 이야기	한국 평택	2022.07~10월 50쪽
4차	출판기념회	미국California, Santa Cruz	2022년 12월 24일 (전체 250쪽 내외) ※셋째 형님 팔순기념

2-4. 출판물 목차

제목: 들바람 속을 헤치며 살아 온 세월(가칭)

1860년 ~ 1976년: 할아버지와 부모님 세대 이야기

1930년 ~ 2021년: 사촌 형님 이야기, 한국을 중심으로

1930년 ~ 1975년: 친형님들 이야기, 한국을 중심으로

1976년 ~ 2022년: 친형님들 이야기, 미국을 중심으로

1940년 ~ 2022년: 종합편, 나의 이야기와 가족의 비전

2-5. 주요 질문들

<기본적인 질문>

- 태어난 곳,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린 시절 사신 곳
- 일정시대와 전쟁과 피난 시절 어떻게 지냈는지
- 학창시절 이야기(초등, 중·고, 대학)
- 직장생활 이야기,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 자식들 결혼, 손자들과 주요 친척들 이야기

<기억하고 추억할 만한 이야기들 질문>

- 당신의 부모에 대한 추억 둘
  / 편안한 추억(너무 가슴 아픈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 따듯한 내용 중심)
- 부모님에게 배운 것 한두 가지
- 형님들의 오늘을 만든 멘토(Mentor) 한두 명
- 평생 친구
- 인생의 큰 성공 하나,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에 대한 이야기
  성취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내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일
- 인생에 후회되는 한 가지(조금 아쉬운 점/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 남은 인생에 해보고 싶은 일(버킷 리스트)
- 배우자에게 감사한 점
- 자식과 손자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부드럽게 이야기할 것)
- 남은 삶에 대한 구상(유언이 있으시다면,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나의 이야기에서 기록할 내용들>

- 나이 듦의 행복과 노년기의 성장
- 형님의 에이징 파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신노년층 시민으로서의 역할 〈본인은 수구적 노인인가, 평범한 노인인가〉
-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과 형님의 일상의 라이프스타일
-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족보의 (1장), 연표(1850~2022)

2-6. 사진과 설명

- 할아버지 사진, 두 할머니
- 나의 부모님 사진 1960년
- 인식 형님 사진
- 우리 5남매 사진 1966년,
- 둘째 형님 부부 사진 2011
- 셋째 형님 가족사진
- 어른들 4남매 부부들의 만찬/ 산 호세에서
- 미국 형님 팔순 기념 가족 모임 사진(추후 예정)

마을, 이야기가 되다

2021년 마을, 이야기가 되다 기획의 글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1~4』,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1, 2』 도서관에서 여섯권의 구술생애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올해는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1』에 실린 어르신의 이야기, 평택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실마리로 글쓰기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읽고 나누며 내 삶의 이야기를 실타래 풀 듯 풀었습니다. 삶이 이야기가 되고 수필이 되고 새로운 이야기 '동화'로 꽃피었습니다. 평택이란 시공간에서 탄생한 수필과 창작동화를 펼쳐 놓습니다.

수필

중매 반 연애 반

— 이해복

나는 오래전 손편지를 쓰던 때 외에는 호흡이 긴 글을 별로 써 본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다리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 〈마을, 이야기가 되다〉의 수강 안내 문자가 왔다.

무심히 지나치려다가 수필과 동화 쓰기 내용이 있어 수강 신청을 바로 했다. 오래 써 온 동시 외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 볼 특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품으면서.

첫 수업 날, 우리는 오성마을인물백과사전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라는 책을 대여 형식으로 한 권씩 받았다. 당일 받은 책이기에 수업 전에 전 권을 다 읽을 여유는 없었다. 하여 책 내용 중 허분순 님의 이야기 부분을 읽고 생각 나눔 시간을 가져본다고 하였다.

선생님은 우선 허분순 님 편 이야기의 단락별 소제목 중 마음이 가는 제목을 말해 보라 하셨다. 각자 책을 뒤적여 허분순 님 편에서 소제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군가 곧바로 "'중매 반 연애 반'이요" 하고 큰소리로 대답을 했다. 모두 와하하 소리 내어 웃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수업 도중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풀어주시는

듯싶으면 선생님께 연애담을 들려달라고 얼마나 졸랐던가!

허분순 님 편의 이야기 중 '중매 반 연애 반' 내용은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우선 내용 자체가 짧았고, 가을날 마른 낙엽과 같이 건조해서 웃으며 기대했던 것이 무색해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남편과 특별하게 시작된 사십칠 년 전의 내 상황이 떠올라 덕분에 슬그머니 더해지는 웃음을 숨길 수 없었다.

남편은 내게 '퇴짜 맞은 편지 친구'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선의로 모 학생 잡지에 내 이름이 실렸었다. 그때는 펜팔이 유행하던 때라 그로 인하여 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소녀 가장으로서 학교생활 외에 분초를 다투며 빡빡한 삶을 살던 내게는 다른 사람들과 한가하게 편지를 주고 받을만한 여유가 없었다. 펜팔은 당시의 내게 있어서는 사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본의 아니게 내 이름에 기대를 걸고 편지를 보냈을 많은 사람을 몰라라 할 순 없었다. 그러기엔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괜히 큰 빚인 듯싶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마음을 담은 글과 함께 보내온 편지를 동봉하여 반송했다. 나중엔 보내온 편지가 너무 많아서 반밖에 돌려보내지 못하고 중단해야 했지만.

그렇게 반송된 편지를 받은 많은 사람 속에 남편도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인연이 닿았던 것일까? 그가 내가 사는 도시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십 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다가 부부가 되었다.

가끔 선후배 지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부부간의 인연 이야기가 풀리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 부부의 '퇴짜 맞은 편지 친구' 이야기는 언

제나 단골 메뉴였다. 결혼 전에 우리 부부는 그냥 순수한 친구로만 지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의 그때 그 시절이 남들처럼 열렬한 사랑기는 아닐지라도 풋풋한 연애기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주 잠깐이지만 소중했던 그 시절을 소환해 준 〈마을, 이야기가 되다〉의 첫 수업과 그 강좌에 참여하였음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수업 참여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리란 것을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나의 평택

— 김예주

평택은 포근하다. 아동기에 맺은 애착이 평생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가. 엄마 아빠와 동생, 곰인형도 나의 애착 대상이었지만 평택은 그 자체로 나의 애착 도시다. 살면서 만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야 마는 나는, 내 가족을 좋아하고, 내가 다닌 학교를 좋아하고, 내가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내가 자주 걷던 길의 돌멩이를 좋아하다가 이 모든 것들이 있는 평택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늦은 밤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지쳐서 덜컹덜컹 오다가도 '이번 역은 평택역' 소리를 들으면 벌써 집에 들어선 기분이 밀려온다.

대학에 와서 동기들끼리 서로 지역을 물으면 평택 사람은 나 혼자였다. 평택이 어디 있는지 몰라 미안한 표정을 짓는 친구들도 종종 만났지만, 여전히 나는 내 지역을 묻는 사람들에게 '서울 한참 밑에 작은 도시'나 '수원이랑 가까운 곳'이 아니라 '평택'에서 왔다고 한다. 그다음엔 꼭 '근데 어딘지 아세요?'가 붙지만.

평택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이전에는 고민 없이 작고 평화로운 시골 도시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는 논과 밭이 저 멀리까

지 보이는 세교동에 살았다. 지금도 세교동 할머니 댁에 가면 그때 잡았던 수많은 잠자리와 우리가 키우던 토끼, 닭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여름이 오고 여름 냄새가 나면 골목에 나와 부채를 들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 겨울엔 얼어있는 논바닥에서 노는 우리를 위해 식어버린 붕어빵을 한 봉지씩 사 오시던 큰아빠가 생각난다. 언제부턴가 하나씩 사라진 모습들이다. 이제 할머니 댁 앞에는 넓은 8차선 도로에 지하도, 커다란 병원이 있다. 내가 좋아하던 조그마한 오르막길도 없고, 벼가 자라던 논에는 건물을 짓는다고 높은 가림막이 쳐졌다.

세교동이 아직 작고 복작거릴 때, 우리는 커다란 아파트가 있는 비전동으로 이사를 왔다. 차로 겨우 10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지만, 처음 만난 비전동은 신기한 곳이었다. 학교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항상 공사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서 건물이 지어지고, 상가가 들어서고, 여전히 버스는 잘 다니지 않았다. 휑하게 비어있던 소사벌 한복판에 영화관이 생기고, 아파트가 더 높이 올라가고, 학교들이 곳곳에 지어지고 나서야 버스 노선도 함께 와주었다. 밤하늘 야경처럼 반짝이는 상가들의 불빛이 늘어날수록 삶의 구석구석이 편리해졌다. 우리 집 문 앞까지 저녁을 배달해주는 음식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나는 아직도 가끔 놀라곤 한다.

이제는 평택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내 키가 크고 생각이 자란 것처럼 평택도 나를 따라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다. 어릴 적 말 없고 나서지 못하던 내가, 재밌어 보이는 것은 뭐든 해보는 지금의 내가 된 것처럼. 어둠이 깔리면 여치가 울고 할머니의 배추들이 자라던 평택은 어느덧 낮에도 밝고 밤에도 밝은, 하지만 여전히 나의 농부 할머니가 있는 진짜 가짜 도시가 되어

버렸다. 변해버린 많은 것들이 새삼 아쉬우면서도, 내가 나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듯 평택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변하고 자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 나의 평택은 여전히 포근하다.

평택은 섞박지다

— 김경아

찬바람이 쌩하니 코끝을 시릴 때면, 시골 외할머니댁 방 한 켠 이불 속에는 김치가 익어간다.

일 년 중 무가 제일 맛있는 계절은 겨울이다. 단맛과 아삭거리는 맛이 과히 일품이기 때문이다. 외할머니는 겨울 무를 제법 큼직큼직하게 썰어 김치를 담그셨다. 외할머니가 담그시는 무김치는 자연스럽게 익기를 기다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인위적으로 익히는 게 포인트였다. 그래서, 차가운 겨울 날씨를 피해 방 한구석에 갓 담근 김치를 두고 담요를 덮어두곤 하셨다. 방 한구석에서 저도 마치 이 집식구인 양 한자리를 차지한 채 뽀글뽀글 거품을 내며 익어가는 김치. 방문을 열자마자 훅 들어오는 신김치 냄새는 절로 침이 돌게 했다.

외할머니의 무김치는 별 반찬이 없을 때도, 라면을 먹을 때도 톡톡히 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푹 고아 만든 곰탕 국물과 함께 먹는 무 김치는 다시 없을 환상의 짝꿍이었다. 김이 나는 곰탕에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말아 한 숟가락 푸욱 떠서 먹으면 입 안 가득 뜨거움이 퍼진다. 그 뜨거움이 식기 전에 빨갛게 익은 무김치를 한 입 크게 베어

씹는 그 맛이란. 그 시원 시큼한 농익은 맛이란……. 참으로 그리운 맛이다. 외할머니의 그 특별한 무김치가 섞박지의 일종이라는 것은 커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결혼하면서 평택에서 살게 되었다. 경기도가 직장인 나(나의 직장은 경기도 내 전근이 가능했다)와 천안이 직장인 남편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한 최종 장소가 평택이었다.

평택의 가장 번화가였던 평택역 주변도 결혼 당시에는 단층 짜리 건물이 즐비했다. 평택역에서 신혼집이 있는 비전동으로 차를 타고 올 때면 길옆으로 논들이 그득했다. 나에게 평택은 충청도의 느긋함과 시골의 푸근함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단어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새롭게 옮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집 텃밭에서 기른 고추와 상추를 나누어 주었고, 내 아이의 탄생을 함께 기뻐해 주었다. 결혼 생활에서 벌어지는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 시댁에 대한 섭섭함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지나온 삶에서 배운 지혜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멀리 있는 친정보다 더 자주 마음의 위로를 주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동안 평택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다. 과수원이 있던 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외길 비포장도로는 아스팔트가 깔린 왕복 4차선 도로가 되었다. 단층짜리 허름한 가게는 유명 프랜차이즈가 있는 번듯한 건물로 바뀌었다. 외할머니의 섞박지 김치처럼 그렇게 빨리 익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곰탕과 어울리는 구수한 맛 그대로 여전히 내 옆에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찰나의 일들을 쑥덕거리며 신맛과 단맛이 함께 섞여지고 있다. 급하게 익혔지만 진한 맛을 가진 외할머니의 섞박지 김치처럼 평택이 그렇다.

평택은 징검다리

— 이경미

평택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 결혼생활이 시작된 곳이다. 여덟 살 때 아버지의 직장 전근으로 인천으로 이사 갔다. 그리고 스물일곱 살에 결혼해서 평택으로 다시 내려올 때 이 도시가 낯설지 않고 정겨웠다.

덕동산 근처 주공아파트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지금은 재건축이 되어 세련되고 멋진 고층아파트로 변모했지만, 그때는 5층 아파트였다. 이곳에서 알콩달콩 결혼생활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멋진 아들이 태어났다.

덕동산 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서 시어머님과 배드민턴도 치고, 소나무를 벗 삼아 운동을 하고 약수터에서 시원한 물로 갈증을 해소했다. 평택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운동과 산책을 하고 할아버지들은 삼삼오오 장기를 두었다.

아들이 킥보드와 롤러스케이트 타는 연습을 하기 위해 평택시 농업박물관과 평택호 관광지를 자주 찾아갔다. 평택시 농업박물관에서 평택농업에 관한 변천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었고, 평택호예술관에서 다

양하게 전시된 그림도 감상했다. 평택호예술관 앞에서 내려다보이는 평택호 풍경은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물결이 아름답고 가슴을 탁 트이게 했다. 평택호를 끼고 산책을 할 때 이마에 기분 좋게 스치는 바람은 아직도 몸에서 느껴진다.

아들과 함께 역사 탐방으로 갔던 원균장군묘, 대동법 시행기념비, 팽성읍객사, 향교, 심복사, 농성, 농성 언덕을 거닐면서 보았던 주변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다.

억새와 저녁노을 지는 모습이 아름답고 경이로웠던 원평나루. 원평나루억새축제 행사 때 유명 가수를 보겠다고 까치발을 들고 목이 빠지게 야외 행사 무대를 바라보았던 생각을 하니 미소가 지어진다.

지금은 새롭게 단장을 한 비전도서관이지만, 예전 평택시립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대출하고 읽으면서 문학을 동경했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은 선생님과 소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참 벗들도 만났다. 참 벗들과 함께 힘들고 지친 일상을 공유했고 지지와 공감도 받았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워나갔다.

가족과 외식을 하는 날에는 언제나 정규코스처럼 소풍정원을 찾았다. 소풍정원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운치가 있다. 소풍정원의 입구에 들어서면 연꽃이 가득 핀 호수가 반겨주며, 잔잔한 음악에 발을 맞춰 산책하다 보면 호수 안의 분수를 볼 수 있다. 분수를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된다. 하트 모양의 아치에서 사진 한 컷을 찍고, 호수를 끼고 한 바퀴 돌고 나면 '쩐' 행복이 찾아온다.

배다리생태공원은 나에게는 공기와 같다. 시간 날 때 아침, 저녁으로 즐겨 찾는 곳이다. 사계절의 풍경을 느낄 수 있고, 잉어를 볼 수 있

고, 물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물레방아를 만난다. 큰 호수에서는 분수가 뿜어져 나오고 나무로 깔린 다리 난관은 예쁜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오솔길을 걷다 보면 소나무 향기에 흠뻑 취한다. 그리고 그 옆에 배다리도서관이 있다.

배다리도서관은 나에게 쉼과 힐링,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주었다. 도서관 1층부터 3층까지 연결된 달이네마루 공간, 그 공간의 계단에 앉아 쉼을, 다양한 책과 벗들을 만나서 힐링을, 마을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쓰기를 시도하는 용기 그리고 글벗들과 글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이 있다.

평택이 새로운 모습으로 풍성하게 발전하는 동안 아들은 청년이 되었고, 남편과 나는 중년이 되었다. 평택은 나이를 한 살 한 살 배부르게 먹게 했고, 나를 성장하게 했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는 법을 알게 해 준 곳이다. 평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포근하고 행복하다. 나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준 곳,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꿈을 펼치게 하는 곳 이런 평택을 사랑한다.

평택은 나의 20~30대, 30~40대, 40~50대를 이어온 징검다리이다. 이 안전하고 편안한 징검다리인 평택에서 나의 즐거운 인생을 더 펼쳐 나아갈 것이다.

인연

— 민윤희

"다음 신청곡은……."

꾸욱. 라디오 들으며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지만 오늘은 과감하게 버튼을 누른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참 시원하다. 잠시 멍하니 앞만 보고 운전하다 보니 글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가 문득 떠오른다.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밀려온다.

평택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매번 오가면서 길이 참 낯익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뿔싸 생각이 났다.

당진에서 연년생 아이들을 키울 때였다. 아이들 옷과 신발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외출을 감행했던 일이 떠올랐다. 평택에 있는 ○○아울렛은 나의 피난처이자 놀이터였다. 서해대교를 건너 평택이라는 단어만 보여도 왜 그렇게 기쁘던지, 평택에 오던 날은 아이들도 내 몫이 아니었고 오가는 시간까지 서너 시간은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장시간의 운전도, 무거운 쇼핑 가방도 그냥 좋았다. 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각이면 아이들은 늘 자고 있었다. 남편과 셋이 나란히……. 기분 좋게 외출한 대가인가? 숙면을 취한 아이들은 내가 도착할 무렵

에너지를 충전하여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다시 씩씩해졌다. 그것이 평택과의 첫 번째 인연이다.

눈이 내리다가 급기야 진눈깨비로 바뀌어 도로가 미끄럽던 어느 겨울날, 세 명의 같은 학년 선생님들을 내 차에 태워 평택에 온 적이 있다. 백종원 아저씨가 소개해 준 호떡 맛집, 만득이네라는 가게에 오기 위해서였다. 칼국수를 먹으러 서울 남대문 시장을 가고, 쫄면을 먹으러 청주에 가고, 돌게장을 먹으러 여수에 가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자주 짓는다. 그렇다, 분명히 나는 역마살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나 보다. 그날도 나의 역마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동행해 준 선생님들은 지금도 인연이 되어 방학 때가 되면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 평택이라는 단어만 봐도 함께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고 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이면 마음이 급해진다. 평택과 나의 세 번째 인연은 배다리도서관이다.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보이고 싶게 만드는 글 선생님이 있고, 매번 감탄하게 되는 글솜씨를 가진 글 친구들이 있는 곳이다. 글 친구들의 인생과 생각을 공유하며 감탄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준 곳이다, 프로의 모임에 아마추어인 나는 매번 위축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매번 다음 주를 기대하게 된다. 앞으로도 내 기억 속의 평택은 인연이라는 단어로 기억될 것 같다.

평택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좋은 곳

— 이종진

서울과 분당에서 오랫동안 사셨다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분당 아파트를 세주시고 평택에 오니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가 있어 좋다고. 먼저 사시던 곳들에선 모두가 매일 긴장하고 있어 사람이 아닌 미어캣 같다는 생각이 드셨단다. 평택에 대해 나에게 물으셨는데 나는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해 웃음으로 답을 드렸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다. 나에게 평택은 어떤 곳인가를.

평택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딱 좋은 곳이다. 주로 그 역할을 하는 장소는 도서관이다. 학교 담이 고풍스러운 성동초등학교 뒤에 비전도서관이 있다. 전에는 평택시립도서관으로 불렸다. 새 단장을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평택시립도서관에서 지금은 하늘로 여행을 떠나신 권남숙 선생님을 만나 에니어그램 공부를 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혜영 님, 정희 님, 선희 님, 미정 님, 경미 님, 신애 님, 진희 님, 두 명의 현주 님이다.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람도 있고 가끔 잘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

평택시립도서관에서 매달 한 번씩 있는 인문학 강의도 들었다. 작년 6월 25일에 돌아가신 내가 존경하는 김종철 선생님을 두 번 뵈었고 윤구병 선생님, 곰 선생님, 원순 씨, 장회익 선생님, 백승종 선생님, 한홍구 선생님, 하승수 님, 고정순 님, 강수돌 님, 황대권 님, 제주도의 독립을 주장하시며 이제는 제멋대로 돌고 있는 자본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분 등 여러분이 오셨다. 인문학 강의를 듣고 오는 날이면 내가 갑자기 엄청 똑똑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두둥. 몇 해 전 집 근처에 배다리도서관이 생겼다. 도서관 3층에서 계단을 내려다본 첫날 내가 건물의 주인 같은 생각이 들며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았다. 배다리도서관은 매일 가고 싶은 곳이 되었다.

2019년에 배다리도서관 프로그램 중 하고 싶은 것을 다 신청했다. 글쓰기 반에서 멍석을 깔아주며 맘껏 놀게 해주는 아주 큰 포목점 주인 김미아 선생님을 만났다. 그해 멍석에 같이 올라선 이들로는 혜인 님, 영희 님, 태현 님이 있다. 올해 멍석 위에서 만난 분들로 재욱 샘과 은해 님, 지안 님이 있다. 여기서 만난 분들은 필사 톡방에서도 만난다.

2019년부터 꾸준히 1, 3, 5주 수요일마다 낭독모임이 있다. 멤버가 열여섯 명이다. 제각기 다른 크기의 그릇에 어떤 음식을 올려도 돋보일 수 있게 영애님이 튼튼한 상을 펼치고 진행한다. 영애님이 없는 날이 하루 있었다.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는 집 같았다.

그리고 박향희 작가님의 동화 수업을 들은 후 만든 북꾸미 모임이 있다. 모두가 도서관이 맺어준 인연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좋은 곳으로 평택에는 평화센터도 있다.

슬기로운 숫자생활

— 고인정

종원이가 일곱 살이 되면서 숫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백 원. 이백 원. 삼백 원…… 구백 원. 십백 원. 천원을 십백 원이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며 숫자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돈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주 일요일 교회 갈 때 천 원을 주면 백 원은 교회에 십일조 헌금하고 나머지 돈은 일주일간 사용하도록 했다. 단, 꼭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해주었다.

첫째, 주일에 교회에 빠지면 용돈 안 받기.

둘째, 한꺼번에 오락하며 사용하는 건 금지.

종원이는 용돈 때문인지 친구들 때문인지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학교 앞 문방구에 있는 오락기가 문제였다. 복작거리는 서울 주택가 초등학교 앞이니 하굣길에는 아이들로 빼곡했다. 백 원짜리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동그란 공이 튀어나오고 그 안에는 다양한 장난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허탕 치는 경우가 많고 꽝이 나오면 사탕 한 개가 전부이다. 문방구 앞엔 아이들이 몰려 앉아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백 원짜리 동전을 넣으며 놀이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루는 종원이가 입안에 뭔가를 오물거리며 집에 들어오면서 내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들었다.

"너 용돈 다 썼지? 오락했니?"

나는 아이를 추궁하며 몰아세웠다.

"아니요. 과자 사 먹었어요. 엄마가 용돈으로 과자 사 먹는 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종원이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들었다. 똑같은 모양의 사탕이 조그마한 주먹 안에 가득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문방구로 향했다. 문방구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문방구에 자주 와서 오락기 앞에 붙어 있는 아이 중 한 명이고 조금 전에도 다녀갔다고 했다. 겁이 난 아이는 벌벌 떨며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잘못하다 들키면 오줌을 지리는 버릇이 생겼다. 유치원에서 우산이나 멜로디언을 놓고 왔을 때도 그랬다. 종원이는 엄마에게 잘못한 걸 들켜서 야단을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잘 챙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항상 칭찬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의를 주었는데.

'오락기 앞에 붙어서 갖고 싶은 장난감을 구경하거나, 깜박하고 우산을 놓고 오는 일이 크게 잘못된 행동은 아닐 텐데…….'

하지만 아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럴 즈음 평택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넓은 들판과 평야가 있는 평택은 아이에겐 너무나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어느새 가방을 던져놓고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 노을이 뉘엿뉘엿할 때가 되어서야 배가 고파지면 집에 들어왔다.

"엄마~ 엄마~ 친구들과 잠자리 잡으러 다녔어요. 열 마리도 더 잡았

는데 다 놓아주었어요. 저, 잘했죠?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일은 메뚜기 잡으러 가기로 했어요. 너무 신날 거 같아요."

종원이는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노는 동안 자연 공부도 하고 숫자 공부도 하면서 평택과 함께 자라고 있었다. 이제는 오줌을 지릴 만한 곤란한 일도 없어졌다.

사 먹는 김밥도 맛있다

— 권오휘

나는 엄마가 깨를 볶거나 기름을 두르기만 하면 입맛을 다실 정도로 직접 짠 기름의 향과 맛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독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김 위에 기름과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한 갓 지은 밥과 시금치, 볶은 당근, 계란지단, 햄, 단무지를 올린 음식. 맞다, 김밥이다. 내가 원래 좋아하는 재료였든 아니든 밥과 함께 김 안에 돌돌 말면 다 맛있어진다.

김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연녹색 락앤락에 들어있던 엄마의 김밥이다. 엄마는 내 소풍 때 항상 김밥을 손수 만들어 연녹색 락앤락 통에 한가득 담아주셨었다. 아무리 먹성 좋은 나여도 한 번에 다 먹지는 못할 정도로 늘 양이 많았는데, 그럼 그건 소풍 후 내 간식이 되었다. 여러 재료의 맛이 가득가득 밴 식은 김밥의 맛도 좋아했기에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남은 김밥을 버린 적이 없으셨다. 그 정도로 김밥은 나에게 '애정하는' 음식이다.

그런 나에게 시련이 닥쳤는데, 집을 나와 살면서는 김밥을 먹는 게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일할 때는 선배들이

아이 소풍으로 싼 김밥을 가져다주셔서 간간이라도 직접 싼 김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평택으로 오고는 그런 기회가 아예 사라졌었다. 사 먹는 김밥은 너무 맛이 없었고 직접 싸 먹기에는 손이 많이 가 자주 먹을 수 없으니 맛없는 김밥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평택에 김밥으로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처음 접한 '맛있는 사 먹는 김밥'이었다. 하지만 같은 평택임에도 당시 집에서는 거리가 제법 되어 자주 먹지는 못하다가 1년 후에 집 근처에서 드디어 인생 김밥집을 만나게 된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반찬가게 입간판에 '김밥 진짜 맛있어요'라는 문구가 보였다. 그때 든 생각은 '이건 찐이다'였다. 반찬가게에서 다른 반찬 홍보 없이 김밥만 홍보하는데 맛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먹어본 김밥의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적절히 삼삼한 간과 오이 대신 초록 나물을 사용한 것부터 우엉이 들어있는 것까지 완벽히 내 취향이었다. 사 먹는 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그 후로 뻔질나게 그 집을 드나들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때도 그 김밥집을 자주 이용했다. 개인 사정이 잦으신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그럼 좀 불퉁거리다가도 다시 맛을 보면 '다음에 다시 와야지 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그 가게는 나에게 그런 곳이었다.

엄마의 김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사 먹는 김밥도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 여러 김밥집을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 이제는 또 그 김밥집부터 차로 30분 거리에 살게 되어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늘 맛있던 그 김밥집을 기억하며 나는 또 새로운 김밥집을 찾는다.

계절의 맛

— 백진주

냉이와 달래는 길고 차디찬 겨울이 끝을 알려 주는 산의 음식이다. 아직은 약간 추운 날, 갓 캐온 냉이를 된장에 조물조물 무친다. 남은 냉이는 된장찌개에 넣어 한 스푼 떠서 맛을 본다.

그 한입에 향긋한 봄의 시작 내음을 맡을 수 있다. 매콤 쌉쌀한 달래는 간장에 절여 달래 간장을 만든다. 지난가을 딴 햇김을 노릇노릇 구워 그 위에 밥을 얹고 달래 간장을 올려 먹으면 겨울 동안 추위로 움츠러들어 잃어버린 입맛이 다시 똑똑똑 문 두드리고 찾아온다.

여름에는 낮이 가장 긴 하지 즈음 밭에서 캐는 감자가 그 어떤 과일보다도 달다. 멸치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어 다른 특별한 재료 없이 하얀 감자를 깍뚝 썰어 넣고 푸욱 끓여 간단히 국을 해서 먹는다.

뜨끈한 멸치육수에 폭신한 감자 한 입이 달고 든든하다. 간단히 아침 끼니를 때울 때는 작달막한 빨간 감자 네 개를 깨끗이 씻어서 살짝 물에 담갔다가 전자레인지에 10분을 돌린다. 머리 감고 나오며 뜨거운 찐 빨간 감자를 꺼내두고 한 김 식혀 헐레벌떡 나가며 챙겨간다.

긴 출근길이지만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고도 짭짤한 빨간

찐 감자 껍질을 한겹 한겹 벗기며 먹다 보면 금세 든든한 뱃심으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다.

가을에는 전곡항 근처에 있는 수성2호 왕새우 소금구이 집에 꼭 들러야 한다. 그곳에서는 싱싱한 대하 소금구이를 즐길 수 있다. 자리에 앉으면 가타부타 주문이 없어도 점원이 터벅터벅 살아있는 대하 한 바가지를 멋없이 턱 가져가 준다. 그러나 그 안의 대하는 어찌나 싱싱한지 머리를 똑 떼어내고 껍질을 발라내어 달짝지근한 대하 회로도 즐길 수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인 새우를 푸짐하게 껍질을 산처럼 쌓아 놓으며 먹다 보면 술 한잔하지 않아도 몽롱하게 새우 구운 냄새에 취한 기분이다.

겨울이 오기 전 가장 큰 행사는 바로 김장이다. 밭에서 직접 가꾼 배추를 소금에 알맞게 절이고 예쁘게 키운 소담한 무를 채 썰어 시골에서 빻은 고춧가루와 잘 버무린다. 역시나 손끝에서 키워낸 마늘과 생강도 제 역할을 한다.

물론 채소들을 키워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의 평택의 엄마, 아빠다.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 본 적이 없었기에 결혼하면서 새롭게 가족이 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구분을 위해 '평택'을 붙여서 '평택' 엄마, '평택' 아빠라고 쓰려고 한다.)

부지런한 평택 엄마, 아빠는 여름부터 밭에서 차곡차곡 김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김장은 재료만 준비되면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다.

교과서에서만 글로 배우던 '계'가 실제로 눈 앞에 펼쳐진다. 동네 분

들이 매년 와서 김장 시작부터 정리까지 함께한다. 마지막에 막 버무린 김치와 모락모락 김이 나는 수육, 그리고 막걸리를 대접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위에 나열한 음식들과 같이 그 계절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철 음식이라고 한다. 나는 내 또래보다 제철 과일, 채소, 해산물을 잘 알고 때에 따라 잘 챙겨 먹는다. 곧 다가올 제철 음식을 떠올리며 식구들과 함께 먹을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어려서부터 잘 알던 것은 아니고 결혼하고 평택에 자리를 잡아 새로운 가족과 식구가 되고 함께 한 식사의 추억이 소복소복 쌓이며 시나브로 알게 되었다.

나의 평택 식구들은 계절의 흐름과 매우 친하다. 특히나 계절의 맛을 때에 맞게 즐긴다. 그들은 새로이 식구가 된 나에게도 계절의 맛을 소개해주고 친해지도록 도와주었다.

이전에 살던 도시에서는 풀이 자라는 모습, 특히나 평택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밭이나 논은 거의 없고 빌딩과 아파트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래서 평택에 처음 터를 잡을 때는 베란다 저 멀리 보이는 평평한 논과 밭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심지어 조금 싫었다. 여름이면 내가 남편에게 우스갯소리로 '평택 냄새'라고 부르는 논과 밭에 거름 냄새, 또는 축사 냄새가 공기 중에 일렁이는 것이 낯설었다. 이전에 살던 도시와 다르게 드넓게 보이는 논과 밭이 내 삶의 가까이 있는 것도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새 가족들이 평택의 풍경과 매력을 느끼도록 '맛'으로 알려 주었다.

우리 평택 엄마는 엄청난 요리사이다. 평택 엄마 집에 가면 항상 식탁 위에 마법을 부리신다. 내가 결혼 전에 식당에서나 먹을 법했던 음

식들이 뽕뽕 상위에서 춤을 춘다. 요리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뜰히 주변 사람을 챙겨주신다. 그리고 언제나 존경스럽게도 참 부지런하시다. 새 식구가 된 내가 쭈뼛대고 어색하지 않도록 따스하게 몸과 맘과 맛으로 품어 주셨다.

어머니는 봄에는 들로 냉이와 달래를 캐러 가신다. 나물을 조물조물 무쳐 입맛 없다고 징징대는 내 입에 쏙 넣어주신다. 조금씩 나누어 얼려 주시며 나중에 집에 가서 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넣으라고 두 손 가득 챙겨주신다.

아버지는 봄과 가을에 주꾸미 낚시를 즐기신다. 봄에는 머리에 하얀 알이 가득한 주꾸미를 가을에는 살이 올라 커다란 주꾸미를 잔뜩 잡아다가 주꾸미 샤브샤브를 먹도록 해주신다. 평택 식구 여섯 명이 열심히 먹어도 주꾸미는 항상 한가득 남아 있다. 남은 주꾸미를 바리바리 챙겨주신다. 물론 주꾸미볶음을 해 먹으라고 양념과 갖은 채소도 썰어서 함께 들려 보내신다.

여름에는 시골 하동에서 따온 매실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쪼갠다. 잘게 쪼갠 매실은 조금 더 지나면 더위로 입맛 없을 때 밥도둑이 될 새콤달콤 매실장아찌가 된다.

여름엔 평택 부모님의 텃밭에서 키운 갖가지 채소들의 향연이다. 마늘, 양파를 시작으로 감자, 콩, 옥수수, 상추, 깻잎, 가지, 오이……. 그 작은 밭에서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어떻게 큼직하게도 자라난 건지 마술 같다.

더 마술 같은 것은 어느덧 결혼 전까지 무도 썰어본 적 없던 '요알못'인 내가 그 제철 채소들로 남편과 함께 식탁을 색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들이 늘어나고 맛을 낼 수 있기

까지 평택 식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글을 쓰다 보니 제철 음식 박사로 거듭날 것만 같다. 실제로도 일터에서 나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과도 스스럼없이 제철 음식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끔 스스로 놀라곤 한다. 어떨 때는 우리 친정엄마와 통화하다가 알려주기도 한다.

어느 계절에 어떤 음식이 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된 나 스스로가 참 어른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 평택의 풍경이 계절마다 변하는 것을 눈으로만 알려준 게 아니라 평택의 사람들이 계절마다 먹어야 할 지혜를 전수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평택의 사람들과 함께 살며 알게 된 것은 계절의 맛과 더불어 어른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결혼 전 어릴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을 결혼 후 평택에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맛보고 느끼고 배웠다.

맛있는 것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내 사람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 또 챙길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의 여유까지. 평택에서의 지난 4년 동안 나는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앎과 맘을 차곡차곡 채워왔다.

앞으로 평택에서 살아가면서 더욱 여유있게 나와 남을 살뜰히 돌아볼 수 있게 되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계절의 맛을 알려줄 수 있는 따뜻하고 부지런한 어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영감

— 최유선

"영감! 영감! 아이구, 또 어데로 간겨……."

애타는 얼굴을 한 할머니가 종종걸음으로 마을을 다니고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셔요?"

"아이고 새댁! 마침 잘 만났구먼. 아니 글씨, 우리 영감이 없어졌어."

"어머나 또요? 저번에도 오셨다가 금방 사라지셨잖아요."

새댁은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다.

"글씨 말이여. 나가 어적 밤에도 영감 기달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디, 새벽에 영감이 오는 소리가 들렸구먼. 그때가 아마 닭이 울 때 즈음이든가 했을 거여."

"네에."

"그려서 집 나간 영감탱이가 인제서야 겨들어왔구나……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는디…… 라고 내 속으로 생각혔어."

새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근디, 그 중요한 순간에 갑재기 뒷간이 급한 거여. 그놈의 영감! 내 후딱 댕겨와서 두고 보자 했는디, 고 잠깐 새에 없어져 버렸구먼."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상기되었다.

"어머머, 그러셨구나."

"에이그…… 해필 그때 소변이 매려울 게 뭐람!"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저런, 영감님은 또 어디를 가신 걸까요?"

"아침내 마을을 돌아댕겼는디 영감 터럭 하나 못 봤구먼. 인자 그 영감을 어데 가서 찾어야 헐지……."

할머니는 점점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말해 뭐혀, 영감 기달리느라고 내 속이 까맣게 타부렀을 거시여. 오늘은 올랑가, 내일은 올랑가, 꿈에라도 안 나올랑가…… 허고 오매불망 기다렸구먼. 그 영감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거시 꼭 홍, 홍……."

"홍길동?"

새댁이 잽싸게 대답했다.

"그려! 꼭 홍길똥이 같다니께."

"영감님이 또 번쩍하고 오시지 않을까요?"

"아유, 그러겄지. 이번에 들어오면은, 내 그 영감 멕을 콱 붙잽고 절대 안 놔줄 거시여!"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불끈 쥐어 보였다.

"아이고, 영감님이 빨리 오셔야 할 텐데……."

"그니께, 내 맴이 급혀 죽겄어. 곧 마감날이라 싸게 싸게 글 써야 하는디 영~ 감이 안 와."

할머니는 초조한지 제자리에서 종종거렸다.

"이케 손 놓고 가마이 있을 수는 없구먼. 가물에 콩 나듯 찾아오는 그놈의 영감 꺼는 죄 없애 버리구 어데 좋은 영감 없나 찾아봐야겄어. 그나저나 새 영감은 어데서 구하누……."

할머니는 비장한 표정으로 옷소매를 걷어 올렸다.

"혹시 평택에 배다리 저수지도 가보셨어요? 거기에 새 영감이 많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코, 내 정신이야! 배다리공원을 깜빡했구먼. 지금 당장 가봐야겄어."

할머니는 바지춤을 추켜올렸다.

"이번에 배다리도서관에 별동 독서당이 새로 생겼다는데, 거기도 들러보셔요."

새댁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오야, 새댁 고마우이."

‘마을, 이야기가 되다’를 시작하면서

— 한명문

‘딩동’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는 알람 소리가 났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배다리도서관, 수필 쓰기, 동화 쓰기……’ 등등의 글귀들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머릿속으로 글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꽤 신중한 편이었지만 ‘선착순 15명’이라는 말에 조금 조바심이 났다. 일단 신청을 하고 생각은 나중에 해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통화 버튼을 눌렀고 다행히 여덟 번째로 접수가 되었다. 일어나자마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제주도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내 삶이 정체된 것 같은 느낌 때문인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작은 일탈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여행을 온 지 막 하루가 지난날이었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조금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비는 내가 필요할 때만 적절히 내려 상쾌함을 주었다. 제주도 푸른 바다는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었고 이번 일탈은 꽤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었다. 그때 마침 울려 준 반가운 소리, 딩동. 왠지 오랜 교통체증으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한 채

멍하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불로 신호등이 변하고 이제는 움직이자는 시그널이 온 듯 나의 인생에 조금의 변화를 예고하는 소리였다. 너무 거창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렇게 작은 변화라도 지금의 나에게는 꽤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글쓰기는 내가 오랫동안 해야 한다고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이 아닌가.

어릴 때부터 나는 그저 이야기를 잘 듣는 아이였다. 몸이 허약했고 말주변이 없었으며 내성적이었던 나에게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친척들의 자질구레한 이야기까지 내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는 자신들의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들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인지 사람들은 이런 나를 좋아해 주었고 나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목에 걸렸고 갑갑증이라는 병이 나에게 찾아왔다. 한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꽤 심각해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원래 걸음이 느린 아이였다. 그래서 늘 병을 키우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나 나에게 관련된 일은 우선순위에서 거의 밀려나곤 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늘 너무 애를 쓰며 살아온 듯싶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지금 나는 꽤 심각할 만큼 지쳐 있다.

너무나 많은 인풋(input, 입력)들이 내 안에 포화상태가 되었고 아웃풋(output, 출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아온 모양이다. 내 안에 무엇

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갑자기 '냉장고 파먹기'가 생각이 난다. 때때로 냉장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냉장고 안은 금방 여러 음식으로 포화상태가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럴 때는 '냉장고 파먹기'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냉장고에서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안을 청소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재료들을 모아서 꽤 괜찮은 요리가 나올 때도 있다. 또 어떤 것은 분명히 싱싱한 것을 넣어 두었는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서 버려야 하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냉장고는 다시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 나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생각 파먹기' 뒤죽박죽 엉망이 된 내 머릿속을 정리하여 쓰레기는 버리고 중요한 생각들은 다시 잘 정리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마을, 이야기가 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 파먹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어쩌면 이 프로그램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찾고 내 인생에 의미마저 찾아 버릴지도 모른다. 조금은 거창하게 말씀하셨다고 민망해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나에게는 왠지 모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했다. 내 목소리를 내었고 생각을 발표했으며 심지어 손을 들기까지 했다. '이건 무모했나?' 쿵쾅쿵쾅 뛰는 심장 소리가 글벗 친구들에게까지 들릴까 봐 조마조마했다.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그런 내 용기를 기뻐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배를 탔으니 끝까지 잘해보자는 말씀을 하셨다. 한배를 탔다. 좋은 말이다. 배가 항해를 하는

동안 우리는 모두 함께할 수 있지 않은가.

함께(with) 라는 말이 왠지 더 정겹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뺏어간 시간, '함께'.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 맞서는 무모한 용기를 내었다. 나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나와 같이할 글벗 친구들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더욱이 지금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 선생님과 글벗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배가 어느 멋진 항구에 닿을 때까지 서로 힘이 되어 보자고 말하고 싶다.

지금 나의 '평택'에 대하여

— 허은주

정수리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훅 느껴지는 고소한 냄새.

집에서 어쩌다 잔칫날 느꼈던 냄새와는 통이 다른 거대한 그 냄새에는 짭조름하면서도 달큼함까지 더해져 있었다. 입에 고이는 침이 넘쳐날까 봐 목에 잔뜩 힘을 주고 냉큼 삼켰다. '내가 여기 오려고 힘들게 엄마를 따라온 거지' 생각하며 아무도 모르게 쿠욱쿠욱 웃었다.

엄마와 어쩌다 한 번씩 오는 평택 장날이었다. 어린 내가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던 어묵집. 그때는 '오뎅집'이라거나 '뎀뿌라집'이라고도 불렀다. 지금처럼 지나가다 서서 한 꼬치씩 사 먹는 어묵집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어묵을 살 수 있는 꽤 큰 어묵 공장이었다.

멀미가 남다르게 심했던 내게, 버스를 타고 평택에 나오는 일은 큰 고통을 견뎌야 하는 모험이었다. 그런데도,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멀미의 기운이 쑤욱 내려갈 만큼 매혹적인 어묵집의 향기는 자꾸만 엄마의 꽁무니를 따라가게 했다. 맛보라고 내어주시는 어묵을 먹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꼭 맞는 순간이었던

것 같다.

우리 집은 시냇가와 논밭이 있는 시골 동네에 있었다. 집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걸어 나오려면 요즘도 어른 걸음으로 꼬박 20분이 걸리는 곳이다. 어린 보폭을 기다리고 챙겨가며 버스를 타고 평택 시장까지 가는 길은 엄마께는 쉬운 외출이 아니었을 것 같다. 버스를 타기 전에 조그맣게 열리는 동네 시장도 있었다. 그곳에서 못사는 물건을 살 때만 평택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눈치 빠른 막내딸이 대롱거리니 얼마나 귀찮았을까 싶다.

그날도 갓 튀겨나온 어묵을 달게 얻어먹고 바리바리 장본 짐을 고사리손에 나눠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장에서 사 온 어묵의 두 배가 넘는 양파와 당근을 잔뜩 썰어 넣고 어묵볶음을 해주셨다. 달걀보다 채소가 더 많은 달걀찜을 하던 우리 엄마는 8남매에 딱 적합한 엄마로 거듭나고 있었던 듯싶다.

버스정류장 언저리에 있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어묵집을 목표로 자주 평택 장엘 따라다녔다. 초등학교 근처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버스를 타야 하는 여고에 입학하면서 어묵집이 있는 평택에 매일 가게 되었다.

1학년 한 학기를 마치기 전부터 멀미를 하지 않았다. 여름방학 직전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부터였다. 아빠의 죽음과 엄마의 위태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여름방학이 끝났다. 다시 돌아간 평택은 어묵의 행복 같은 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멀미를 하지 않았지만 늘 멀미하는 느낌이었다. 어른들 표현으로 산송장 같던 시절이었고 여고 3년은 꽤 길고 길었다. 대학진학, 직장생활을 이어가면서 집을 떠나 서울과 일산에서 지냈다. 평택은 조금씩 더 멀어졌다.

운명이었을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혼했고 친정집 근처에 살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같은 생활권인 평택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아이들을 낳고 함께 키워준 산부인과와 단골 소아과도 평택에 있다.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온 자식을 반기듯 잘 정돈되어 아늑해진 평택은, 우리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부쩍 키워주었다.

무엇보다 기뻤던 일은 반짝이는 호수공원을 눈부시게 두른 도서관이 생긴 일이다. 어묵의 행복을 삼켜버린 먹구름 속에서 주뼛거렸던 내게, 평택은 시시각각 새로운 색깔의 빛으로 자꾸만 다가와 준다. 아이들과 함께 햇살 좋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며 백발이 고운 친정엄마와 구수한 옛이야기도 나눈다.

배다리도서관은 내게 어묵보다도 더 진한 맛을 선물하는 곳이다. 가만히 앉아서 책 속의 온갖 세상을 여행할 수 있고, 부엌에 서 있던 나를 강의실에도 앉혀줬다. 이곳에서 오성면 어르신들의 옛이야기와 아빠의 짧은 삶이 닮아있음을 느꼈고, 나의 삶도 돌아볼 수 있었다. 함께 모여 글을 쓰고 격려하는 작가님과 글벗들도 생겼다. 덕분에 평택의 모든 순간이, 햇살 아래 호수처럼 빛이 난다.

정수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소름 돋게 신나는 '글쓰기' 공부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글벗들의 이야기보따리를 기대하며, 나는 오늘도 어묵집 문 앞에 선 듯 마구 설렌다.

나에게 평택은

— 박경화

평택으로 이사 오던 날은 하얀 눈이 바람과 함께 거세게 몰아치던 날이었다. 급히 분양권만 사서 내려온 새 아파트는 각 세대가 다 차지 않아 난방을 아무리 돌려도 쉬이 따뜻해지지 않았고 추위에 떨며 열심히 가족의 짐으로 공간을 채워나가도 새집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꾸만 밀려오는 낯선 느낌으로 전혀 즐겁지 않았다.

남의 집에 잘못 들어와 있는 느낌.

"우리 집으로 가고 싶다"

무심코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지만 난 진심이었다.

우리 집. 따뜻하고 포근하던 우리 집. 결혼하고 5년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사야 할 것도 많은데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운전도 못 하던 나는 주변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남편이 쉬는 주말만 기다렸다.

우울했다. 택배로 시킨 큰아이의 실내화를 반품 보내야 할 때도 우울했고.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 먼 곳까지 유모차를 끌고 매일 20분

씩 달리기를 해야 해서도 우울했고, 이런 마음을 하소연할 친구가 곁에 없어서 더 우울했다. 그때의 나는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경한 하루라는 시간에 억지로 끼워져 눈 뜨면 시작되는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고되고 춥기만 하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마트와 문구사, 예쁜 카페와 생활에 필요한 곳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단지 내 어린이집이 생겨서 아침마다 억지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해졌다. 타고난 오지랖을 발휘하여 속마음을 나눌 친구도 만들었고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더 넓은 곳의 평택에 대해 눈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봄과 함께 내 안에는 새로운 기대와 반가움의 꽃이 하나씩 하나씩 피어나고 있었다.

이곳 평택은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 안에 신도시의 세련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신식 아파트단지 옆으로 포도밭이 펼쳐지는가 하면 이내 최신 인테리어 옷을 입고 우뚝 서 있는 멋진 카페가 나온다. 그리고 '아 저기 한번 가 봐야지.'라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텃밭을 일구는 할아버지의 땀 흘리는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곳. 난 이런 평택이 좋다.

그리고 평택의 그 어디보다도 배다리도서관과 명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근사한 호수풍경을 담고 있는 배다리공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시사철 피어나는 꽃들과 나무들 사이로 다양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이른 새벽의 짙은 풀 냄새와 한낮의 선명하게 빛나는 호수 물결, 늦

은 밤의 영롱함까지 한 시도 놓치고 싶지 않은 자연의 생기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배다리공원은 매일 발길을 놓아도 질리지 않았다. 5년째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이곳.

올해 5월 산책길에 산딸나무를 보았다. 산딸나무는 아래에 서서 올려다보면 잎사귀에 가려 꽃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시야를 높게 두면 초록 잎사귀를 받침 삼아 피어난 순백색 꽃의 행렬을 찾아낼 수 있다. 처음 접하는 곳에 대한 생경함과 불편함에 매몰되어 주위를 세심하게 둘러보지 않으면 가까이 숨어 있는 매력은 절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 평택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바라보아야 찾을 수 있는 '산딸나무의 꽃'과 같은 곳이다.

동화: 창작이야기

누가 누가 잘하나

— 고인정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걷노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 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정인이는 삼촌과 바닷가를 산책하며 〈바닷가에서〉라는 동요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정인이는 삼촌과 함께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넘실거리는 파도와 끼룩끼룩 노래하는 갈매기의 모습이 상상되면서 마치 바닷가를 걷고 있는 느낌이다.

정인이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만 수줍음이 많아서 남들 앞에서 혼자 노래하는 것은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바닷가를 산책할 때, 혼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항상 흥얼흥얼하다가도 사람들이 보이면 슬그머니 노래를 멈추곤 했다.

집 앞에서 빨간 망토를 입은 미연이와 미연이 언니를 만났다. 미연이는 옆집에 사는 정인이와 같은 반 친구이고 성격도 활발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이다.

"어, 정인이 이제 오는구나. 목소리 참 예쁘네. 노래 잘하는데. 우리 미연이랑 합창단 같이하면 좋겠네.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미연이 언니가 정인이에게 밝은 미소로 칭찬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정인이는 미연이의 빨간 망토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미연아, 빨간 망토 참 예쁘다. 웬 망토니?"

"응, 이 망토! 우리 합창단 단복이야. 오늘 합창대회가 있어서 언니랑 다녀오는 길이거든."

미연이는 뽐내 듯 어깨를 치켜 올리며 대답했다. 미연이는 최근에 K 방송국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 되었다. 정인이는 언니 친구가 방송국에 다닌다고 자랑하던 미연이의 말이 생각이 났다.

'언니 친구 덕분에 미연이가 합창단원이 되었나 보네.'

정인이는 미연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인이도 빨간 망토를 입고 어린이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혼자 부르는 건 자신이 없지만, 함께 노래하는 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합창단 단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정인이가 미연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응, 오디션 보면 되지만 이미 끝났을걸?"

미연이는 정인이의 마음도 모르고 매정하게 대답했다.

정인이는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친절한 언니가 있는 미연이가 너무 부러웠다. 더구나 빨간 망토를 입은 미연이의 모습은 더욱 더 자신만만해 보였다.

며칠 후, 정인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 앞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발견했다.

'누가 누가 잘하나' 경연대회

*대상: 노래를 좋아하는 4, 5, 6학년

*곡목: 자유곡

*방법: 독창, 이중창

*특전: 입상자는 KOO방송국 어린이합창단 입단 자격이 부여됨

정인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중창…… 와~, 드디어 기회가 왔다!'

정인이에게 방송국 어린이합창단 단원이 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정인이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신이 나서 미연이 집으로 달려갔다.

"미연아, '누가 누가 잘하나'에 나가자."

미연이도 이미 문방구 앞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본 모양이다.

"너 혼자 나가지 그러니? 난 이미 합창단 단원이어서 나갈 필요가 없는데?"

미연이는 관심 없다는 듯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미연아, 부탁이야. 이중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함께 나가자. 나 혼자는 떨려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 부탁할게. 네가 좀 도와줘라. 그 대신에 학교 갈 때마다 매일매일 너 데리러 올게. 제발 부탁이야."

미연이는 아침잠이 많아서 학교에 지각할 때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미연이 언니는 정인이를 볼 때마다 학교에 갈 때 꼭 미연이와 함께 가라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연필이나 수첩 같은 것도 사주곤 한다. 정인이는 미연이랑 함께 학교 가는 게 너무 싫고 힘들었지만 미연이 언니를 생각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미연아, 학교 가자!"

미연이 집 앞에서 정인이가 부르면 미연이는 그때서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옷 입고, 밥을 먹는다. 시간 내내 기다려야 한다. 미연이가 늦장 부리는 바람에 정인이도 지각해서 선생님께

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 날에는 정인이는 집에서도 야단을 맞았다. 그럴 때도 미연이는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 나 데리러 오라 했어?"

미연이는 정인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당연하게 여기곤 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인이는 다시는 미연이랑 함께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하지만 미연이와 함께 '누가 누가 잘하나'에 나가려면 어쩔 수가 없다.

미연이 언니가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옆에서 거들어 주었다.

"그래, 미연아.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정인이도 너랑 함께 합창단에 들어가면 좋잖아. 내가 도와줄게. 정인이는 목소리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 거 같던데."

"우리 미연이가 막내여서 어리광이 많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지. 정인이 네가 이해해라. 넌 부지런하고 이해심도 많고 참 착한 거 같아. 우리 미연이가 너랑 친구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미연이 언니는 항상 정인이를 칭찬하면서 학교에 가기 위해 미연이를 기다릴 때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미연이 언니가 내 친언니였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정인이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미연이 언니가 참 좋았다. 미연이는 마지못해 정인이와 함께 이중창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래, 무슨 곡으로 할지 생각한 노래는 있니?"

미연이 언니가 정인에게 눈을 찡긋거리며 물었다.

"여름이니까 시원한 바다를 생각하며 '바닷가에서'를 부르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평소에 자주 부르는 '바닷가에서'라는 동요를 정인이가 추천했지만 미연이 언니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는지 듣자마자 바로

말했다.

"안돼. 그 노래는 혼자 독창으로 부르면 모를까. 이중창으로 부르기엔 적당한 거 같지 않구나. 곡이 너무 느리기도 하고. 약간 경쾌하면서 둘이 함께 부르면 좋은 곡을 골라보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그때 미연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구 밖 과수원 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하이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긋. 아카시아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 길~."

"와! 좋다. 바로 그거야. 그 노래가 좋겠네. 노래를 부를 땐 감정을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 둘이서 감정을 넣어서 한번 불러봐라."

정인이와 미연이는 아카시아 꽃잎이 흩날리는 과수원 길을 걷는 것을 상상하며 노래에 감정을 넣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불렀다.

"그래. 그렇지. 잘한다. '얼굴 마주 보며 생긋~' 부분에선 미연이랑 정인이랑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살짝 웃어 주고."

미연이 언니도 신이 나서 열심히 노래 부르는 걸 지도해 주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정인이가 '과~ 수~ 원~ 길~'하고 반복해서 불러보자. 그러면 훨씬 마무리가 깔끔할 거 같다."

미연이 언니는 정인이의 목소리가 예쁘다며 자신감을 갖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정인이는 '과~ 수~ 원~ 길~' 한 마디를 혼자 불러야 하는 게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나중에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미연에게 부르라고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과~ 수~ 원 ~ 길~'을 반복해서 연습했다. 그날부터 정인이가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는 '과수원길'이 되었다.

정인이는 아침마다 미연이 집에 들러서 미연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야

하는 게 귀찮았지만 빨간 망토를 입고 어깨를 들썩이며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었다. 예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인이는 긴장이 되어 미연이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다.

"미연아, 너 배신하면 안 된다. 네가 없으면 나 혼잔 절대 노래 못하니까. 절대!"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미연이와 미연이 언니는 노래 연습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긴 미연이는 이미 합창단에 들어간 상태이고 정인이 혼자만 조바심이 나는 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정인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더 일찍 일어나서 미연이 집 앞에서 미연이가 학교 갈 준비 하는 걸 기다렸다. 학교 마치면 바로 미연이 집으로 달려가서 노래 연습을 하고 싶었지만 친구가 많은 미연이는 벌써 놀러 나가서 집에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미연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노래 연습을 하곤 했다. 미연이를 기다리는 게 정인이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정인이는 '독창으로 부르면 혼자만 열심히 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혼자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건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고, 함께 불러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미연이가 함께 도와주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다.

드디어 방송국 예선이 있는 날이다. K방송국에는 이미 많은 출전자가 와 있었다.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다. 머리에 큰 리본을 단 아이, 예쁜 세라복을 입은 아이, 빨간 구두를 신은 아이, 간혹 나비 타이를 한 남자아이도 눈에 띄고, 엄마와 함께 온 아이도 있었다. 한쪽에서 '아 아 아 아 아~' 하며 발성 연습을 하는 아이도 있고, 듀엣을 준비한 아이들은 체크무늬 치마를 맞춰 입은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정인이와 미연이는

흰색 상의를 맞춰 입기로 했는데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옷이 뭔 대수야. 노래만 잘하면 되지.'

'혹시 미연이가 흰색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어쩌지.'

'미연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쩌지.'

'미연이가 친구랑 놀다가 늦게 오면 어쩌지.'

정인이는 잔뜩 주눅이 든 모습으로 바짝바짝 마르는 입술을 적시며 미연이를 기다렸다. 미연이는 방송국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며 먼저 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질 않는다.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수십 번을 중얼거리며 가사가 틀리지 않을까, 혹시 음 이탈하지 않을까, 박자가 틀리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빨리 미연이가 와야 조금이라도 더 맞춰 볼 텐데.'

정인이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미연이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손톱을 물어뜯는 건 정인이가 긴장되거나 초조할 때 하는 행동이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발은 저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 봐 물도 마시지 못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별별 생각들이 정인이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인이의 열 개의 손톱이 다 뜯겼을 무렵 미연이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다행히 미연이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정인아, 내 친구가 그러는데 오늘 심사위원이 우리 합창단 지휘자님이래, 예선 치루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합창단 단원은 출전할 필요 없다면서 다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너 혼자 불러야겠다. 괜히 내가 지휘자 선생님께 찍힐 필요는 없지."

미연이는 정인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떠들었다.

"무슨 말이야 그럼 난 어떡해. 나 혼잔 절대 못 해."

정인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지원자들이 너무 많은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너 혼자라도 해. 우리 언니가 너 노래 잘한다고 했잖아. 나는 집에 간다."

미연이는 의리 없이 혼자서 집으로 가버렸다.

'이럴 수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정인이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더 이상 물어뜯을 손톱도 남아있지 않았다. 정인이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 보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평소 즐겨 부르던 〈바닷가에서〉를 선택할 걸.'

미연이 언니 말만 듣고 곡목을 정한 것도 후회되고, 혼자 부를 수 있도록 연습하지 못한 것도, 미연이를 의리 있는 친한 친구라 믿은 것도, 미연이 언니가 친언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모두 다 후회가 되었다.

예선을 치르기 위해 오는 아이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 아이들 틈에서 정인이는 점점 더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축 처진 어깨에 담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다. 항상 흥얼거리던 노랫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정인이 집에선 할아버지 산소에 벌초를 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정인이네는 할아버지 산소에 벌초를 갈 때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간다. 햇볕은 뜨겁지만 그늘에는 제법 선

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할아버지 산소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를 산발한 모습으로 뒤죽박죽 꼬여버린 정인이의 속마음처럼 보였다. 아빠와 삼촌이 땀을 뻘뻘 흘리며 벌초를 하는 동안 정인이는 산소 주변을 돌며 애꿎은 풀을 뽑고 돌멩이를 던지며 화풀이를 하였다.

벌초를 다 마친 후에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준비해 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말끔하게 정리된 할아버지 무덤을 보니 정인이의 마음도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정인아, 우리 노래 부를까?"

구슬땀을 닦으시던 삼촌이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뭇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 준대요."

정인이도 삼촌과 함께 시원한 바람이 아빠의 이마를 식혀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와, 우리 정인이가 노래를 참 잘 부르는구나. 노래를 들으니 벌써 땀이 다 식었네."

아빠의 칭찬을 들으니 정인이도 기분이 좋아졌다.

"정말 시원해지는구나. 우리 정인이 나중에 가수 해도 좋겠네. 이번에 우리 모두 함께 불러볼까?"

온 가족이 함께 〈과수원길〉을 불렀다.

"과~ 수~ 원~ 길~."

마지막 부분에선 정인이가 혼자 마무리까지 하였다.

온 가족이 즐거워하며 크게 손뼉을 쳤다. 정인이의 마음은 가족들과 함께 아카시아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1급 부탁

— 권오휘

"뭐?"

놀라서 되물은 말에 지수는 아까와 똑같은 말을 했다.

"제~발, 혜지야 나 좀 도와줘. 나 이번 시험도 망치면 엄마한테 죽어."

커닝이라니, 어떤 쪽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한 부탁이다. 너희 엄마만 무섭니?

"그치만……."

나는 슬쩍 눈을 들어 지수의 눈을 보았다. 와, 큰일 났다. 지수의 부탁은 부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1급 부탁이었다. 1급 부탁을 받을 때 나는 상대방의 눈빛을 보고 대답을 결정하곤 했는데, 지금 지수의 눈빛은 매우 위험했다. 꼭 아빠처럼 숨이 턱 막히는 눈빛이었다.

"알겠어. 딱 이번 한 번……."

"진~짜 고마워. 역시 혜지는 천사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뒀거든."

지수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를 와락 안더니 자신의 계획을 주욱 늘어놓았다. 완벽하다던 지수의 계획은 그냥 흔해 빠진 커닝 방법이었다. 지수는 일주일 후에 있을 쪽지 시험에서 육각 연필에 답을 써서

자신에게 넘겨달라 했다. 지수는 어차피 쪽지 시험이라 담임선생님도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을 거라며 나를 안심시켰지만,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하루가 지나갔다. 학교를 나와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같은 반 우주였다. 하드록을 좋아한다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나. 할 말을 다 하는 성격이라 원래도 알게 모르게 피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남다른 취미가 밝혀지자마자 아이들은 우주를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 했는데 우주가 또다시 내 앞을 막았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좀 비켜줄래?"

"그거 하지 마, 커닝."

들었구나. 심장이 쿵 쿵 쿵 쿵 쿵 쿵쿵쿵쿵 하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게 퍼지지 않는 거였다.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마."

내 말을 들은 우주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깜박이더니 대답했다.

"다른 애들이나 선생님한테 말할 생각은 없어. 근데 너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그럼 하지 마."

당연하지. 그치만 그게 쉽니? 말이 쉽지.

"도와줄 거 아니면 끼어들지 마."

내 말에 우주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집으로 향했고, 우주도 이번에는 순순히 지나가게 해주었다. 꺾인 길로 돌아가려는데 멀리서 우주의 외침이 들렸다.

"내가 도와줄 게~~안 하는 거다~~~."

똑똑.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지수였다.

"어제 잠은 잘 잤어?"

지수는 나와는 달리 아주 푹 잠을 잤는지 상쾌한 얼굴이었다.

"응, 뭐 그렇지."

그랬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대충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돌았지만 정작 입에서는 아주 점잖은 대답이 나왔다. 긴장한 몸이 침을 꼴딱 삼켰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지수와 내 얼굴 사이로 작은 만화책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우주였다.

"혜지야, 나랑 이거 같이 보자. 너도 이거 좋아한다며."

지수는 이게 뭐냐는 눈빛으로 날 쳐다봤지만 나도 딱히 대답해줄 말은 없었다. 결국 지수는 우주를 한번 째려보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지수가 자리로 돌아가자 우주도 나를 보고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도 우주는 비슷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나와 지수가 함께 있는 것을 방해했다. 우주는 늘 피규어, 만화책, 무서운 사람이 그려진 앨범 등 나는 조금도 관심이 가지 않는 특이한 것들을 가지고 말을 걸었다. 그럼 난 그 애가 그걸 다시 갖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기 바빴다. 모든 것이 제자리걸음인 채로 그렇게 그날이 왔다.

아침을 먹으면 체할 것 같아 아침도 걸렀다. 오만 생각을 하며 학교에 왔는데 하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지수였다. 지수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교실 앞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혜지야, 기억하지? 육각 연필. 오늘이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가서 앉았다. 멀리서는 우주가, 가까이에서는 지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속에서 뭔가 웩하고 나올 것 같아 고개를 책상에 푹 파묻었다.

마침내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아침 인사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라리 지금 걸리는 게 나을까. 커닝을 도우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커닝을 진짜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선생님의 독심술이 이번에야말로 날 도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선생님이 독심술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았다.

"사랑하는 우리 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용없었다. 선생님의 독심술은 역시 다 거짓말인 게 분명했다. 내 마음도 모르고 우리 반과 선생님은 아주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다.

"음, 잠깐만요."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시려다 말고 내 쪽으로 걸어오셨다.

궁. 궁. 궁.

선생님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역시, 선생님의 독심술은 진짜인 게 분명했다.

"혜지야."

선생님은 내 책상을 톡톡 두드리더니 나를 부르셨다. 선생님은 진짜였어!

"네?"

내 대답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혹시 몸이 안 좋니? 얼굴이 창백해서. 시험 볼 수 있겠어?"

아아. 아아아! 아아아!!! 그게 아니라구요!!!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 그럼 역시 시험을 따로 봐야겠다. 아버님께 전화해봐야겠네."

그건 안된다. 나는 선생님의 바지를 잡으며 도리질을 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한번 오므리시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교실 앞쪽으로 가셨다.

"시험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앞의 아이들에게 시험지를 나누어주자 아이들이 착착 뒤로 시험지를 넘겼다. 시험지를 넘긴 아이들은 몸을 숙여 재빨리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마지막 10번까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20분만에 다 풀었다. 그럼 이제 시험보다 어려운 일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필통에서 육각 연필과 네임펜을 꺼내 'ㄱ', 이렇게 여기부터 1번임을 알리는 시작점을 표시했다. 7번부터 10번은 어차피 주관식이라서 포기하고 1번부터 6번까지만 답을 적기로 했었다. 나는 1번부터 차례대로 답을 썼다. 지수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나를 보고 지수도 행동을 시작했는지 똑 하고 연필심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끝내야지. 그냥 빨리 끝낼 거야. 그럼 돼. 내가 답을 다 쓰자 지수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 연필이 부러져서 그러는데 친구 연필 좀 빌려도 돼요?"

"그러렴."

내가 연필을 손에 집는 순간, 우주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제 거 빌려주고 싶어요. 저 오늘 연필 되게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럴래? 우리 우주는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평소에 우주가 반 친구들 사이에서 겉도는 것을 알던 선생님은 우주의 적극적인 요구를 흔쾌히 수락하셨다. 우주의 노란 연필은 전혀 기쁘지 않은 표정의 지수에게 건네졌다.

5분 후 지수는 다시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 연필 또 부러졌어요."

"오늘따라 지수가 손힘이 좋네. 흠, 또 빌려줄 친구 있나요?"

나를 포함한 서너 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그때 지수가 또 재빨리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 혜지 거 빌릴래요. 저 요새 혜지랑 친해졌거든요?"

오, 거짓말. 대박. 친하지도 않은 나에게 1급 부탁을 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참 염치없는 애다. 내가 거절을 못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

"그럴래? 그럼 그러렴."

선생님의 승낙에 내가 커닝용 육각 연필을 집으려는 순간, 우주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근데 이상한데요? 제 거 연필 오늘 깎아온 새 거예요. 일부러 부러지지 말라고 제일 튼튼한 연필을 골라 줬어요. 구린 속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커닝이라든지."

"뭐래! 내 마음이 구리긴 뭐가 구려! 너도 뭐 선생님처럼 독심술사냐? 지가 개 구린 거 줘놓고 생색은!"

지수가 발끈하며 우주의 노란 연필을 흔들었다. 누가 봐도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흠집 없이 길쭉한 새 연필이었다. 소리 지르기, 독심술사, 저속한 접두사 개까지. 지수의 삼연타에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

셨다.

"조용. 우주, 친구 함부로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에게 소리를 질러서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 그리고 덧붙여서 지수가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지수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아주 조그맣게 사과를 했지만, 선생님은 지수 쪽은 보지도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혜지, 지수에게 빌려줄 연필 가져오세요. 지수에게는 확인 후에 연필을 빌려줄게요."

나는 얼른 커닝용 육각 연필 말고 다른 연필을 선생님께 건네드렸다. 선생님은 이리저리 연필을 살피더니 연필을 혜지에게 건네주셨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로 내 연필을 받아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 쳤다. 결국 지수는 다시 손을 들지 못한 채 시험지를 냈다.

그렇게 폭풍 같은 1교시가 지났다. 2교시에서 4교시 동안 지수는 나에게 할 말이 아주 많은 듯 째려보았다. 다행히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 내내 교실에 계셔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는 듯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지수는 나에게로 달려왔다.

"너, 따라와."

나는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지수를 따라갔다. 지수는 나에게 커닝 부탁을 했던 학교 뒤뜰로 데려가더니 가까이 다가와 나만 들리게 작게 소리를 질렀다.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뭘……."

내 대답이 기가 차는지 지수는 허공을 보고 허 허 거리더니 또 가까이 다가왔다.

"신우주가 그렇게 하면 너라도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만 바보 됐잖아! 너 나 도와주고 싶은 거 아니었어?"

응 아니었어.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역시 마음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음, 뭐……."

내가 대답을 얼버무리자 또 한바탕 퍼부으려는 듯 지수가 가까이 다가왔다. 눈을 질끈 감았는데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언제 왔는지 우주가 나와 지수 사이를 막고 서 있었다.

"그만해. 한 번도 얘가 좋다고 한 적 없잖아."

"이거 뭐야. 야 이혜지, 너 이 오덕이랑 친구 먹고 나 배신한 거였냐? 이제야 이해가 되네."

지수가 우주 옆으로 얼굴을 내밀고 말했다.

"아니야, 그런 거."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말며 대답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수의 말을 들으니 자꾸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야, 너 왜 이렇게 잘못한 사람처럼 굴어. 쟤가 잘못했잖아. 너 그거 하고 싶었어?"

"니가 뭘 알아, 이혜지가 하고 싶었는지 아닌지. 쟤가 나한테 한다고 했는데? 싫었으면 거절했겠지. 모르면 좀 빠져."

"그날 다 들었어. 혜지가 하고 싶다고 했던 적 한 번도 없더만."

"야, 적당히 해라. 이혜지, 너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한 거야? 그럼 왜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수와 우주의 말이 계속 내 귀에서 크게 웅웅거렸다. 이후에도 뭐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았는데 머리만 아프고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아, 다 짜증 난다.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만 머리에 맴돌았다.

"그만. 그만! 그만!!!"

말소리가 모두 멈췄다.

"김지수! 야, 니가 우리 아빠 같은 눈빛으로 부탁했잖아.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부탁해놓고 내가 싫었으면 거절하지 왜 그랬냐고? 그리고 너, 신우주 너도 그만해! 나도 안 하고 싶었다고 말했잖아!"

오랫동안 마음에서만 아우성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적이 드물었던 내 목소리는 목구멍이 말라 살끼리 서로 쩍쩍 달라붙어 아주 괴상했다. 아주 얇고 높고, 갈라지고, 꼭 칠판을 긁는 듯한 큰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꽤 긴 시간 동안 학교 뒤뜰에서는 내 헐떡이는 숨소리만 들렸다. 지수는 한참을 멍하니 나를 보더니 그냥 돌아갔다. 우주는 내 옆에 벤치에 앉았다. 나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몰아붙여서 미안."

내가 대답이 없자 우주는 다시 하늘을 쳐다봤다. 나도 같이 하늘을 봤다. 땀이 송골송골 난 머리 위로 바람이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그래도 시원하다."

내 말에 우주가 나를 보고 씩 웃었다.

배추흰나비의 선물

— 김경아

"준영아 일어나! 늦었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분명 나비가 내 발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꿈이었나 보다.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고 급하다.

우리 가족은 지난 겨울방학 때 외할머니가 사는 이곳으로 이사 왔다. 아파트 정문에서 상가 건물만 지나면 바로 학교 울타리와 연결되던 이전 초등학교와 달리 지금 사는 집은 학교까지 걸어가려면 20분이 걸린다.

이사를 오면서 아빠는 새 직장을 구했다. 이번에 일하는 곳은 예전과 다르게 저녁을 먹고 출근하고 아침이 되면 집으로 온다. 아빠의 퇴근 시간이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아빠가 30분이나 늦은 것이었다. 더구나 학교까지 나를 태워다 주는 아빠의 자전거 수리가 덜 되어서 탈 수 없다. 오늘은 꼼짝없이 지각이다.

나는 일어나 주섬주섬 침대 옆 바닥에 구겨져 있던 옷을 입었다.

닫힌 안방 문을 힐끗 쳐다본 아빠는 내가 입은 옷을 보고 물었다.

"준영아, 어젯밤에 또 코피 났어?"

아빠는 세탁 바구니에서 휘휘 빨래 더미를 헤쳤다. 아빠의 손에 들린 옷은 어제 학교에서 봄 꾸미기를 하면서 노랑색 파스텔이 묻은 옷이다.

"어서 갈아입어! 늦겠다."

머뭇거리는 나에게 아빠가 재촉하며 말했다. 다행히 티셔츠를 바지 안으로 바싹 당겨 넣어 입었더니 파스텔 자국이 가려졌다. 학교 가기 위한 준비로 아빠와 내가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만, 안방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아직 5월인데 걷고 있으려니 덥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서 길가에 핀 풀들은 아무 움직임이 없다. 긴 바지가 다리에 감기고, 발바닥은 점점 뜨거워진다. 머리에서 송글송글 땀이 나는 것 같다.

그때 하얀색 나비 같은 것이 풀 속에서 보였다. 배추흰나비였다.

참 이상하다. 어젯밤 꿈에선 배추흰나비가 내 몸 여기저기에 스티커처럼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풀밭에 얌전히 붙어 있다. 꿈속 그 나비가 나를 쫓아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형과 함께 잠자리채로 나비를 잡는다고 아파트 놀이터며 화단이며 막 뛰어다녔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풀들이 금세 지겨웠는지 배추흰나비가 포르르 날개를 접었다 피면서 날아갔다.

"준영아, 전학 간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아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에게 묻는다.

"뭐, 그럭저럭."

나는 실내화 가방을 무릎으로 툭툭 번갈아 차면서 대답했다. 전학

온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랑 붙어서 노는 것이 어렵다. 짝도 없는 자리로 떨어져서 앉기 때문에 그다지 친구를 많이 사귀진 못했다. 그리고 오늘처럼 지각하는 날은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눈치가 보여서 아이들에게 말 걸기가 어려웠다.

아빠는 편의점 앞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나를 데려다준다. 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아빠는 다시 뒤돌아섰다. 밤새워 일하고 오자마자 나를 데려다준다고 아침을 못 먹어서인지 아빠의 등이 오늘따라 더 굽어 보인다.

나는 아빠에게 손을 흔든 후 편의점 벽에 붙은 1+1 광고 상품을 훑어보았다. 유리문에 이마를 붙인 채 편의점 주인이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도 봤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그런 나를 한참 쳐다보길래 얼른 얼굴을 떼고선 괜히 학교 울타리에 올망졸망 피어있는 장미 꽃망울들을 손으로 툭툭 쳤다.

학교 정문이 보이지만, 주변에 다른 아이들은 없다. 정문을 지키는 교통 봉사 도우미 할머니도 보이지 않는다. 터벅터벅 학교로 들어가는 내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각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교실 앞문을 열고 나 혼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침에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곧바로 선생님에게 가서 체온을 재야 한다. 내가 교실 앞문을 열면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나를 쳐다볼 것이다. 내가 체온을 재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50개의 눈동자가 나만 바라볼 거라는 생각을 하면 벌써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나는 학교 건물 1층에 있는 실내 정원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실내 정원은 1층 중앙 현관에 있는데 크기는 교실 반 크기보다 작지

만, 여러 가지 야생화들이랑 풀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다. 정원 주변으로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어서 인기 있는 장소지만, 이미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인지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실내 정원을 보면서 어깨를 한껏 들어 올렸다 내리며 후 하고 숨을 내뱉었다. 그렇게 몇 번을 후후 하고 있는데, 고개 숙인 할미꽃 꽃잎에 배추흰나비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살금살금 걸어가 팔을 뻗었다.

"앗 깜짝이야! 야! 너 뭐야?"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지?'

나는 너무 놀라 뻗은 팔을 휘젓다 그만 풀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야, 너 내 말이 들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보다 조금 차분해진 목소리였다. 나는 가만히 주저앉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너, 너…… 너. 나…… 나비가 말을 할 줄 알아?"

내가 묻는 말에 나비가 마치 그렇다는 듯이 날개를 접었다 폈다 두 번 반복했다.

"니가 혹시 준영이니?"

나비가 내 이름을 말하고 있다.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입을 벌린 채 못 다물고 있었다. 나비는 우리 형의 부탁으로 나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우리 형을 알아? 어떻게 알아?"

"우…… 우리 형 봤어?"

"언제? 어디서 봤어?"

나는 다급한 마음에 연거푸 나비에게 물었다.

"워, 워, 워. 진정해. 난 너희 형을 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좀 지켜봤거든. 너 지각도 자주 하고 또 아빠랑만 학교에 오더라?"

나비는 내 질문에 대답한 후 냉큼 나의 약점에 대해 물었다.

"그…… 그게, 그렇게 됐어."

나는 풀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년 3월 예전 학교의 입학식 날에는 나도 엄마랑 손을 잡고 학교에 갔었다. 3학년이던 형은 먼저 학교에 갔고, 나와 엄마만 입학식 시간에 맞추어 함께 학교에 갔던 것이다. 외할머니가 선물한 새 가방을 메고, 엄마가 사준 아빠 양복이랑 비슷하게 생긴 외투를 입으니 가슴이 좀 떨렸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내일부터는 형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해주셨다.

그날 저녁이었다.

"이준영! 이제 유딩 아니네, 축하한다. 이제 내가 네 선배야. 하늘 같은 이 선배님 말씀 잘 들어!"

형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을 헝클어트리며 말했다. 형은 저녁 먹는 내내 자기가 나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값으로 내가 형의 심부름을 매일 3개는 해야 한다고 거들먹거렸다.

엄마와 아빠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나는 학교 공부가 끝나면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놀다가 학교 근처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들른 후 태권도 학원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형은 3학년이라서 6교시까지 공부한 후 걸어서 태권도 학원과 영어 학원에서 공부한 후 영어 학원 차를 타고

집에 왔다.

그날도 나는 급식을 먹고 방과 후 돌봄교실에 있었다. 한참 친구와 블록 쌓기를 하며 놀고 있는데, 돌봄교실 선생님께서 급히 나를 부르시곤 곧 아빠가 오실 거니까 집에 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아빠는 공장에서 입는 파란색 작업복 차림 그대로 나를 데리러 오셨다.

"준영아, 놀라지 마. 형이 교통사고가 났어."

다급하게 나를 이끌며 아빠가 말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엄마와 외할머니가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계셨다. 울고 있는 엄마의 등을 쓸어주시던 할머니는 나를 보자 뛰어왔다.

"아이고, 내 새끼. 흐흐흑…… 준영아, 형아는 좀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나를 꼭 껴안고 흐느끼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형이랑도 엄마랑도 학교에 함께 갈 수 없었다. 형의 심부름을 10개도 채우지 못했다.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

며칠을 앓아누운 후 일어난 엄마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아침에 내 옷을 입혀 주다가 갑자기 멍하니 있었다. 더 이상 나와 함께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다. 내가 집에 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잠시 나를 안아준 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다. 아무 말 없이 베란다 창문 앞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온 외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갔다 들어왔을 때 제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본 후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 오게 되었다.

외할머니는 밖으로 안 나가려는 엄마를 억지로 텃밭에 데리고 나가셨다. 가끔씩은 근처 동산에 함께 올라가 엄마에게 노래를 불러 주셨다. 아빠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빨래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엄마보다는 아빠가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아빠의 퇴근 시간에 따라 내가 지각을 하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다.

"근데 넌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나비의 물음에 나는 속이 뜨끔했다. 아빠랑 외할머니는 내가 엄마와 좀 더 자주 말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엄마에게 말을 거는 것이 힘들었다. 가끔씩 나를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준영아,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야."

나비가 말하며 내 어깨에 앉았다. 나비는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필요한 준비물을 내가 먼저 말하면 그리고,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면 엄마가 많이 좋아할 거라고 가만히 속삭였다.

"정말?"

고개를 숙인 채 묻는 내 말에 나비는 형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건강하게, 용기 있고 당당하게 학교 잘 다니라는 말을 전해달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늘 마음으로 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비는 마치 나를 안아주는 듯 내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드니, 나비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일어났다. 이젠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았다. 어쩌면 오늘은 부끄

러워하지 않고 교실 앞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멀지만 혼자서 학교 오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진다.

'나도 매일 마음으로 형을 볼게.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할게. 사랑해, 형.'

멋진 어른이 뭐예요?

— 김예주

"자, 여러분."

드디어 종례 시간. 담임선생님이 알림장에 옮겨적은 오늘의 숙제를 다시 읊어주셨다.

"……그리고 내일까지 존경하는 인물 세 명의 이름과 그 이유를 써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김없이 들려오는 지호의 커다란 목소리.

"쌤~ 존경하는 인물이 뭐예요?"

"음, 여러분이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빛내고 있는 멋진 어른들을 찾아보세요."

선생님의 대답이 끝나자 늘 그렇듯 우렁찬 인사 소리를 뒤로 하고 모두 교실 밖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갔다.

정문에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집으로 향하는 길. 오늘의 숙제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이번 주부터는 침대에 누워서 놀기 전에 숙제를 먼저 끝내기로 아빠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빛내는 멋진 어른……. 그런데 멋진 어른이 뭘까? 아빠처럼

키가 큰 어른? 할머니처럼 당당한 어른?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한다고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지.

마침 눈앞에 반가운 복슬이 아저씨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다. 복슬이 아저씨는 항상 수염을 복슬복슬하게 기르시는 멋쟁이 미화원 아저씨다. 아저씨는 내가 나비를 좋아하는 걸 아시고 가끔 길에서 찍은 나비 사진을 모아뒀다가 보여주신다. 하지만 요즘은 통 나비가 안 보여서 아저씨의 나비 사진도 뜸해지고 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내 말에 아저씨가 평소처럼 손을 들어 인사해주셨다.

"아저씨,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저씨는 멋진 어른이에요?"

"멋진 어른? 하하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왜?"

"숙제 때문에 멋진 어른을 찾아야 해요. 세 명이나요. 근데 멋진 어른이 어떤 거예요?"

아저씨는 바쁘게 손을 움직여 쓰레기를 주워 담으면서도 머리가 생각으로 가득 차는 표정을 지으셨다. 하얀 김이 냄비 뚜껑 안에 가득 피어오르는 것처럼.

"멋진 어른이라, 길에서 쓰레기 주워가는 어른이 멋진 어른인가? 허허,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해림이가 열심히 알아내서 아저씨한테도 알려줘."

"네엡. 제가 꼭 알아내서 알려드릴게요. 내일 또 봬요!"

복슬이 아저씨한테는 씩씩하게 얘기했지만, 이 숙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집에 가는 길에 만난 편의점 언니도, 경비원 아저씨도, 분리수거장 앞에 계시던 위층 아줌마도 다들 자기는 멋진 어른이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점점 머리가 아파왔다.

심지어 멋진 어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편의점 언니는 돈을 많이 주는 어른이라고 하고, 경비원 아저씨는 착한 어른이라고 하고, 위층 아줌마는 똑똑한 어른이라고 했다. 시험 문제에서 보면 항상 답은 하난데. 왜 다들 다르게 말하는 걸까? 그러고 보면 어른들도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 카톡에서도 늘 물음표를 잔뜩 날리는 지호처럼 말이다.

집에 오자마자 가방에서 알림장만 꺼내 식탁에 앉았다. 괜히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언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요일은 중학생이 된 언니가 유일하게 일찍 오는 날이다. 언니가 사 온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니 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짐을 다 짊어진 표정이야."

"언니. 3학년 숙제는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봐봐."

알림장을 본 언니의 얼굴엔 웬일인지 작은 웃음이 생겼다.

"그러네, 어렵네. 그래서 누굴 존경하는지 고민 중이었어?"

"응. 선생님 말로는 멋진 어른을 찾으면 된대. 근데 멋진 어른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어른들 말이 다 달라."

언니가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리고 눈을 크게 떴다. 길을 걷다가 맞춤법이 틀린 안내문을 볼 때마다 짓는 표정이다. 나는 언니 덕분에 맞춤법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

"멋진 어른이라니? 그냥 멋진 사람을 찾으면 되지."

"멋진 사람?"

"응. 여기 봐봐. '존경하는 인물 세 명의 이름과 그 이유를 써오세요.' 인물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사람 인(人) 자 알지?"

"진짜? 이상하네. 선생님이 멋진 어른이라고 했는데? 지호가 존경하는 인물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멋진 어른을 찾으면 된다고 하셨어."

언니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전을 찾아줬다. 정말 어른이라는 말은 없고, 사람이라는 말만 있다.

"봐봐. 사람이라는 뜻이 맞지?"

"그러네. 근데 그럼 선생님이 틀린 말씀하신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도 틀릴 때가 있지. 아빠도 계란 프라이를 잘 하지만 가끔 노른자가 터지잖아. 네가 진짜 뜻을 찾았다고 말씀드리면 좋아하실걸?"

"우와 그러네. 멋진 사람을 찾으면 되는구나. 근데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찾아야 해?"

"음……. 해림이 네 생각은 어떤데? 멋진 사람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멋진 사람은 모르겠지만, 멋진 곤충은 알아."

내 말에 언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꿋꿋이 말을 이어나갔다.

"나비. 나비는 멋진 곤충이야. 우리는 멀리 갈 때마다 자동차나 버스를 타잖아. 그러면 지구가 오염되지. 근데 나비는 마음대로 팔랑팔랑 날아다닐 수 있어. 그리고 나비가 있으면 원래 잘 안 보이던 꽃들도 더 예뻐 보여. 우리 동네에도 나비가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 그러면 어른들도 길에서 핸드폰만 보는 대신 작은 꽃이랑 나비를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이래서 세상에는 나비가 많아져야 된다구."

그러자 진지하게 내 말을 듣던 언니가 활짝 웃으며 말해주었다.

"그럼 해림이 너는 나비 같은 사람을 찾으면 되겠다. 나비처럼 지구

에 많이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

언니는 학원에 가고, 나는 방에 들어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지구에 많이 있으면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을까?

지수는 항상 애들한테 먹을 걸 나눠준다. 먹을 거 나눠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좋을 거 같다. 또 현철이는 웃기다. 쉬는 시간에 현철이가 웃긴 말을 하면 너무 웃겨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몰래 고개 숙이고 킥킥거릴 때도 있다. 세상에 웃긴 사람들이 많으면 다들 매일매일 웃을 수 있겠지? 잘 안 웃는 채현이도 현철이가 말하면 입꼬리가 예쁘게 올라간다. 그러고 보니 채현이 같은 사람도 많아지면 좋겠다. 채현이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조용히 잘 들어준다. 그래서 채현이랑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얘기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또 있다.

바로 우리 언니다. 언니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엄청 열심히 알려준다.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 그건 엄청 가끔이다. 그리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언니가 등을 토닥여주면 괜찮아지기도 한다. 언니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서 선생님이 되면 다른 애들도 좋아할 것이다. 또 우리 담임선생님은 단원평가를 못 봐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니까…….

지구에 많이 만들어놓고 싶은 멋진 사람들을 마구 떠올리다 보니 어느새 공책 한 장을 넘겨버렸다. 아직 이모네 가족이랑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큰일이다. 멋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세 명만 써오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다 쓴 다음에 눈 감고 종이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걸린 사람들 이름을 써가야 할 것 같다. 열심히 이름을 적다가 슬슬 배가 고파질 때쯤 아빠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난 항상 아빠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달려가서 안긴다.

"아빠!"

"우리 딸~ 잘 있었어?"

아빠는 내가 공책을 들고 나온 걸 보고 놀란 표정을 했다.

"해림아, 설마 지금까지 공부한 거야? 너 자꾸 공부만 하면 언제 놀려고 그래. 숙제만 후딱 끝내고 아빠랑 놀아야지."

"공부는 아니고 숙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 재밌어요!"

"그으래? 어떤 숙젠데?"

아빠한테 자랑스럽게 공책을 펼쳐 보여줬다. 벌써 거의 두 장하고도 반을 다 채워간다.

"멋진 사람 숙제요.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이렇게나 많이 쓴 거야? 해림이 혼자?"

아빠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네. 아까 언니도 조금 도와줬어요. 존경하는 인물 써가는 건데, 아빠랑 할머니도 맨 앞 장에 썼어요."

"와, 정말? 그럼 아빠는 해림이가 존경하는 사람인 거네? 이거 완전 영광인데?"

이제 아빠는 날 번쩍 들어서 거실 소파에 내려놓았다. 아빠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크게 들렸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세 명만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멋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딱 세 명만 뽑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선생님한테는 세 명 이름만 써서 내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해림이가 직접 말해주는 거야."

"내가 직접 말해줘요?"

"그래. 해림이는 아빠를 왜 존경해?"

"왜냐면 아빠는 계란 프라이를 잘하잖아요. 김치찌개도 잘 끓이고. 비빔밥도 맛있고. 아빠같이 맛있는 걸 잘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으면 엄청 좋을 거예요."

아빠가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웃었다. 아빠 웃음소리 때문에 부엌에 있는 냉장고가 덜컹덜컹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해림아, 아빠도 해림이를 존경해. 해림이는 항상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잖아. 해림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해질 거야."

아빠 말을 들으니까 나도 몸속에서 행복한 느낌이 몽글몽글 생겨났다. 작은 나비가 폴폴 날아다니면서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왠지 손가락이 간지럽고 자꾸 웃음이 나왔다.

"아빠, 나도 사람들한테 멋진 사람이라고 많이 말해줘야겠어요. 아빠가 나한테 말해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빠가 해준 말 덕분인지 자려고 누워서도 학교 친구들한테 내 숙제를 말해줄 생각에 가슴이 온통 두근거렸다.

드디어 학교에 도착하자, 눈앞에 온통 멋진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신이 나서 친구들을 한 명씩 붙잡고 '네가 멋진 사람인 이유'를 말해줬다.

채현이는 쑥스러운지 입꼬리가 살짝살짝 올라갔고, 현철이는 내 팔을 철썩 치며 깔깔 웃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좋아한 사람은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내 공책을 보여달라고 하시더니 잠깐 멍하니 있다가 웃으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러고 나서는 눈물이 삐져나온 채로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행복해지는 말을 해주셨다.

'해림이는 선생님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선생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더 많으면 아이들은 정말정말 좋을 것이다. 선생님 덕분에 나는 기분이 더 많이 좋아졌다. 이러다간 내 안에 있던 나비가 점점 커져서 나까지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에 가는 길. 저 멀리 복슬이 아저씨가 보였다. 나는 체육 시간에 달리기할 때처럼 땅에 발바닥을 통통 치며 달려나갔다.

"아저씨! 아저씨는 멋진 사람이에요!"

"해림아 안녕. 그러다 넘어지겠다. 뭐라고 했어? 멋진 사람?"

"네. 제가 어제 멋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멋진 사람들이 아주아주 많더라고요. 아저씨도 멋진 사람이에요. 아저씨는 항상 저한테 친절하게 인사해주시고 나비 사진도 보여주시잖아요. 또 길에 있는 쓰레기도 없애주시고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지구가 좋아할 거예요."

순간 아저씨가 아빠처럼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다. 아저씨한테도 작은 나비가 생긴 것 같다. 얼른 가서 경비 아저씨랑 편의점 언니한테도 말해줘야겠다. 나비를 만나면 나비한테도 말해줘야지.

미미(美美) 의상실

— 민윤희

엄마와 언니들이 없는 우리 집은 썰렁하기만 하다. 매미가 여기저기서 울어대는 것이 더 또렷하게 들린다. 갑순이는 날이 더워서인지 혓바닥을 내고 헉헉대더니 마루 밑에 들어가 나오질 않는다.

안방 텔레비전 한쪽 귀퉁이에서 미미가 나를 보며 웃는다. 한 달 전 옆집 꼬맹이네가 이사 가면서 낡았다고 버리고 간 인형, 아직 쓸만하다며 주워 와 깨끗하게 씻겨 주니 그런대로 괜찮다.

나는 막 열 살이 된 까무잡잡하고 손재주가 좋은 민희! 딸만 다섯, 딸 부잣집의 막내딸이다. 나와는 달리 피부는 뽀얗고, 작은 얼굴에 눈코입이 또렷하며 팔다리가 긴 그야말로 우월한 유전자를 갖은 인형은 미미다. 아름다울 미를 두 번이나 써써 미미(美美)라 이름 붙여줬다.

우린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다. 민희와 미미!

초록 나뭇잎도 모두 지쳐버린 여름날 오후다. 미미도 더울까 봐 짧은 머리를 힘껏 잡아당겨 하나로 묶어주었다. 작은 얼굴이 더 작아 보였다. 내친김에 시원한 원피스도 만들어 주었다.

양파를 담았던 빨강 그물망이 원피스의 원단이다. 치마의 길이를 어

림하여 자른 후 한쪽에 바늘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더니 금세 주름이 생겼다. 침을 잔뜩 발라 엄마가 하던 대로 매듭을 지어 잘라냈다. 미미의 몸에 분홍 실로 돌돌 감아 민소매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제법 근사한 빨강 원피스가 완성되었다. 찰흙으로 하이힐 구두도 만들어 신겼다. 새 옷 덕분에 미미 다리의 얼룩도 보이지 않고 새 인형처럼 근사했다. 마치 내가 미미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저녁밥을 먹는 가족들이 잘 보이게 미미를 텔레비전 옆에 바짝 붙여 놓았다.

가장 먼저 밥을 먹고 일어나던 둘째 언니가 말했다.

"와~ 미미가 오늘은 더 예뻐졌네. 모델 같은 포즈를 하면 더 멋지겠다잉."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셋째 언니도 덩달아 거들었다.

"우리 민희는 솜씨가 좋아서 앙드레김 같은 패션디자이너 해도 되겠고만."

언니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다음 날, 미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오랜만에 동네 친구 유정이 집에 놀러 갔다.

유정이 집에는 늘 신기한 것들이 많다. 볼거리가 많아서 자주 놀러 가고 싶지만, 유정이 남동생의 짓궂은 장난 때문에 자주 가지는 않는다. 잔뜩 긴장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나의 손을 유정이가 잽싸게 잡아당겼다. 그것은 나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표현이다. 유정이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뽐내듯 말했다.

"민희야! 이거 새로 산 인형이야~ 예쁘지?"

예쁜 바비 인형이었다. 분홍 레이스 원피스에 굽 높은 하이힐까지 내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부러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얼른 대답했다.

"나도 집에 인형 있어."

그런 나를 보며 더 신나서 유정이가 말을 걸었다.

"이건 서울 사는 우리 이모가 보내 준 거야. 엄청 비싼 거야. 이것 봐봐~ 팔도 다리도 구부러진다? 금발 머리에 왕관도 씌워 있어. 정말 예쁘지?"

"……."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부러웠다. 나도 서울 사는 이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유정이 인형은 언젠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봤던 것보다 더 좋아 보였다.

'내 미미도 머리카락도 길고, 팔다리도 구부러지면 더 폼나게 보일 텐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집에 왔다.

만 원이나 하는 유정이의 바비 인형은 집에 와서도 자꾸 생각이 났다. 오늘따라 날 보며 웃고 있는 미미가 못나 보인다. 머리카락도 짧고 다리도 구부러지지 않아서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 바~보!

부럽고 울적한 마음이 복잡하게 엉켜 기분이 이상했다. 가족들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로등이 켜지도록 가족들이 오질 않는다. 초조한 마음에 대문에 나와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때 저만치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휴우~ 후~ 민희야! 언니랑 저~기~가야 돼~ 엄마한테……."

큰언니가 헉헉대며 말했다.

"어디 가는데?"

내 질문은 듣는 둥 마는 둥 큰언니는 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앞만 보고 달렸다. 녹색 신호등 덕에 잠시 뜀박질을 멈출 수 있었다. 숨을 고르던 큰언니가 말했다.

"민희야~ 엄마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얼른 가봐야 해."

왜 설명도 없이 급히 나를 데리고 뛰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다.

큰언니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동네 정형외과였다. 뺑소니 택시에 다리를 다친 엄마는 막 응급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간 후였다. 어둑한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었다. 엄마는 환자복을 입고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다. 환자복을 입은 엄마가 너무 낯설어서 왈칵 설움이 북받쳤다.

그날 이후 학교가 끝나면 미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놀다가 모처럼 엄마랑 있으니 그곳이 병원이어도 좋았다.

병문안을 온 손님들이 오가며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흰 봉투를 내밀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때마다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그러면 손님들은 이불 밑에다 찔러놓기도 하고, 엄마의 손을 잡는 척 봉투를 건네기도 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은 채 손님들 배웅을 한다며 병실을 비웠다.

혼자 병실에 남아있던 내 눈에 엄마의 가방이 보였다. 열린 가방 속에 퍼런 종이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꽤나 많은 지폐 다발이었다. 나도 모르게 문방구 유리장에 진열된 바비 인형이 아른거렸다.

'한 장만 있으면……. 한 장 꺼내도 모르겠지? 이거면……. 아냐……. 그러면 안 되잖아!'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미 손에는 지폐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있었다.

다음 날, 그다음 날도 엄마는 지폐 한 장의 행방을 찾지 않는다. 아니 없어진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꼬깃꼬깃해진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의 행방을…….

드디어 학교 앞 문방구에 바비 인형을 사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긴장한 탓일까? 문방구 미닫이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힘껏 문을 열었다. 괜히 필요도 없는 지우개며 연필을 만지작거리다가 용기 내어 말했다.

"아저씨, 저……. 맨 앞에 있는 바비 인형 주세요."

주인아저씨는 구겨진 지폐를 보며 눈썹을 잠깐 치켜올렸다. 그러더니 비닐에 싸여 있는 바비 인형을 순순히 내주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생일 선물로 엄마가 사준 거라고 둘러댔다. 가방에 급히 넣고 얼마나 달렸을까?

달음박질해서 도착한 곳은 우리 집 장독대 뒤꼍이다. 가끔 갑순이만 똥을 누러 왔다 갔다 할 뿐 오는 사람은 없다. 가슴이 콩닥콩닥 방망이질해 댔다.

투명 비닐을 잽싸게 뜯었다. 서울에서 보내왔다는 유정이 인형보다 훨씬 예뻐 보였다. 하이힐을 신은 금발 머리 아가씨, 거기에 팔다리까지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었다. 몸에서는 새것임을 알리는 석유 냄새가 진동했다.

얼룩덜룩 구닥다리 미미 말고 진짜 아름다운 미미가 생긴 것이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예쁜 미미야…….'

더 이상 낡은 미미를 위해 옷을 만들지도, 신발을 만들어 주지도 않는다. 나의 관심사는 온통 예쁜 미미를 의심받지 않고 집안으로 들여

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다.

하는 수없이 학교가 끝나면 장독대 뒤꼍에 가서 빈 항아리에 감춰놓은 미미를 꺼내 안부 인사를 건넨다. 평평한 돌무더기 위에 초록 아카시아 잎을 따서 방석을 만들고, 미미의 팔과 다리를 구부려 앉혔다. 때마침 익어가는 뽕 열매 한 송이를 미미 앞에 가져다 놓으니 거봉 한 송이를 대접하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아졌다.

"계세요? 누~나!!!"

굵직한 남자 목소리에 놀라 마당 쪽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보니 삼촌이다. 미미의 존재를 들키고 싶지 않아 재빨리 마당으로 뛰쳐나가 인사를 했다. 삼촌은 나를 보자마자 엄마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아직 병원에 계시다는 말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머니를 뒤적였다.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못 사 왔어. 민희야~ 언니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평소에도 말수가 없던 삼촌은 멋쩍은 듯 내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지폐 한 장을 손에 쥐여 주고 가셨다. 만 원!

며칠 후 엄마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퇴원을 하셨다. 쉬어야 한다고 언니들이 말하는 것 같았지만 엄마는 다시 일을 하러 가셨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삼촌이 다녀가신 후에 예쁜 미미는 나의 소원대로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 들른 삼촌이 미미 인형을 사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삼촌이니까 나의 거짓말은 나름 괜찮았다.

대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만 원과 낡은 미미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 장롱 위에 올려놨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예쁜 미미

의 옷을 만들 수 있다.

오늘은 바느질을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 다리는 저리고 손은 콕콕 찌르듯이 아프다. 마루에 철퍼덕 누웠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이 손과 다리를 주무르는 것 같았다.

민희 코는 코끼리 코! 거짓말을 해서 계속 코가 자라는 거라고 했다. 코를 잘라내야 한다며 달려오는 삼촌을 피해 달리고 또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악몽이었다. 뒷목이 축축한 채 깨어보니 언제 왔는지 엄마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아이 울음소리와 아주머니 고함이 섞여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때마침 누룽지를 가져오던 엄마가 혀를 차며 말했다.

"순둥이 재영이가 왜 그랬나 모르겠네. 글쎄 동네 슈퍼에서 과자 한 봉지를 훔쳐 달아나는 걸 주인아저씨가 잡아서 재영 엄마한테 말했는가벼……. 세상에 도둑질이 제일 나쁜 건디……. 어린 것이 몰라서 그런 거제. 쯔쯔쯧."

밥숟가락을 막 놓은 언니들도 이구동성 같은 말로 거들었다.

"그런 놈들은 죄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혀. 어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니께."

순간 내 귀에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엄마 돈 훔친 민희도, 거짓말한 민희도 감. 옥. 에. 가. 둬. 야. 혀.'

먹는 둥 마는 둥 도망치듯 마당으로 나왔다. 막 저녁밥을 먹은 갑순이가 꼬리를 잘래잘래 흔들었다. 괜히 심술이 나서 갑순이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와 언니들은 나를 용서해 줄까? 어린 것이 앙큼하다며 도둑질과 거짓말을 했다는 꼬리표가 언니들 입에 늘 붙어 다니겠지?

엄마는? 우리 엄마는…….

꿈에서 삼촌을 보는 것도 무섭다. 윗집 재영이 오빠처럼 동네방네 도둑질했다고 손가락질당하는 것은 더 싫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부리나케 달려왔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엄마가 와야 하는데 시간이 참 더디 흘러간다. 저녁밥을 먹고 뒷정리까지, 엄마는 바빠 보였다. 그러는 동안 졸래졸래 엄마를 따라다녔다.

드디어 안방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는 엄마 옆에 조심스레 다가갔다.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미미와 예쁜 미미 그리고 만 원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꾸역꾸역 입을 열었다.

"엄마, 이거……. 음."

목소리가 자꾸만 작아졌다. 엄마의 시선은 여전히 빨래에 가 있었다.

"민희가 엄마 도와주려고? 괜찮으니까 너는 가서 놀아~."

엄마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서인지 내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서러움이 올라왔다.

"사실은……. 사실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는 빨래를 개키다 말고 우는 나를 안아주었다. 계속 훌쩍이는 나를 보며 엄마의 눈가에도 희미하게 무언가 맺혔다.

그러면서 우리 막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냐고, 씩씩하게 잘 커 줘서 고맙다고 나를 위로해주었다. 목구멍에서는 딸꾹질 같은 되새김이 끊

이질 않았다. 그래도 용기 내어 말했다. 엄마 가방 속 만 원을 훔친 일, 삼촌이 예쁜 미미를 사줬다고 거짓말한 것을 모조리 털어놓았다.

엄마는 잠깐 눈빛이 흔들렸을 뿐 화를 내지 않았다. 꾸짖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내 손을 잡고 엄마가 말했다.

"민희야,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날은 오랜만에 꿀잠을 잤다.

결국 삼촌이 준 만 원은 큰언니의 수업료에 보태지고 두 명의 미미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

안방 텔레비전 옆에는 미미 의상실이 있다.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스무 벌의 옷이 바구니에 담겨있고, 그 옆에는 낡은 미미가 차렷 자세로 손님들을 반기고 서 있다.

예쁜 미미는 가장 앞자리에서 다양한 포즈로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 그리고 작은 깡통도 하나 세워졌다. 엄마가 없을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을 깡통에 넣어놨고, 난 더 이상의 거짓말이 필요 없어졌다.

오늘도 미미 의상실은 성업 중이다.

포스트잇

— 박경화

"'급식 먹은 후에 얼굴에 묻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라니……. 너희 엄마 포스트잇은 학교에서도 열일한다야. 호호호."

필통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발견한 짝 윤이가 낄낄대며 웃었다.

우리 집에 온 적 있는 윤이는 엄마가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 포스트잇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다. 목소리가 큰 윤이 때문에 반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너희 엄마 너무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 뭐 이런 참견을 하냐?"

"나라면 진작 다 떼어버렸겠다."

주위에 몰려온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내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떠들어댄 윤이가 너무 얄미웠다. 하지만 필통에까지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엄마가 백배는 더 미웠다.

현관에 붙어있는 '신발 정리하기' 포스트잇을 째려본 후 주방으로 가니 냉장고에 붙은 '문 살살 닫기'라는 포스트잇이 보인다.

난 냉장고 문을 하이파이브를 하듯 세게 쳐서 닫는 버릇이 있다. '탁' 하고 보내면 '척'하고 달라붙는 게 정말 재미있다. 하지만 엄마는 조용

히 닫기를 원하신다. 그 외에도 간식 서랍 앞에는 '간식 먹은 후, 꼭 이 닦기' 포스트잇이 3개월째 버티고 있다. 대체 간식 먹을 때마다 양치하면 하루에 몇 번을 해야 하냔 말이다.

마음에 까끌까끌한 모래가 낀 듯 답답해졌다. 물이라도 한잔 마시려 정수기 쪽으로 갔는데 새로 붙어있는 포스트잇이 보였다.

'물 흘리지 않기'

아침에 조금 흘렸을 뿐인데 엄마의 포스트잇은 어김없이 출동해 있었다.

정수기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은 잠깐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는 듯이 날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난 포스트잇을 거세게 떼어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찢을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조각으로 낸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마음 같아선 집안의 모든 포스트잇을 다 떼어 버리고 싶었다.

엄마는 포스트잇을 즐겨 사용한다. 아니, 좋아한다. 포스트잇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포스트잇만 모아놓은 상자가 따로 있을 정도이다.

엄마가 '보물 상자'라고 부르던 그곳에는 원래 나의 배내옷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의 명령을 받은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 있다. 난 'post it box'라는 완장(완장: 신분이나 지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표장(標章))을 달고 있는 그 상자가 너무 싫다.

처음 '포스트잇 놀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재미가 있었다.

익혀야 하는 습관을 완벽하게 익히면 떼어내는 것이 놀이의 규칙이었다. 외출 후 돌아와 손 씻는 습관이 생기고 첫 포스트잇을 뗄 때는 세상에서 손을 가장 완벽하게 씻는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엄마는 포스트잇을 뗄 때마다 물개박수를 쳐 주셨다. 난 점점 멋진 아이가 되는 것

같았고 칭찬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박수 받을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포스트잇의 내용은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원하는 '얌전하고 공부 잘하는 딸'로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바뀌어 갔다.

'주름치마엔 무릎 양말을 신어야 예쁜 거야'라던가, '학습만화보단 4학년 권장 도서를 더 읽어야지' 같은……. 그렇게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은 내게서 원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책을 읽을 자유마저도 빼앗아 갔다.

"띠띠띠띠띠…… 찰칵."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평소라면 맞이하러 나갔을 테지만 지금은 엄마의 머리카락 한 가닥도 보고 싶지 않았다.

"어? 붙여놓은 포스트잇 어디 갔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포스트잇이 없어진 걸 발견한 엄마다.

"바닥에 떨어졌나? 다희야 여기 붙은 거 못 봤니?"

"……."

엄마는 대답 없는 날 힐끗 보시더니 포스트잇 상자 쪽으로 걸어갔다.

"이상하네……."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포스트잇을 꺼냈다.

"아침에 잠깐 흘렸던 건데 꼭 붙여야 해?"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럼 그게 규칙이니까."

엄마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다시 안 흘릴 건데 왜? 왜 또 붙여?"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난 죄 없는 지우개를 연필로 콕 콕 찍었다.

"혹시…… 다희가 뗀 거야?"

엄마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 내가 찢어 버렸어!"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튀어나온 말투에 순간 움찔했다. 엄마는 내 말투에 예민하다. 하지만 지우개 위의 연필 자국은 점점 더 늘어 가고 있었다.

"다희! 네 맘대로 뗐다고? 정말?"

역시나 나의 대답이 엄마의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 엄마는 불편 가득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오늘 잠깐 그런 거고 평소에 물 안 흘리잖아. 그래서 뗐다고……."

난 목소리를 한 톤 줄이고 황급히 지우개를 숨겼다.

"그러니까 붙여야지 애도 아니고…… 여태 흘려 물을?"

엄마는 혀를 차며 연필을 '홱' 채어 갔다.

"화장실이 급했다고……."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너 급한 성격을 어쩌니?"

엄마의 손에서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듯, 한 글자들이 한 자, 한 자 생겨났다.

"그냥 흘릴 때마다 닦으면 되잖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왔다.

"어머 얘 봐…… 정다희! 너, 말투가 왜 그래? 처음부터 안 흘리면 닦을 일도 없잖아!"

엄마는 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포스트잇을 붙였다. 엄마의 손이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마귀할멈 손 같았다. 엄마 마음대로 날

가두고 잡아먹으려는 마귀할멈.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난 입술을 깨물고 포스트잇 상자로 갔다. 그리고 '외출 후 바로 손 씻기. 특히 엄마'라고 적고 욕실 문으로 달려가 '쿵' 소리가 나도록 붙였다.

"뭐한 거야 지금?"

엄마의 눈이 커다래졌다. 처음 보는 나의 돌발행동에 놀란 것 같았다.

"엄마 아까 들어와서 손 안 씻었잖아!!"

"그건 네가 포스트잇을 떼버린 거 말해야 해서 그런 거고."

"나도 아침에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거랑 이거랑 같아?"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다. 엄마도 고쳐야 할 점이 많은데 항상 나에게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상황에서 엄마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

"뭐가 다른데?"

"엄마는 깜박하는 거고, 넌 그 급한 성격이 문제고."

"성격은 엄마도 급하잖아. 휴대폰 맨날 놓고 나가서 다시 가지러 오면서?"

"4학년이나 돼서도 칠칠찮게 물 흘리고 그럼 남들이 흉봐."

"결국 엄마는 남들이 흉볼까 봐 그러는 거네?"

말이 배배 꼬인 꽈배기처럼 흘러나왔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남한테 보이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는 검지손가락으로 오른쪽 눈썹 뼈를 세게 눌렀다. 억지로 화를 참으려 할 때 나오는 습관이다.

"엄마는 항상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남인데?"

"그럼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멋대로 사니?"

"엄마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해?"

평소의 내가 아닌, 말대꾸 대왕이 된 것처럼 말이 쉼 없이 터져 나왔다.

"요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엄마의 커진 목소리는 주방으로 퍼져나갔다.

"엄마는 할 말 없으면 말대꾸하냐고 그러더라?"

"뭐? 뭐……. 뭐? 뭐라고!!"

엄마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해지더니 눈썹이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건 엄마가 '도깨비'로 변신하기 전의 징조이다. 이 선을 넘으면 세상의 그 누가 와도 못 말린다. 하지만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오늘은 나도 세상의 그 누가 달려와도 못 말리는 정다희가 될 거다.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난 배에 힘을 주고 엄마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왜 항상 엄마 맘대로…."

띠리라 리리리리리리~~~~~.

겨우 두, 세 마디 내뱉었을 뿐인데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화면엔 한 번 통화하면 두 시간은 기본으로 하는 엄마의 절친인 '찌' 이모의 애칭이 떠 있다. 엄마는 찌 이모의 전화는 절대 그냥 넘기는 적이 없다.

그래도 '설마 이 상황에서 전화를 받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 예상을 뒤엎고 엄마는 전화를 받았다.

"어~~택배 잘 받았어?"

이 중요하고 심각한 순간에도 전화를 받다니…….

엄마는 금세 평평해진 이마를 한 얼굴로 안방으로 향했다. 정확히는

방 안쪽에 있는 옷 방으로 가는 건데 내 흉을 보거나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곳을 이용한다.

"나? 다희 때문에 폭발 일보 직전이었잖아. 호호호."

엄마는 간드러진 웃음을 흘리며 문을 '쾅' 닫았다.

엄마는 포스트잇 이야기랑 내가 말대꾸한 내용까지 속속들이 말할 게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저번엔 '아직 철없는 애인데 벌써 가슴에 몽우리가 잡혔다'며 호호거리기까지 했었다. 사소한 것도 전부 이야기할 만큼 친한 사이라고 해도 딸이 창피할 거라는 생각은 쥐똥만큼도 안 하고 흉을 보는 엄마.

입 밖으로 나가지 못한 화가 커다란 불덩이로 변해 목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포스트잇 상자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린 후, 온 힘을 실어 바닥에 내던졌다. 상자의 뚜껑이 떨어져 나갔고 포스트잇이 사방으로 튀어나왔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난 나름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한다. 전교생을 통틀어 인사를 가장 잘한다는 칭찬을 받은 적도 있고 공부도 꽤 잘한다. 그림도 잘 그려서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다. 옆집 아주머니는 엄마에게 나 같은 딸을 둬서 정말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칭찬만 해주는데 엄마는 유치원 때 이후로 칭찬을 해 준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남의 칭찬에도 '집에선 안 그래요'라며 깎아내리기 일쑤였다. 엄마 눈에 난 항상 부족한 딸이다. 난 그 사실이 항상 속상했다.

엄마는 여전히 통화 중인 듯했지만, 오늘은 기필코 엄마와 포스트잇

문제를 결판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많이 참아 왔고 내 성격, 모습 그대로 날 인정해 달라고…….

난 서둘러 눈물 자국을 지웠다. 그리고 문 앞에서 심호흡한 뒤 문을 열었다.

"아 그거? 못 보냈어. 다희가 문제집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새 문제집에도 죄다 그려 놓았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다희가 또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니? 그림 영재? 네가 봐도 그러니? 호호호…… 너무 잘 그려놔서 버리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문제집만 창고에 한가득이잖아. 호호호……."

엄마는 정말 즐거운 듯 웃고 있었다. 팔불출처럼 영재라는 칭찬에 저렇게 대놓고 맞장구를 치다니……. 남이 들음, 흉볼 일이다.

엄마가 내 칭찬을 하고 있다. 왜 엄마는 내 앞에서 잔소리는 기가 차게 잘하면서 칭찬은 숨어서 몰래 하는 걸까?

엄마에게 단단히 따져야겠다는 마음을 밀어내고 따뜻한 마음이 '슈욱'하고 들어왔다. 나는 부서진 상자 조각을 모아서 뚜껑을 붙이고 빨간 물감으로 칠했다. 그리고 'post it box'의 'it' 부분에는 빨간 하트를 그려 넣었다.

post♡box.

우편함.

나는 지금 포스트 박스에 들어갈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라는 말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화나고 서운했던 감정도 자세히 적고 최대한 다정한 편지로 보이도록 쓸 예정이다. 편지

를 쓰다 보니 내 마음이 푸딩처럼 유들유들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왠지 이 편지를 읽은 엄마가 나를 꼭 이해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PS. 엄마, 칭찬은 꼭 내 앞에서 해 주세요.

그림 영재, 다희 올림.

쑥쑥이와 씨앗

— 이경미

서둘러 급식을 먹고 교실로 왔다.

'따르릉, 따르릉.'

교실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다.

"은지야, 이은지 이리 나와 봐."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동생 은수가 복도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으니 보건실로 데리러 가라는 말이었다. 담임선생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에이~~씨'라고 속말이 튀어나왔다. 내가 뱉은 말을 누가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코로나19로 이번 주는 6학년이 5, 6교시에 원격수업을 한다. 원격수업을 시작하기 전 1시간 남짓 여유 있는 시간에 피아노학원에 가서 30분 정도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은수 때문에 일이 꼬였다.

동생 은수는 조금만 다쳐도 떼를 쓰고 어리광을 많이 부렸다. 그런데 무릎을 다쳤으니 오늘은 좀 더 큰 떼를 부릴 것 같다. 떼를 부릴 은수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보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다. 은수는 나를 보고 반갑게 손짓을 했고 무릎에는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다. 은수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을 업으라는 시늉을 하면서 팔을 잡았다.

은수는 2학년인데 말 표현이 서툴고, 읽기와 쓰기도 못해서 특수교실에서 공부한다. 그래서 내가 은수를 챙겨야 할 때가 많다. 오늘은 은수를 등에 업고 집에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

이럴 때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엄마가 있으면 은수를 돌보지 않아도 되고, 오늘처럼 은수를 업고 집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가 없다는 것이 속상하고 화가 났다.

은수를 돌봄교실에 있으라고 하고 얼른 도망치듯 후다닥 나와 피아노학원으로 헐레벌떡 뛰어갔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마스크에는 입김으로 가득 찼다. 급식으로 먹었던 돈가스가 다시 목으로 넘어오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버튼을 누르고 숨을 몰아쉬는데 한쪽 귀퉁이에 필통이랑 천원이 돌돌 말려져 있었다. 필통에는 김정우라고 쓰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앗~싸'라고 외치고 돌돌 말려 있는 천원을 주워서 폈다. 3천 원이었다.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다. 집에 갈 때 은수랑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정우 오빠가 나를 보고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왔다.

'어 정우 오빠다.'

내가 몰래몰래 좋아했던 정우 오빠다. 정우 오빠는 원장님 아들이다. 나랑 작년까지는 피아노학원에서 자주 봤는데 중학생이 되고부터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만났다. 정우 오빠가 나를 보고 웃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게 달아올

랐다.

"내가 잃어버린 3천 원을 네가 주웠구나"

내가 손에 쥔 3천 원을 보고 정우 오빠가 걸어오면서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정우 오빠 돈을 주웠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오빠에게 수줍게 필통과 3천 원을 주었고 오빠는 고맙다고 하면서 받았다. 오빠가 아이스크림을 같이 사 먹자고 제안했다. 부끄럽고, 쑥스러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빠가 내 팔을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끌었다.

은수랑 같이 사 먹지는 못해 아쉽지만, 정우 오빠랑 둘이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맛은 더욱 달콤할 것 같았다. 게임에서 이길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 가슴은 계속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다.

'아이……아…….'

엉덩이에서 방귀가 나올 것 같았다. 힘을 주어 꾹 참고 있는데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다리가 꼬였다.

'아이…… 아…….'

더는 못 참겠다.

'음…… 음…….'

정우 오빠한테 아무 말을 못 하고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

"뿡뿡뿡, 삐리리, 삐리리."

고요한 계단 안으로 나의 방귀 소리가 클라리넷의 선율처럼 울려 퍼졌다.

"흐…… 흐…… 흐……."

오늘은 망했다.

방귀를 뀌고 나니 시원했다. 하지만 정우 오빠를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했다. 내가 좋아하는 정우 오빠 앞에서 실수했으니 난 망했다. 이제 정우 오빠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걱정됐다. 창피하다는 생각이 올라와서 피아노학원으로 가야 할까 말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아 맞다. 내가 또 까먹었다.'

오늘 아침에 담임선생님이 점심 급식 먹고 나서 상담실에 들렀다 가라고 했는데 은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다. 아마 은수가 아니었어도 또 까먹을 것 같았다.

난 평상시에도 잘 까먹었다. 까먹는 것은 일등이다. 그래서 배운 공부도 잘 까먹어서 공부를 못한다. 피아노학원도 4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바이엘 100번을 치고 있다.

방과 후에 우리 반에서 딱 2명만 기초학력 수업을 받는데 그 2명 속에 내가 포함됐다. 난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난 우리 반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외톨이다. 난 그냥 그렇다.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아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휴……' 하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뜨거운 5월 햇살을 받으며 상담실로 뛰어갔다.

'드르륵'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담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 주었다. 상담실은 맑은 하늘처럼 밝았다. 창문 앞에 두 개의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은지 왔구나. 선생님이 첫날이라 교실로 데리러 갔더니 벌써 귀가했더구나, 그래서 은지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할까 어떨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3월에 교실에서 만나고 처음이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은지가 3월에 실시한 검사에서 불안, 초조, 무기력이 높게 나왔어. 그래서 은지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은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상담을 통해서 은지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담임선생님께 지난주에 연락을 드렸어, 상담에 대한 은지 생각은 어떤지도 물어보려고 오늘 만나자고 했어, 어~ 그때는 앞머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앞머리가 내려왔네."

"네."

수줍게 대답했다. 그때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지난 3월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은 교실로 왔다. 빙고 게임도 하고 집단상담으로 심리검사를 했다. 검사를 통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담임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거나 간식을 먹고 싶으면 언제든 상담실에 오라고 했다. 그때 나도 맛있는 간식도 먹고 싶고, 고민도 말하고 싶었다.

선생님은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서 창문 앞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고 빛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화분을 옮겨 놓았다. 화분에 물을 주어도 화초가 잘 자라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내가 보기에는 다 죽어가는 화초였다.

"은지야 이 화초에다 이름을 지어줄래? 네가 이름을 붙여 주면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 거 같아."

난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속마음에는 화초가 잘 자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3교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상담실에서 나왔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기분은 좋았다.

원격수업이 있는 날은 기초학력 수업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은수를 데리러 돌봄교실로 갔다. 상담실에서 받아온 간식으로 은수를 달래서 업지 않고 둘이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 갔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열 정거장 정도 가면 우리 동네가 나온다.

난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아빠랑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니 은수가 영락없이 또 떼를 쓰면서 업으라고 했다. 은수를 업고 책가방을 앞으로 멨다. 몇 걸음만 걸어도 등에는 땀이 주르르 흘렀다.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됐다.

집에 도착하니 제일 먼저 복실이가 나와서 나를 반겼다.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고 좋다고 나한테 치댔다. 등에 업은 은수를 내려놓으니 언제 떼를 썼다 싶게 새끼 강아지들한테 달려갔다.

난 집에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하면서 휴대폰 게임과 웹툰을 본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을 시켜도 대답하기도 싫다. 은수가 놀자고 보채도 난 무시하고 휴대폰만 본다.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고 있으면 난 행복하다. 자정까지 어느 때는 더 늦은 밤까지 봤다. 핸드폰은 나의 유일한 단짝 친구였다.

난 매주 수요일 3교시가 되면 까먹지 않고 본관에 있는 상담실로 총총 총 내려갔다.

상담 선생님이 맛있는 간식을 풍성하게 주었다. 늘 내가 원하는 매체로 선택하여 상담 활동을 하게 하였다.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재촉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편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 주었다. 그 눈빛이

따뜻했고,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다. 비난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았고, 내가 어떤 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도 않았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이은지로 인정하고 받아주었다.

상담실에 가면 편안했다. 까먹었던 기억력이 다시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리고 나는 매주 화분에 물을 주고 화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서 바람과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었다. 상담을 받고 오는 날에는 나도 모르는 장점이 하나씩 늘어났다.

5번째 상담하는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생기가 없어서 축 처진 화분에서는 새로운 움이 터서 잎사귀가 새로 나왔다.

상담 선생님이 새로 나온 잎사귀를 만져보라고 하였다. 부드러웠다. 아기 초록처럼 연초록이었다. 잎사귀가 새롭게 움을 트는 것을 일주일마다 관찰하는 즐거움도 있었다. 더 신기한 것은 죽어가는 또 다른 화분에서도 아주아주 작은 새싹이 트고 있었다.

"선생님."

"어, 은지야."

"화분에 있는 화초에다 쑥쑥이랑 씨앗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고 싶어요."

"멋진 이름이다. 그럼 지금부터 쑥쑥이, 씨앗이라고 이름을 불러줘야겠다."

"네~ 히히히."

1학기 종강할 때쯤 나에게도 쑥쑥이와 씨앗처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나에게도 희망이라는 움이 트기 시작했다.

기초학력 반에서 공부한 학업이 3학년 수준에서 4학년 수준으로 국어와 수학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체육활동 시간에 모둠을 정하는데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도연이네 조에 들어가고 싶다고 내 의사 표현을

했다. 그랬더니 도연이가 반갑게 환영해 주었다. 그때 기분이 게임에서 아이템 받을 때보다 더 기뻤다.

그리고 애견 미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다. 애견 미용사가 되어 새끼를 입양 보낸 복실이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예쁘게 꾸며주고 싶었다.

'우와…… 와…… 와…….'

나에게도 서프라이즈가 찾아왔다는 것이 행복하고 신이 났다.

정선의 토요일

— 이종진

"정선아, 책 보니? 책 그만 보고 양조장 가서 막걸리 좀 받아와."

엄마가 방문 밖에서 나에게 말했다.

"엄마, 어제 내가 받아다 놓은 막걸리 있잖아."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큰소리로 외쳤다. 어제 얻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는 중이다. 나는 중학교 공부가 정말 궁금했다. 엄마가 방문을 열더니 돈과 주전자를 마루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먹던 걸 제사상에 올릴 수 없잖아. 엄마가 따로 덜어 놓은 걸 아버지가 마셔서 그래. 우리 착한 정선이 얼른 갔다 와. 알았지?"

부엌으로 들어가는 엄마를 쫓아갔다. 아궁이에서 피어올라오는 연기가 부엌을 꽉 채웠다. 나는 부엌문 앞에 서서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갔다 오면 안 돼?"

"엄마 음식 하느라 바쁜 거 안 보여? 콜록콜록. 우리 정선이 왜 그럴까?"

엄마는 연기 때문에 콜록이며 부엌을 나왔다.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이 뭐?"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 때문에 내 목소리만 커졌다.

"가다가 학교 끝나고 오는 애들 만나는 거 싫다고 했잖아."

엄마는 내 말은 무시하고 손에 주전자와 돈을 쥐여 주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눈앞이 뿌예진 나는 엄마의 뒤통수에 대고 아무 소용없는 말을 쏘아댔다.

"내가 공부 잘하면 중학교에 보내 준다며? 엄마가 약속했잖아. 시험마다 1등 했는데도 안 보내 주고……."

나는 주전자를 집어 던졌다. 부지깽이를 집어 든 엄마의 눈이 빨갰다. 주전자를 얼른 집어 들고 뛰었다. 가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기만 바랐다. 숨이 너무 차서 신경질이 났다.

어느새 산길에 접어들었다. 입구에서 작대기 하나를 챙겼다. 다른 날보다 더 큰 걸로 챙겼다. 나는 작대기를 마구 휘둘렀다. 발에 걸리는 돌멩이들은 발로 찼다. 돌멩이 하나가 작은 바위 위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뱀에게로 날아갔다. 나는 뱀이 쫓아올까 봐 빠르게 달렸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쯤 굴다리 앞에 도착했다. 굴다리 속의 어둠이 오늘 내 기분 같았다. 숨을 한참 고른 후에 굴다리 속을 전속력으로 빠져나왔다. 전보다 더 빨랐는지 내 숨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다 잦아들었다.

산길이 끝나는 곳에서 '끼익' 버스 서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여럿이 내리는 소리도 들렸다. 버스가 오래 머물렀다 떠났다. 버스가 다니는 길을 지나 고개만 넘으면 된다.

교복을 입은 키가 큰 남학생이 오른손에 책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 윗집 사는 동식 오빠다. 오빠랑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동식 오빠는 나를 볼 때마다 귀엽다고 했다. 지난 일요일에는

동식 오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선이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예뻐졌지? 정선이 눈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같아."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동식 오빠를 부르려는데 들고 있는 주전자가 창피했다. 주전자를 옆으로 던져놓고 동식 오빠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뒤에서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의 여학생이 동식 오빠를 부르며 뛰어오고 있었다. 옆 동네 사는 미애였다.

키가 큰 미애는 6학년 때 서울에서 전학을 왔다.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미애는 뭐든지 잘하는 데다 잘 웃고 사교성도 좋았다. 나는 나한테 없는 것들을 다 지닌 미애한테 샘이 났다. 미애에게 1등을 뺏길까 봐 시험 때마다 조마조마했었다. 미애는 중학교에 가고 나는 진학하지 못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미애를 오늘 처음 봤다.

미애가 들고 있는 책가방을 본 순간 마음은 오던 길을 달려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럴 수는 없었다. 심부름을 안 한 날에는 엄마가 저녁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 요즘 나는 저녁밥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다시 배가 고팠다. 엄마가 키 크려고 그런다는데 키는 크지 않고 가슴에 작은 몽우리만 생겼다.

동식 오빠와 미애가 얘기를 나누며 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나는 참나무 옆에 바싹 붙어서 가만히 있었다. 둘이 지나간 후에 주전자를 챙겨 들고 갈 생각이었다.

"정선아, 너 심부름 가는 중이지? 아까 주전자 들고 있던 것 같았는데? 놀라긴? 버스에서 내릴 때 봤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나를 향해 동식 오빠가 싱긋 웃었다.

옆에서 동식 오빠와 나를 가만히 지켜보던 미애가 내 손을 잡았다. 폴짝폴짝 뛰는 미애 때문에 나도 덩달아 뛰게 되었다. 미애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컸는데 그새 더 컸다. 가슴도 봉긋했다.

"정선아, 정말 오랜만이다. 반갑다. 진짜 반가워. 그런데 정선아, 학교에 왜 안 다녀? 어디 아픈 거야?"

내가 중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미애가 물었다. 형편이 안 되어서라고 대답하기 싫었던 나는 미애에게 잡힌 손을 빼내고 땅을 쳐다봤다.

그 순간 내 눈에 미애가 신은 까만 구두가 보였다. 하얀 양말을 한 번 접어놓은 미애의 발목과 종아리가 뽀얗게 빛났다. 내 고무신과 종아리를 감추고 싶었다. 아니 도깨비감투라도 써서 나를 아예 안 보이게 하고 싶었다. 나도 미애처럼 빛나는 까만 구두랑 하얀 양말을 신고 싶었다.

넋을 놓고 미애의 구두를 보는데 동식 오빠가 내 눈앞에다 손을 흔들어 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막걸리 심부름이지?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오빠가 들어 줄게."

동식 오빠가 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내가 던져놓은 주전자를 찾아 들며 말했다.

"둘만 가려고? 나도 같이 가."

미애가 동식 오빠의 팔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 했다. 나와 눈이 마주친 동식 오빠는 미애의 손을 살며시 밀어냈다. 나는 동식 오빠의 친절이 반갑지 않았다. 내 생각을 묻지도 않고 결정한 동식 오빠에게 화가

났다. 내가 한 번도 잡지 않은 오빠의 팔을 잡은 미애는 싫었다.

미애가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동식 오빠에게 물었다.

"오빠, 비 동사는 세 갠데 일반 동사는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어. 쉽게 외우는 방법이 없을까?"

"미애야, 그거는……."

동식 오빠의 뒷말은 내가 못 알아들어서인지 잘 들리지 않았다.

둘은 영어를 계속 섞어 말하며 웃었다. 나를 보면서도 웃었는데 나는 언제 웃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한쪽 입꼬리만 올리다 말았다. 둘이 한참 얘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돼가는 느낌이었다.

땅바닥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지 발이 무거웠다. 키가 큰 둘의 한 걸음은 내 두 걸음이었다. 나는 뒤로 자꾸 처졌다. 나는 내 작은 키에도 화가 났다. 작대기로 땅바닥을 쿡쿡 찔렀다. 땅은 들어가지 않고 내 손바닥만 아팠다. 나뭇가지를 치고 싶었지만, 나무가 너무 커서 닿지 않았다. 나무와 땅이 나를 약 올리는 것 같았다.

나는 심통이 나서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뱀아, 저 둘을 확 물어버려라."

앞서 걷던 동식 오빠와 미애가 걸음을 멈추고

"정선아, 너 거기서 안 오고 뭐 해? 빨리 와."

라고 합창을 했다. 그 순간 내 말이 들렸나 싶어 뜨끔했다.

내가 헉헉대며 다가가자 동식 오빠가 내 머리를 흩뜨리며 미애에게 말했다.

"우리 따라서 오느라 정선이가 힘들었나 보다. 미애야, 우리가 좀 천천히 걷자."

"정선아, 너는 어쩜 아직도 그대로니? 초등학생 같아."

나를 아이 취급하는 동식 오빠와 미애의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뱀이 진짜로 미애를 확 물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내가 언제 같이 가자고 했어?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네 둘이 맘대로 정해놓고서, 내가 어디가 초등학생 같아? 나도 많이 컸다고, 우리 엄마가 나는 앞으로 더 클 거라고 했어."

나는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 냈다. 그리고 동식 오빠의 손에서 주전자를 빼앗아 들고 발을 빠르게 놀렸다. 작대기도 집어 던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둘을 째려봤다. 미애가 뛰어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정선아, 미안해. 초등학생 같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네가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귀엽다는 말은 늘 듣던 말이고 내가 좋아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미애한테 듣고 싶은 말은 아니다.

동식 오빠가 내 옆에서 걸었다. 미애는 몇 걸음 뒤에서 천천히 걸었다. 나를 생각해서 천천히 걸을 거라더니 여전히 내 두 걸음이 동식 오빠의 한 걸음이었다.

'아, 짧은 내 다리.'

"왜 쫓아와. 나는 이쪽으로 가면 되고 오빠랑 미애는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나 혼자 갈 거야."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식 오빠가 나를 잡아 세우더니 키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다.

"정선아, 오빠 좀 봐봐."

"……."

나는 동식 오빠가 보기 싫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선아,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년에 대학생이 되면 우리 동네에 야학을 열 거야."

"야학? 그게 뭔데?"

오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입에서 질문이 바로 튀어나왔다.

"야학은 야간 학교를 줄인 말인데 밤에 공부하는 걸 말해. 형편이 어려워 낮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 오빠는 영어를 가르칠 거야. 그때 정선이도 배울래?"

나는 공부가 좋았다. 정말 하고 싶었다. 내가 대답을 하려는 찰나 몇 걸음 뒤에 있던 미애가 우리 둘 옆으로 바투 다가섰다.

"오빠, 정선이가 공부를 얼마나 좋아하고 잘하는데. 물어보나 마나야. 정선아 할 거지? 한다고 해. 오빠 내가 전학 와서 다른 것은 다 1등을 해봤거든. 그런데 공부는 정선이를 이길 수 없었어. 정선이는 뭐든지 100점이었거든. 정말 부러웠어."

나는 다 가진 미애가 나를 부러워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나는 입을 벌렸다 바로 다물었다.

"미애 말고 정선이가 말해봐."

동식 오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나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못하면 어떡해?"

나는 입을 조금 벌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도 동식 오빠는 내 말을 찰떡같이 다 알아듣고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 오빠가 더 열심히 배워서 잘 가르쳐 줄게. 알았지?"

'영어? 대학생? 동식 오빠가 선생님? 내가 다시 학생?'

나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교복을 입은 미애가 더 이상 부럽지 않았다. 내 고무신이 미애의 까만 구두보다 좋아 보였다. 내 키가 한 뼘이나 자란 듯 동식 오빠와 미애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다. 나는 주전자를 동식 오빠에게 건넸다.

내 등 뒤에서 바람이 솔솔 불었다. 내 몸을 땅이 올려주고 바람이 밀었다. 나는 앞으로 빠르게 나아갔다. 동식 오빠가 내 뒤통수에 대고 크게 외쳤다.

"정선아, 왜 그렇게 빨리 가. 대답을 해줘야지. 공부할 거지? 오빠 학생 할 거지?"

나는 날갯짓 하던 팔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동식 오빠, 아직 1년이나 남았잖아. 생각 좀 해보고. 나중에 답해 줘도 되지?"

동식 오빠와 미애가 웃으며 얘기를 나누든 영어로 말을 하던 나는 이제 아무렇지 않다. 나는 한참을 가다 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았다. 저 멀리 뒤처진 동식 오빠와 미애에게 어서 오라는 손짓을 하며 힘껏 소리쳤다.

"왜 그렇게 걸음이 느려? 이러다 해 지겠다. 빨리 와."

장하다 해솔이

— 이해복

긴 담장을 따라 넝쿨장미가 곱게 피어 방글거리는 아담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리내 초등학교입니다.

자그마한 소도시에 있는 미리내 초등학교는 전국에서도 손꼽는 핸드볼의 명문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많은 선수 중엔 현재 국가대표나 청소년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가 여럿이나 됩니다. 그래서 미리내 초등학교의 핸드볼 팀은 고장의 자랑이기도 하지요. 선수들도 자신들이 학교와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최신식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와 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코치 선생님은 늘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핸드볼부 선수로 뛰고 있다. 운동하느라 많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절대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구호 '하면 된다' 알지? 힘들겠지만 운동만큼 공부에도 힘쓰도록! 알겠나?"

"넵!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청을 높여 대답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눈을 찡긋하곤 합니다.

어느 날, 코치 선생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코치 선생님이시지요?"

"네, 맞습니다만 어디신지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해솔이 고모입니다. 저어, 해솔이 아빠가…… 흑흑, 오전에 돌아가셔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 어린 해솔이를 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지…… 흑흑흑."

해솔이 고모의 울음 섞인 전화에 코치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해솔이 아빠께서요? 아니, 어쩌다가……."

"네, 해솔이 아빠가 몸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욕조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 모양이에요. 손도 못 써 보고 그만…… 흑흑흑."

해솔이 고모는 간신히 울음을 삼키며 말을 전하다가 끝내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런! 상심이 크시겠군요. 해솔이에게 잘 전하겠습니다."

체육관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좀 전에 받은 전화를 생각하는 코치 선생님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합니다.

'허어, 참! 쯧쯧. 이걸 어찌 한다? 허어, 거 참!'

'시합이 금요일로 코앞인데 오늘이 월요일, 해솔이가 삼우제까지 치르려면 경기에 참가하기가 힘들 텐데 이를 어쩐다?'

코치 선생님은 해솔이를 생각해 봅니다.

공격할 때는 오른쪽 인너를, 수비할 때는 최전방을 맡는 해솔이는 순발력과 주력이 뛰어나 속공을 전담합니다. 다만 상대편과의 몸싸움에서 밀리는 단점이 있어 확실한 주전으로 뛰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선수입니다. 하지만 교체 선수 중에서는 늘 첫 번째로 꼽는 선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장 가보라고 해야 마땅한데 내가 무얼 망설이고 있지?'

'금요일 첫 경기가 중요한데, 어쩌면 부상 중인 주전 선수 유라 대신 해솔이를 뛰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코치 선생님의 마음이 두 편으로 나뉘어 싸움을 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대회가 중요하다고 해도 안 되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 보내야지.'

마음을 정한 코치 선생님은 선수들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해솔이가 없으면 전력이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의 첫 상대가 공교롭게도 미리내 초등학교와 우승, 준우승을 다투는 팀입니다. 그런데 팀의 전력에 큰 몫을 담당할 해솔이가 없이 경기를 하게 되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민하던 마음을 거두고 코치 선생님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잠시 휴식! 해솔이는 나 좀 잠깐 보자."

따라오라는 코치 선생님의 말씀에 해솔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어깨를 한 번 으쓱해 보이고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코치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으응, 그게…… 해솔아!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놀라지 말고 들어라. 좀 전에 너희 고모께서 전화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구나. 얼른 집에 갈 준비를 해라."

"네? 아버지께서요? 왜요? 어쩌다가요?"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듯 사실인지를 자꾸만 묻고 또 묻는

해솔이가 안쓰러워 코치 선생님은 그저 말없이 꼬옥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눈물범벅인 채 체육관 문을 나서던 해솔이는 그 와중에도 시합이 걱정되는지 뒤를 돌아보며 목 메인 소리로

"선생님! 그런데 이번 시합은 어떻게……."

하고 말을 했으나 더는 말끝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해솔아! 시합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할 수 없지 않니? 남은 선수들이 네 몫까지 열심히 뛸 거야. 그러니 너도 너무 슬픔에만 잠기지 말고 마음 든든히 먹어야 해.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오너라."

쓸쓸히 운동장을 걸어가는 해솔이를 보는 코치 선생님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체육관을 나온 해솔이는 자신도 모르게 엉엉 소리 내어 울면서 교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는 왜 그렇게 더디게 오는지…… 간신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빈 자리에 앉자 몸이 한없이 아래로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 거짓말이지요? 그렇지요? 고모가 잘못 아신 거지요? 대답 좀 해 보세요, 아버지! 저만 혼자 두고 가시면 전 아버지 없이 어떡하라고요. 네? 아버지, 아버지이!'

해솔이는 속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해솔이를 보내고 코치 선생님은 주장인 지은이를 불러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수들은 뜻밖의 소식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해솔이 가여워서 어떻게 하냐?"

"그러게. 아버지랑 단둘뿐이라고 했는데……."

"어떡해, 해솔이!"

선수들은 저마다 한마디씩하며 슬픈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해솔이 몫까지 열심히 뛰어 꼭 우승해서 해솔이에게 힘을 주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대회를 하루 앞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코치 선생님은 내일 있을 시합을 위하여 선수들이 가볍게 몸만 풀게 하고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전술을 점검하는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해솔이가 핼쑥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 해솔이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오늘 왔니?

"네, 많이 생각하고 왔어요. 선생님! 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대회를 뛰어야 합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네?"

해솔이는 사흘 내내 울어서 쉰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힘을 주어 말을 했어요.

"글쎄다. 시합을 뛰는 것은 문제가 없다만 너는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을 텐데 괜찮겠니?"

코치 선생님은 해솔이를 보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 잘 뛸 자신 있어요. 선생님!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게요. 저 이번에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뛰려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코치 선생님은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전에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다고만 했었지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앞을 보질 못하셨어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사고로 그

렇게 되셨대요. 그래서 엄마도 떠나셨고요. 아버지는 앞을 못 보시면서도 지금껏 저를 길러 주신 거예요.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보시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해솔이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간절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으음, 그랬구나."

"그런데 선생님! 이번에 제가 뛰면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응?"

무슨 말인가 싶어 코치 선생님은 해솔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시니까요."

"……."

코치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제출된 선수 명단 제일 위에는 해솔이의 이름이 씌어 있었습니다.

해솔이는 그동안 처음부터 주전으로 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전 선수가 되어 바람처럼 코트를 누볐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오늘 처음 주전이 되어 뛰고 있어요. 많이 응원해 주셔야 해요, 네?'

해솔이는 하늘나라 어디선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자꾸만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뛰고, 던지고, 골을 넣었습니다. 도대체 해솔이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두들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뛰는 게 아니라 꼭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늘 이기고 지고 했던 학교인데

이번엔 미리내 초등학교가 다섯 점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해솔이의 활약이 정말 컸습니다.

가장 강력한 팀을 상대로 첫 승을 따내자 그 후의 경기는 싱거우리만치 압승을 거두었고, 드디어 우승컵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솔이는 모든 경기 내내 뛰어난 활약을 하여 최우수 선수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해냈다. 우리가 우승이야, 우승!"

"신난다, 신나. 우리가 우승이라니!"

"해솔아!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해. 오늘 정말 멋졌어."

"고마워. 모두 함께 열심히 뛰어 준 덕분이야."

"우리 미리내, 파이팅!"

코치 선생님과 선수들, 응원단은 하나가 되어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해솔이도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때 해솔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체육관 유리 천장으로부터 유난히 밝은 빛 한 줄기가 코트 위로 내려와 있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해솔이는 자신도 모르게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기 좀 보세요. 아, 아버지가 오셨나 봐요. 제 경기를 보러 오신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요?"

코치 선생님과 선수들은 해솔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모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빛은 잠시 동안 밝게 빛나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신기해하며 해솔이의 손을 말없이 꼬옥 잡아 주었습니다.

해솔이는 최우수 선수상 트로피를 높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트로피 내용을 보시라는 듯이. 그리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학교 우승했고요, 저 최우수 선수상도 받았어요. 제가 뛰는 모습 틀림없이 지켜보셨지요?'

해솔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껏 뛰었어요. 저희가 우승한 건 아버지의 응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없이 혼자가 되었지만 저, 아버지 안 계셔도 절대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낼 거예요. 전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잖아요. 그러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동안 여기서 못 보셨던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보시면서 편안히 지내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안녕.'

어린 나무에게

— 최유선

어느 높은 산 위에 뾰족나무들이 모여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작년 이른 봄에 심어진 뾰족나무 유목들은 산모퉁이에 드문드문 자리했다. 그 앞에 있는 성목들 중에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담임을 맡았다. 유목들은 매 계절이 끝날 무렵에 키 평가를 받는다. 오늘은 겨울학기 평가가 있었다.

"선생님, 부르셨어요?"

어린나무는 쭈뼛거리며 말했다.

"큼큼, 선생님이 왜 부른지 알고 있겠지?"

"이번 평가에서 제 키가 가장 작아서요."

어린나무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따라 선생나무의 키가 더 커 보였다.

"보니까 작년 여름학기까지는 평균 키에 들었더군. 그런데 가을 평가에서 뒤처지더니 이번에는 꼴등이구나. 큼큼, 겨울 동안 노력을 안 했나?"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했어요."

어린나무는 억울해서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그걸로는 부족해, 큼큼. 잘 때도 키 크는 꿈을 꿀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다른 나무들을 겨우 따라잡을 수 있어."

선생나무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 이번 겨울에 키가 50센티미터나 컸어요."

어린나무는 내심 칭찬을 기대하며 용기 내 말했다.

"큼큼, 그건 별것도 아니야. 이번에 1등 한 나무는 100센티. 즉, 1미터가 자랐어."

선생나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렇게 보니 몸통이 좀 삐뚤어졌구나. 계속 삐뚤어 자라면 절대로 가장 큰 나무가 될 수 없어. 큼큼, 가장 빨리 구름에 닿은 전설의 뾰족나무를 알고 있나?"

선생나무는 두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럼요. 전설나무는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큼큼, 전설나무는 졸업할 때 세 개의 평가에서 모두 1등 한 전설적인 뾰족나무지! 큰 키 영역, 똑바른 몸통 영역 그리고 뾰족한 가지 영역에서 모두 말이야. 전설나무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선생님은 전설나무보다 멋진 나무를 본 적이 없단다. 큼-"

선생나무는 피부가 붉어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아, 산밑에도 멋진 나무가 있대요."

"산밑에?"

선생나무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네! 그 나무는 물을 좋아해서 물가 근처에 산대요. 몸통은 아주 커다랗고요. 길고 부드러운 가지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대요. 가지에 달린 잎새는 타원 모양이래요. 바람이 불면 가지와 잎새가 한들한들 흩

날리는데, 그 모습이 아주 멋있대요. 저도 꼭 보고 싶어요!"

어린나무는 조금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아, 버드나무 말이로군.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선생님이 알려주마. 큼큼, 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나무가 아니지. 그렇게 매가리 없이 축 처져있는 것도 나무라고…… 줏대 없이 바람에 흔들리기나 하고 말이야. 자고로 나무란, 우리 뾰족나무처럼 곧고 기세가 있어야 하는 거란다."

"네……."

어린나무는 힘없이 대답했다.

어린나무의 실망한 낯빛을 본 선생나무는 더욱 힘주어 말했다.

"너는 자랑스러운 뾰족나무의 후손이야.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키가 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 그러니 조상님들을 본받아 반드시 키 큰 뾰족나무가 되어야 해. 큼큼, 봄은 성장하기에 최고로 좋은 계절이다. 그러니 봄 햇볕이 따가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거라."

면담을 마치고 난 어린나무는 왠지 기운이 빠졌다. 오늘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선생나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나도 키가 크면 선생님이 칭찬해주시겠지?'

어린나무는 몸통을 꼿꼿이 하고 해를 쳐다보았다.

'포드득-'

어린나무의 위에 앉아있던 작은 새가 날아갔다.

'내가 새라면 좋겠다. 그러면 창피할 때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릴 텐데.'

어린나무는 새가 날아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병든 나무를 치료하고 돌아갈

채비를 하던 나무 의사와 조수였다. 나무 의사는 유목들이 있는 방향을 힐끔 보더니 저벅저벅 걸어오기 시작했다. 진동을 느낀 선생나무가 다급하게 말했다.

"모두 다 쉿! 사람들이 온다. 절대 잔뿌리 하나도 까딱해선 안 돼."

선생나무는 평소에 하던 헛기침도 하지 않았다. 어떤 유목은 눈을 꼭 감았다. 숨도 쉬지 않는 유목도 있었다. 저벅저벅 발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어린나무 앞에서 멈췄다.

"이건 모양나무인데 왜 뾰족나무 군락에 있지?"

나무 의사는 어린나무를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 정말요! 워낙 비슷해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어느새 조수가 다가와서 말했다.

"아마 뾰족나무들 사이에 있어서 비슷하게 자란 것 같아. 호수 옆에 모양나무 군락이 있어."

"네, 선생님! 이 나무를 그리로 옮겨 심을까요?"

"그러자고."

조수는 트럭에서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어린나무의 뿌리를 피해 주변을 둥글게 괭이질하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괭이질 후에, 어린나무의 몸통이 들어 올려졌다. 나무 의사와 조수는 어린나무를 맞들고 트럭으로 향했다.

'어어어어……!'

당황한 어린나무는 선생나무를 쳐다봤다. 선생나무는 어린나무에게 가지를 뻗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다른 유목들은 겁에 질려서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어린나무는 트럭 뒤 칸에 실렸다. 덜컹덜컹 산길을 내려가면서 어린나무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우리 선생님이 나무는 심어진 자리에서 평생 사는 거라고 했는데……. 맙소사, 내가 이사를 가다니! 갑작스러워서 모두와 작별 인사도 못 했네. 담임선생님, 또래 유목들아 모두 안녕. 정들었던 뾰족마을도 이젠 안녕……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거기서는 나도 보통이 될 수 있을까? 제발 꼴등은 아니었으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어린나무는 피곤했던지 금세 잠이 들었다.

어린나무는 호숫가 옆 모양나무 마을에 심어졌다. 잠에서 깨서 주위를 둘러보던 어린나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아, 꽈배기 모양이다! 오, 이건 하트 모양이네?'

앞에 몸통 세 개를 꼬아서 꽈배기 모양을 한 나무가 보였다. 그 옆에는 가지 끝이 하트 모양인 나무가 있었다.

'저건 나비 모양이고, 저건 새 모양…… 와, 저 나무는 가지가 부챗살 모양이야!'

어린나무는 정신없이 모양나무 마을을 둘러보았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다들 화려한 모양을 하고 있잖아.'

놀라움도 잠시,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에서도 꼴등인 걸까…….'

어린나무는 모양 나무들 사이에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와서 숨어 버리고 싶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풀이 죽은 어린나무는 가지를 축 늘어뜨렸다.

'삭삭삭삭.'

어린나무 근처에서 땅굴을 파고 올라온 두더지가 고개를 내밀었다.

'내가 두더지라면 좋겠다.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숨겨 버릴 텐데.'

어린나무는 두더지 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어린나무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다.

"새로 온 어린나무구나! 안녕? 호호호."

어린나무는 고개를 들었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 별 모양을 한 나무가 웃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뾰족나무 마을에서 왔어요."

"호호, 반가워. 너 참 멋지게 생겼구나!"

"네? 제가 멋지다고요? 저는 그냥 위로만 길게 자랐는걸요."

어린나무는 처음 듣는 말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야, 너처럼 위로 곧게 자란 모양나무는 처음 봐. 호호."

별모양나무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삐뚤게 자라서 완전히 똑바르지도 않은걸요."

"그것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우리는 전봇대가 아니라 나무니까 말이야. 호호호."

별모양나무는 명랑하게 웃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몸통이 삐뚤어지면 멋진 나무가 될 수 없댔어요."

어린나무는 갑자기 감정이 울컥 치밀었다.

"그랬니? 그 선생님은 너를 너무 가까이에서 봐서 잘못 본 게 아닐까?"

별모양나무는 웃음기를 거두고 말했다.

"네? 가까우면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음, 우리 얼굴에 나비가 붙었을 때를 생각해보렴. 너무 가까워서 어

떨 때는 그게 나비인지, 매미인지 헷갈릴 때도 있잖니? 호호, 조금 떨어져서 봐야 그 나비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무늬인지 더 잘 알 수 있지. 여기에서 본 너는 정말 멋지단다."

별모양나무는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그치만 여기는 모양나무 마을이잖아요. 저만 빼고 다들 멋진 모양을 하고 있는걸요."

"그래, 너 말대로 여기는 모양나무 마을이야. 우리 마을 나무들은 저마다 다르게 생겼어. 똑같이 생긴 나무는 하나도 없지. 다양한 나무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만든 거란다. 그러니 어떤 모양이든 괜찮아."

어린나무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별모양나무는 어린나무의 표정을 살피고는 계속 말을 이었다.

"너는 키 큰 뾰족나무가 되고 싶니?"

"…… 잘 모르겠어요."

어린나무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호호, 그럼 이제부터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보렴."

별모양나무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나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내가 멋지다니…… 별모양나무가 놀린 게 아닐까? 그 나무는 멋진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이해 못 할 거야.'

어린나무는 샐쭉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키 큰 나무가 돼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되고 싶은 걸 생각해 보라니.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음,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뭘까? 나도 다른 모양나무들처럼 할 수 있을까? 후유. 나는 뾰족나무에도, 모양나무에도 속할 수 없는 것 같아.'

어린나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퐁-당-.'

그때, 두더지가 개구리를 잡으러 호숫물로 뛰어들었다. 어린나무는 두더지가 뛰어든 호수를 바라보았다. 맑은 호숫물에 비친 어린나무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린나무는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보았다.

'별로 삐뚤어지지 않았네. 키도 생각보다 크고…….'

어린나무는 한참 동안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석양이 내려와 호수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붉은 호숫물에는 곧게 자라려고 애쓰는 어린나무가 있었다. 열심히 자라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여린 나무가 보였다. 어린나무는 물에 비친 그 나무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이게 나구나.'

어린나무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지금까지 애써서 자라줘서 고마워. 다른 나무들만 쳐다보고 비교했던 거 정말 미안. 앞으로는 나를 더 많이 들여다보고 칭찬해줄게. 내 마음을 무시했던 거 용서해 줘.'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마을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봄이 와서 신이 난 잎새들은 산들산들 노래를 불렀다. 바람을 타고 산들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어린나무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보았다. 호수 건너편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춤을 추고 있었다. 긴 가지를 한들한들, 잔잎들을 한들한들, 왼쪽으로 한들한들, 오른쪽으로 한들한들 바람에 맞춰 춤을 추었다.

'우아, 너무 아름다워…….'

어린나무는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았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았다.

한참을 한들거리던 버드나무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걸 알았다. 버드나무는 호수 건너의 어린나무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워진 어린나무는 얼굴이 붉어졌다. 버드나무는 어린나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린나무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머리 위에서 무언가 살랑였다.

긴 겨울을 보내고 새로 돋아난 잎이었다.

금상 은상

— 한명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언니랑 학교에 가는 게 좋다. 오늘은 하늘도 눈이 부시게 맑았다.

언니는 예쁘다.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어릴 때는 언니와 비교를 많이 당했다. 그때마다 나는 엄마에게 달려가 울었다. 툭하면 눈물이 나는 울보였기 때문이다.

언니는 달리기를 잘한다. 삼학년부터였다.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운동회 때 일등을 하였다. 언니는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한다. 나는 언니가 자랑스럽다.

"시험 잘 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알았지?"

언니가 나를 걱정해 주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언니는 오학년이라 삼층에 반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긴장한 채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세화국민학교는 독특한 상 제도가 있다. 바로 '금상과 은상'이다. 전체 과목에서 틀린 개수가 총 열 개 이하면 은상, 다섯 개 이하면 금상을 준다. 각 반에서 은상은 열 명 내외, 금상은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 나온다. 상장은 주지 않지만, 시험이 끝나면 반 게시판에 열람이 된다.

은상을 받으면 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된다. 하지만 금상을 받으면 소위 스타가 된다. 그리고 상을 받으면 반 임원과 학습 부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오학년 일 학기가 되자 언니가 갑자기 금상을 받았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내는 언니가 정말 대단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조금 우울해졌다.

'언니는 저렇게 다 잘하는데 나는…….'

처음으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예전에 나는 그저 못한다고 생각했다. 몸이 약해서인지,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삼학년이 되어서 나는 왠지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왠지 공부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 시험을 위해 꽤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처음으로 금상에 도전해 보는 것이었다. 비장한 마음을 안고 교실로 들어갔다.

"왔어?"

소영이가 나를 보며 인사했다.

"응. 오늘 드디어 시험이다. 나 너무 떨려. 잘할 수 있을까?"

소영이를 보자마자 나는 응석을 부렸다.

"그럼. 이번엔 나랑 정말 열심히 했잖아.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소영이가 응원을 해주니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작전이 있잖아.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소영이가 귓속말을 하며 지긋이 나를 보며 눈짓했다. 나는 눈으로 대답했다.

'띠디디딩 띠디디' 드디어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자 다들 책상 위에 책 치우고 연필, 지우개 꺼내세요. 이 학기 처음 시험이니까 다들 잘 보길 바라요."

선생님은 시험지를 나눠 주셨고 아이들은 조용히 시험지를 돌렸다. 교실 안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첫 번째 시간은 도덕이었다. 도덕은 항상 자신 있는 과목이다. 이상하게도 왠지 답인 거 같으면 그게 답이다. 백 점을 맞은 적도 있다.

두 번째 시간은 자연이었다. 자연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다. 역시 힘들지 않게 풀었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다. 이번 시간이 고비였다. 바로 사회였기 때문이다. 다른 과목을 잘 볼 때도 사회에서 늘 점수를 깎아 먹었다.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어 손에 땀이 났다.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았다.

'공부한 걸 잘 떠올려 보자. 할 수 있어!'

속으로 다짐을 하며 시험지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는 역시나 어려웠다. 몇 개나 막히고 있었다. 또 망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쳤다.

'앗! 소영이다. 작전 타임이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작전을 깜박하고 있었다.

작전은 간단했다. 사회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지우개에 번호를 적어서 자기에게 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답을 적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사회를 잘하는 소영이가 생각해 낸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시험 볼 때 지우개를 빌려주는 것 정도는 허락해 주셨다.

처음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엔 뭐든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천천히 지우개에 모르는 번호를 적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쭉 났

다. 선생님이 있는 쪽이 신경이 쓰였다. 선생님은 그냥 책을 읽고 계셨다.

'손을 아래로 내려서 뒤로 지우개를 전달해야겠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지우개를 받은 소영이는 아주 빠르게 답을 적고 다시 어깨를 '툭툭' 쳤다. 답을 다 적었다는 신호였다. 나는 순간 침을 '꼴깍' 삼켰다.

손을 올렸다. '아차!' 손을 밑으로 내렸어야 하는데 긴장한 나머지 위로 올린 것이었다. 다행히 지우개는 잘 받았는데 괜히 혼자 놀라서 지우개를 그만 떨어트리고 말았다. 지우개는 저만치 '또그르르' 굴러갔다.

"아!"

순간 외마디 소리를 냈다.

모든 아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들켰다. 아, 정말 큰일이다. 나 때문에 소영이까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내 쪽으로 '또각또각' 걸어오셨다. 나는 얼음이 되어 버렸다. 선생님이 떨어진 지우개를 주우셨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내 책상에 지우개를 놓아 주셨다.

"쉿!"

선생님이 살며시 웃으시며 내게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주셨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셨다. 평소에 몸이 약해서 나를 안쓰럽게만 보시던 선생님이었다. 순간 선생님께 죄송하고 소영이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소영이가 준 지우개의 답은 손으로 밀어 버렸다. 그 답을 적을 수가 없었다. 시험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끝나 버렸다. 시험이 끝나고 우리는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코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고개를 숙였다. 벌써 옷에 빨간 물감이 한, 두 방울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코를 잡고 화장실에 갔다.

코피는 나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친구 같은 존재이다. 좀 짜증 나는 친구지만. 유치원 때에는 코피를 많이 흘려서 졸업도 못 했다.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소영이는 이런 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학년 때부터 쭉 같은 반이었고 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엄마가 학교에 부탁한 것이었다.

소영이는 동생이 두 명이나 있다. 그래서 늘 대장 역할을 잘한다.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도 소영이었다.

코피가 잘 멎지 않았다. 나머지 시험은 양호실에서 치렀다. 이번 시험은 전보다 더 망친 것 같았다.

시험이 끝나고 교문을 나섰다. 보통 시험 날은 언니랑 집에 같이 가는데 얼마 전부터 언니는 학원에 다녔다. 차라리 다행이었다. 지금 언니를 본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기 때문이었다.

소영이는 학원으로, 나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아침엔 분명히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를 보자마자 나는 참았던 울음을 '팍!' 터트렸다.

"으앙앙……."

"왜? 왜 우리 미희 코피 났어? 오늘 시험 힘들었어?"

엄마는 늘 내가 코피가 난 걸 귀신처럼 알아낸다.

나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엄마는 갑자기 웃으셨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지만, 눈물을 그쳤다.

"미희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던 이유가 다 있었구나. 금상을 타고 싶었구나. 아이고, 그런데 너무 무리했네. 작전이라니……. 소심한 네가 그걸 할 수나 있고? 푸하하하!"

엄마가 너무 크게 웃는 바람에 나는 다시 울컥했다.

"정말 나는 힘들었는데 엄마는 왜 자꾸 웃어. 정말 내가 바보 같아.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언니는 마음만 먹으면 딱딱 되는데 나는 늘 이 모양이야."

"무슨 소리야. 언니도 다 힘들게 하지. 우리 미희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래.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왜 금상이 타고 싶었던 거야? 엄마한테는 말도 안 하고……."

엄마는 그제야 내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셨다.

"언니가 일 학기 때 금상 탔다고 하는데 왠지 이번에는 나도 좀 언니처럼 금상을 타보고 싶었어. 갑자기 한다고 될 턱이 없는데……. 무리였지."

엄마가 나를 빤히 보며 물었다.

"언니가 금상을 탔다고? 언제? 일 학기 때?"

"어 금상 탔다던데…….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조금 이상했다. 순간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뭔가를 알겠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렇게 된 거였군. 그래서 우리 미희가 이번엔 언니처럼 금상을 타겠다고 고생을 했구나. 하하하. 그런데 미희야 언니 금상 못 탔

어. 그거 거짓말이야."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엄마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 같아. 아빠가 언니한테 늘 맏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압박을 주었어. 그래서 네가 일학년에 입학하자마자 뭔가를 해 보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일등을 했었지. 그런데 미희가 이번 일 학기 때 미술상 받은 거 기억해?"

엄마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다.

"그거에 언니가 자극을 받더라고. 언니는 원래 똥손이라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 그게 좀 부러웠던 모양이지. 그래서 일 학기 때 언니가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그런데 금상은 좀 무리였지. 그래서 그냥 언니가 너한테 거짓말을 해 버린 것 같아. 은상이라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게 놓친 것 같더라고……."

생각해보니 내가 언니에게 금상을 받은 거 부럽다고 말했을 때 그냥 쑥스러운 듯이 넘겨 버렸었다. 원래 언니는 그럴 때마다 당당히 웃었는데 말이었다.

"정말? 언니가? 내가 부러웠다고? 그냥 미술 입상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역시나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으로 말했다.

"미술대회 나가서 입상한 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정말 멋진 상이지. 미희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 엄마는 미희 그림 보면 참 기분이 좋더라."

그렇다. 어릴 때부터 나는 몸이 약해서 밖에서 놀기보다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미술 입상은 누구나 받는 거니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엄마가 멋진 상이라고 말해 주고 언니가 부

러워한다니깐 왠지 어깨가 으쓱해진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나서 엄마는 이제야 언니를 이해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언니가 갑자기 학원을 보내 달라고 했구나. 이번엔 시험을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하네."

"엄마 나도 학원 보내줘."

뭔가를 결심한 듯 엄마에게 말했다.

"정말? 네가 웬일이야? 언니랑 같은 학원?"

"아니 미술학원. 다음엔 미술 우수상에 도전해 볼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볼래."

엄마는 내 말에 아주 기뻐하시며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셨다.

그나저나 이번에 언니가 꼭 금상을 타야 할 텐데……. 그래서 다시 당당하게 웃었으면 좋겠다. 아까 시험을 망친 것은 벌써 다 잊어 버렸다. 그리고 왠지 몸이 풍선처럼 '붕' 뜨는 것 같았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야호!'

내 동생 콩알이

— 허은주

"루리야, 엄마 갔다 올게. 루다 잘 부탁해."

엄마를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현관 구석에 아빠 구두가 보인다. 엄마 슬리퍼랑 흩어져 있던 동생 신발, 내 운동화까지 가져다 나란히 놓는다. 우리 네 식구, 신발이라도 꼭 붙어있게 하고 싶다.

여름방학이다. 일찍 출근하시는 엄마를 도와서 동생 밥도 챙기고 식탁도 치운다. 부엌으로 돌아오니 동생이 흘린 콩을 밥그릇으로 쓱 뭉개며 말했다.

"콩밥 싫어, 짜증 나."

"으윽. 더러워 정말, 거기 좀 닦아."

동생은 눈을 치켜뜨며 소리친다.

"내가 왜? 엄마가 나는 그저 잘 먹기만 하라 그랬어."

편식이 심한 동생의 태명은 콩알이었다. 하얗고 까맣기만 한 초음파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콩알이 생각나서 내가 지었다. 그날부터 콩알이라는 이름이 내 입에 착 붙어있다.

콩알이는 콩 하나를 집어 만지작거리더니 딱밤으로 날렸다. 나는 콩알이 손을 잡고 말했다.

"야, 콩알! 너 일부러 그러지?"

콩알이는 고개를 양옆으로 까딱거리며 대답했다.

"아니거든. 그리고 난 콩알이 아니거든, 엄마한테 누나가 또 콩알이라고 했다고 일러 줄 거거든."

한 대 쥐어박고 싶지만, 착한 내가 참는다.

엄마는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콩알이가 더 말랐다고 걱정이다. 또래보다 작고 편식이 심해서 먹이는데 예민하다. 그러니 나도 모른척할 수가 없다.

"콩만 골라놨네. 좀 더 먹어. 콩 잘 먹으면 키가 쑥쑥 큰다니까."

콩알이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내 눈을 쏘아보며 말했다.

"난 콩 싫다고! 그리고 누나, 내가 콩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누나가 만날 나한테 콩알, 콩알 해서 안 크는 거야. 내가 작은 건 다 누나 탓이라고."

기막혀. 내 말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니. 진짜 콩알만 해지면 재미는 있겠다.

"얼른 마저 먹고 누나 불러. 누나 브레인 학습하러 들어간다."

브레인 소리에 갑자기 표정이 바뀐 콩알이는 목소리에 콧소리를 섞는다.

"누나, 나 콩 다 먹으면 브레인에 나오는 콩콩이 영상 보여주라."

'하하, 그렇지!'

콩알이는 학습만화 또콩이 영상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난 약 올랐던 마음을 돌려주듯 대답하며 돌아섰다.

"됐어. 누나 오늘 학습 많단 말이야. 그리고 콩콩이가 아니고 또콩이거든."

"야! 엄마한테 가서 다 이른다. 콩알, 콩알 놀리기만 하고 혼자만 만화 봤다고 할 거야. 나쁜 누나! 루리루리 아무것도 못 이루리!"

"너 진짜 혼날 줄 알아!"

화가 나서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려는데,

"엄마 흉내 좀 내지 마. 못생긴 이루리, 못 이루리야!"

한다. 싸우기 싫어서 대답을 안 했더니, 더 크게 한 글자씩 소리친다.

"아! 빠! 보! 고! 싶! 어!."

갑자기? 아! 작전을 바꿨나 보다. 꼭 이런 순간에 아빠 얘길 꺼낸다. 책상이 날아갈 만큼 한숨이 나왔다.

아빠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던 춘천에 혼자 계신다. 형편이 나빠져서 겨울방학 때 세 식구만 이곳으로 이사 왔다. 엄마가 바로 옆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콩알이 챙길 일이 많아졌다.

콩알이의 다음 말이 듣기 싫어서 얼른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이어폰은 잠깐씩 나만의 세상을 지켜주는 자물쇠 같다. 정말이지 단 한 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다.

브레인 학습기 전원을 켰다. 엄마가 학원 대신 시켜줬다. 학원에 가지 않아도 과목별 학습을 다 할 수 있다며. 나는 그냥 학원에 보내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방학 내내 콩깍지 속 콩처럼 콩알이와 꼭 붙어있어야 할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 했다.

막상 브레인 학습을 해보니 성적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엄마가 좋아하셨다. 그래서 나도 괜찮아지고 있다. 난 이루리니까, 뭐든지 맘만 먹으면 다 이뤄내는 '이루리'니까.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있다. 그럴 땐 방충망까지 열고 얼굴을 창밖으로 내밀면 좀 나아진다.

모니터가 켜지자 또콩이가 얄밉게 꺄웃거리고 있다. 브레인 학습 캐릭터 또콩이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콩알처럼 생겼다. 콕 쥐어박듯 클릭을 하면 오늘의 학습을 안내해준다.

휴대폰 액정이 환해지더니 문자가 왔다.

'우리 딸 아침 먹었어? 루다도 잘 먹었지? 좀 잘 챙겨줘.'

엄마는 또 콩알이 걱정이다. 아, 힘들다. 외롭다. 나야말로 아빠가 보고 싶다. 휴대폰 화면이 내 마음처럼 까맣게 꺼진다. 한숨을 푹 내쉬고 나니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운이 없다. 한쪽 이어폰을 빼고 책상에 엎드려 소리친다.

"콩알아, 다 먹었니?"

못 들었나? 조용하다. 여러 번 부르며 나왔는데 안 보였다. 콩 먹기 싫어서 숨었나 보다. 식탁을 닦고 있는데 휴지곽 옆에서 뭐가 움직였다.

'오 마이 갓! 벌렌가?'

난 벌레가 진짜 싫다. 조그만 하루살이도 무섭다. 콩알이가 꼭 필요한 순간이다. 빠른 걸음으로 콩알이를 찾아다니며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불렀다.

"콩알아~ 벌레야, 벌레! 빨리 나와 봐. 루다야~."

갑자기 식탁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끄윽 끄윽 흐흑"

숨을 참고 들여다봤다. 휴지곽 뒤에서 뭔가 강낭콩만 한 게 걸어 나왔다. 걸어? 잠깐만, 걷는다고? 벌레는 기어 다니잖아! 눈을 끔뻑해봤다. 벌레가 아니다. 콩알처럼 생겼다. 콩이 움직인다고? 나도 모르게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다.

"아악! 엄마야! 뭐, 뭐야? 거기? 뭐, 뭐지?"

뭐가 식탁 한가운데까지 톡톡톡 걸어 나와서는 털썩 주저앉았다.

"흑흑흑, 어, 어와아~ 끅끅 흐흑 누우…… 느아……. 누나아~."

뭔가 말하는 듯 이상한 소리를 냈다. 바로 앞에서 나는 소린데 전화기 너머의 소리처럼 들렸다. 도대체 뭐지?

나는 엉금엉금 기어가서 장난감 통에 있던 돋보기를 찾아왔다. 돋보기를 들이대자, 세상에! 콩알이? 콩알만 한 콩알이가 두 다리를 뻗고 앉아 꺼이꺼이 울고 있었다. 옷을 벗고 있으니 진짜 강낭콩 같았다.

"뭐야? 엉? 코, 콩알이?"

내 소리에 놀랐는지 콩알이가 움찔했다. 귀를 막고 발까지 구르며 몸부림을 쳤다.

"야!, 좀 작게 말해! 귀 아파! 으아앙!"

꿈속같이 몽롱해서 간신히 물었다.

"뭐야, 너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누나…… 흑흑 나 왜 이러지? 나 무서워. 아아앙!"

꿈인가? 아닌가?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 아프다. 믿기지 않아서 또 말을 건넸다.

"너 밥 먹고 있었잖아."

"흐흑. 제발 작게 좀 말해. 귀청 떨어지겠어. 그냥 앉아서 밥, 아니 콩 먹고 있었단 말이야. 나 왜 이러지? 으아앙~."

강낭콩만 한 게 신기하게도 목청은 그대로였다. 들여다볼수록, 말을 할수록 조금씩 실감이 났다. 무서웠다. 눈물이 났다. 눈물이 콩알이 앞으로 투둑 떨어졌다. 콩알이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다.

"앗, 차가워! 으윽, 으아아앙!"

내 눈물이 콩알이를 적셨다. 휴지를 뽑아 대줬더니 눈물이 쏘옥 빨아

들여졌다. 휴지가 거대한 이불처럼 보였다. 콩알이가 아기 때처럼 양팔을 활짝 벌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흑흑 누나, 나, 추워. 안아줘"

콩알이에게 손바닥을 대줬다. 콩알이는 새끼손가락 옆으로 올라와 손바닥 가운데까지 기어갔다. 간질간질했다. 콩알이가 작은 몸을 웅크리며 부르르 떨었다. 루다 잘 챙기라는 엄마 말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맴돌았다. 어떡하지? 자꾸만 눈물이 났다. 눈물이 콩알이를 또 적셨다. 다시 닦아주며 물었다.

"미안해 콩알아, 아직도 추워?"

"안 춥겠어?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창문 좀 닫아."

콩알이가 걱정하는 내 마음을 툭 날려버리며 소리를 질렀다.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나 한 발짝 떼는데 또 소리쳤다.

"악, 누나 살살 좀 가. 흔들거려서 무서워. 내려놓던지!"

어찌나 앵앵 소리를 질러대는지 귀가 근질거렸다. 확! 그냥 동생만 아니면 딱밤으로 날려버리는 건데 참았다. 식탁에 내려주고 다시 창가로 갔다.

"아악! 누나! 파, 파, 파, 파리!"

콩알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다. 언제 들어왔는지 파리 한 마리가 콩알이와 마주 보고 앉아있었다. 아니 서 있는 건가? 뭘 잘못했는지 콩알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파리를 내려쳤다. 그 바람에 콩알이가 뒤로 벌러덩 굴러 넘어졌다. 하필 그때 센 바람이 휙 불어왔다. 콩알이는 순식간에 식탁 끝으로 밀려갔다. 모서리에 걸쳐 아슬아슬 대롱거리다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내가 잽싸게 손바닥에 받았다. 콩알이와 나는 잠시

그 상태로 석고상처럼 얼음이 되었다.

콩알이가 아까보다도 더 오들오들 떨었다. 손을 오므려서 감싸주며 달랬다.

"콩알아, 괜찮아? 많이 놀랐지?"

콩알이는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울먹이며 대답했다.

"응. 누나. 너무너무 무서워. 나 죽을 뻔했어. 무슨 파리가 저렇게 커? 흐흑."

콩알이가 또 울었다. 너무 가여워서 휴지 이불을 덮어주며 달랬다.

"콩, 아니, 루다야. 누나랑 또콩이 영상 보러 갈까?"

콩알이가 얼음 땡 놀이에서'땡!' 받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 눈물을 쓱 닦았다.

"정말? 응! 좋아 좋아."

엉덩이를 들썩이며 그 작은 얼굴로 웃는다. 웃는 게 보일락말락 작아진 콩알이. 꿈속 같다. 초음파 사진 속의 콩알이를 처음 봤던 게 기억났다.

알라딘을 태운 양탄자처럼 콩알이를 손에 태우고 방으로 가는데, 콩알이가 벌렁 눕더니 내 손바닥을 문지르며 말했다.

"아, 따뜻해. 누나 손 정말 따뜻하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말투. 이 와중에 정말 귀엽다.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면 재밌겠다. 외롭지 않아 좋을 것 같다……. 엉? 아니 아니지. 강아지가 물 털어내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좀전의 생각을 털어냈다.

브레인 화면에는 또콩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학습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 작은 눈에도 또콩이가 보이는지 콩알이가 말했다.

"누나, 또콩이가 나보다 더 큰가 봐."

나는 또콩이와 콩알이를 번갈아 보며 대답했다.

"그러네. 네가 또콩이만 하다니! 말도 안 돼. 정말 나 때문일까……, 내가 자꾸 콩알이라고 불러서?"

콩알이는 또콩이한테 눈을 떼지 않고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응. 누나가 자꾸 콩알콩알 해서 그런가 봐."

아, 가슴이 따끔거린다.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간신히 말했다.

"정말 그런 거면 어쩌지? 흡, 나는 네 태명이 좋아서 그런 건데…… 미안해…… 흐흑."

내가 눈을 맞추려고 애쓰며 사과하자, 콩알이도 나를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나도 누나가 예쁘게 콩알아 부르는 건 괜찮아, 근데 나 싫어해서 놀리는 건 줄 알았어. 흐흑."

"으응? 누나 너 안 싫어해. 누나가 콩알이 얼마나 예뻐하는데……."

"응. 나도 누나 좋아. 그리고 아까 나 살려줘서 진짜 고마워. 파리 무서워하는데도 잡아주고. 누나 짱! 그동안 누나한테 소리 지르고 심술부려서 미안해."

아, 대박! 이게 실화야? 콩알이가 나한테 사과를 했다. 기분이 이상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파리를 잡다니! 으윽 다시 생각하니 좀 무섭다. 하지만! 나는 이루리다! 까짓 콩알보다 작은 파리쯤 이제 안 무섭다! 나는, 맘만 먹으면 뭐든 해내는 이루리니까!

눈물을 닦으며, 아기 때 콩알이 대하듯 예쁘게 말했다.

"콩, 아니 루다야. 사과해줘서 고마워. 파리 나타나면 누나가 또 잡아줄게."

루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바닥에 기댄다. 내가 콩알이라고 불러서 작아졌다는 루다의 말이 가시처럼 목에서 따끔거리지만, 기운을 내본다. 원래대로 커져야 할 텐데 어쩌면 좋지? 어째야 하는 걸까?

아! 맞다! 머릿속에 폭죽이 터지듯 불꽃이 팍 켜졌다. 내가 콩알이라고 불러서 콩알처럼 작아졌다면, 그럼 내가 커지라고 하면? 커지는 걸까? 그렇지! 커져야 맞지! 확신이 들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얼른 고개를 숙여 루다를 향해 말했다.

"우리 예쁜 콩알이, 아니, 아니, 내 동생 루다야 커져라! 이루다, 커져라! 원래대로 커져라!"

루다를 보며 온 마음을 담아 빌고 있는데, 루다도 얼른 고쳐 앉더니 두 손을 모으고 따라 한다. 아! 아까 그 파리 같다.

"다시 커지게 해주세요. 누나 말도 잘 듣고 뭐든지 잘 먹을게요. 제발요."

무슨 소리가 들렸다. 드르르르 바로 옆에서 들린다. 무슨 소리지? 드디어 루다가 다시 커지는 소린가?

진동! 휴대폰 진동 소리다. 눈을 떴다. 휴대폰이 부르르 떨고 있었다. 엄마다. 아, 어쩌지?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받았다.

"루리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답장도 없고."

"아…… 그게…… 엄마, 흐흑."

"루리야. 왜 그래? 너 괜찮아? 어디 아파?"

"엄마, 콩알 아니, 루다가……."

목이 메었다. 루다가 작아진 걸 어떻게 말하지? 말풍선을 만들어보고 있는데 엄마가 말씀하셨다.

"루다, 집에 없지? 얘가 또 혼자 마트에 왔다. 여기서 점심 먹자. 너도 와."

"네? 루다가 거길 갔다고요? 마트엘?"

"응. 너 책상에 엎드려 잤다며. 루다가 네 얼굴을 꼬집, 아니 만져도 모르고 잤대.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냐?"

잤다고? 내가? 브레인 모니터에 또콩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이어폰을 빼는데 손에 뭔가 만져졌다. 콩알? 밥풀이 묻어 찐득한 강낭콩 한 알이 손에서 톡 떨어졌다. 아! 꿈이다. 다행이다. 이 콩알 같은 녀석! 무사하구나. 아 십년감수, 아니 백만 년 감수했다.

급히 현관으로 나갔다. 가지런히 정리해둔 네 켤레 중 한 켤레가 이빠진 듯 사라졌다. 운동화를 당겨 신었다. 나란히 남겨진 엄마 아빠 신발을 보니 웃음이 났다. 딱 기다려 이루다!

아, 근데 이 콩알만 한 아쉬움은 뭘까?

이나영 동화작가가 추천하는 <마을, 이야기가 되다> 참고도서

- 멀쩡한 이유정 / 유은실 / 푸른숲주니어
- 만국기 소년 / 유은실 / 창비
- 내 머리에 햇살 냄새 / 유은실 / 비룡소
- 제후의 선택 / 김태호 / 문학동네
- 돌 씹어 먹는 아이 / 송미경 / 문학동네
- 유통 기한 친구 / 박수진 / 문학과지성사
- 꼴뚜기 / 진형민 / 창비
- 블루마블 / 이나영 / 문학동네
- 그림자 아이 / 이나영 / 별숲
- 어린이 세 번째 사람 / 김지은 / 창비
- 동화의 윤리 / 유영진 / 문학동네
- 어린이라는 세계 / 김소영 / 사계절
- 작법은 없다 / 강정규 / 시와동화
- 이야기가 노는 법 / 위기철 / 창비
-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 / 로널드B. 토비아스 / 풀빛

길위의인문학

함께쓰기

길위의인문학 함께쓰기 사진

구술수업

조은정 구술 강사

한정은 구술 강사

구술

김정옥 담당 사서

김예주 마을기록가

감소라 마을기록가

정계숙 마을기록가

노준식 마을기록가

마을기록가 단체사진

<마을, 이야기기 되다> 수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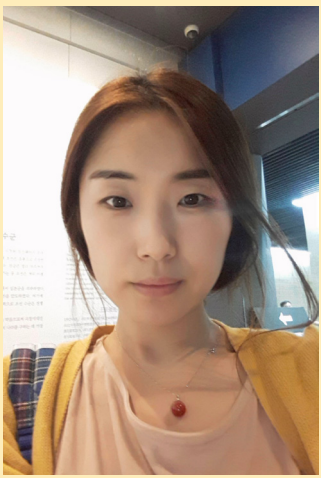
고인정

권오휘

김경아

김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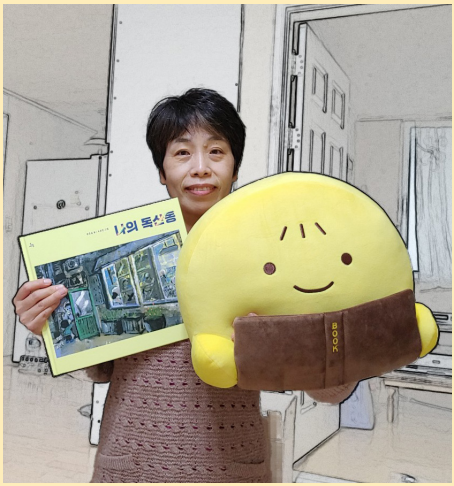
민윤희



박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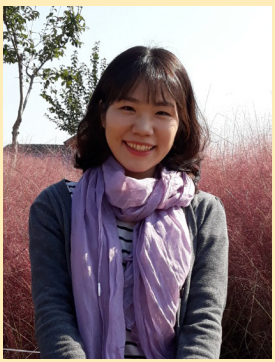
민윤희

이경미



이종진

이해복



최유선

한명문

허은주

길위의인문학 함께쓰기 일정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 마을, 이야기가 되다 [2개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일시	내용	강사	비고
1	마을이야기가 되다 1	06.02.(수)18:00	주제도서낭독, 안내	이나영	
2	마을이야기가 되다 2	06.09.(수)18:00	오성기록과 수필쓰기1	이나영	
3	마을이야기가 되다 3	06.16.(수)18:00	오성기록과 수필쓰기2	이나영	
4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1	06.17.(목)18:00	기록이란 무엇인가?	한정은	
5	마을이야기가 되다 4	06.23.(수)18:00	오성기록과 동화쓰기1	이나영	
6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2	06.24.(목)18:00	기록수집과 활용	한정은	
7	마을이야기가 되다 5	06.30.(수)18:00	오성기록과 동화쓰기2	이나영	
8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3	07.01.(목)18:00	특강 평택역사 알기	김해규	
9	마을이야기가 되다 6	07.07.(수)18:00	오성기골과 동화쓰기3	이나영	
10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4	07.08.(목)18:00	구술기획:구술자선정	한정은	
11	마을이야기가 되다 7	07.14.(수)18:00	합평과 퇴고1	이나영	
12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5	07.15.(목)18:00	특강 구술사례와글쓰기	박수정	
13	마을이야기가 되다 8	07.21.(수)18:00	합평과 퇴고2	이나영	
14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6	07.22.(목)18:00	면담기술과 글쓰기	조은정	
15	마을이야기가 되다 9	07.28.(수)18:00	합평과 퇴고3	이나영	
16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7	07.29.(목)18:00	상세질문지 만들기	조은정	
17	마을이야기가 되다 10	08.04.(수)18:00	합평과 퇴고4	이나영	
18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8	08.05.(목)18:00	인터뷰1	배준표	
19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9	08.12.(목)18:00	인터뷰2	배준표	
20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10	08.19.(목)18;00	녹취풀이와 글정리	조은정 한정은	
21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11	08.26.(목)18:00	인터뷰 녹취풀이	조은정	
22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12	09.02.(목)18:00	편집	한정은 조은정	
23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13	09.09.(목)18:00	편집	조은정 한정은	
24	평택을기억하다기록하다14	09.16.(목)18:00	퇴고	한정은 조은정	
1	마을이야기가 되다 11	08.18.(수)18:00	동화쓰기 심화	이나영	자체
2	마을이야기가 되다 12	08.25.(수)18:00	동화쓰기 심화	이나영	
3	마을이야기가 되다 13	09.01.(수)18:00	퇴고/합평/종강	이나영	강의
25	출판기념회 15	10.29(금)18:00		도서관	

시간을 함께한다는 것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준 것이다[1]

— **이수경** (안중도서관장, 사서)

도서관 구술 생애 사업을 진행하던 어느 날, 우리 엄마 이야기는 잘 듣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이야기는 일상에서 흘려 들으면서 일로 하고 있구나 싶어 슬쩍 마음에 그늘이 졌다. 조금 더 생각하니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올해 구술 7회를 맞아 마을 기록가 개별로 기획, 섭외, 인터뷰 등을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평택에 사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모이게 되었다. 접근하는 길은 조금씩 달랐다. 증조할머니부터 손녀까지 딸 사대 이야기, 오성 죽4리 마을 할머니와 나눈 음식이야기, 고향이 대구인 평택 5년차 거주 할머니가 그 주인공들이었다. 마을기록가 한 분이 구술자 섭외를 하면서 엄마와 만나게 되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던 입장에서 마을기록가가 이야기를 들으러 오니 기분이 색달랐다. 엄마가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구술 과정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았다. '누군가 물어보지 않으니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기록가 김소라 선생님의 노고

1)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 2018, 6쪽

로 말이 글이 되어 나왔다. 글로 보는 엄마의 삶은 슬펐다. 그 시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살았음을 안다. 오성뜰에서 만난 어르신들, 평택에서 만난 분들, 그 분들은 일각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다. 이 마음이기에 이야기를 들으러 다녔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일각도 허투루 살아오지 않은 그 분들, 연구자나 역사가들이 찾지 않을 그 분들, 그러나 누군가 질문을 하자 평범한 보통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의 순간들이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기록되었다.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많고 많은 관계들의 의미는 모두 다를 것이다. 내가 가진 관계 속에서 의미를 되묻는 것, 가끔 질문을 던지면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지 않을까 엄마의 길고도 짧은 삶의 이야기를 읽으며 든 생각이다. 엄마와 눈을 맞추며 질문해주신 김소라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구술생애사업이 7회를 맞았다.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올해 첫해 허분순 어르신의 이야기로 읽기, 쓰기를 해보고 마을기록가 분들이 개별로 기획, 섭외,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에 참여하신 구술자와 마을 기록가, 열정적으로 읽고 쓴 『마을, 이야기가 되다』 참가자 분들 모두의 시간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고, 마스크 너머로 서로의 시간을 나누었다.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나눌 것인가가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일 것이다. 구술생애사업에 참여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서로의 시간을 나눈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다.

나와 이웃을 돌보는

— **박영선** (비전운영팀장, 사서)

코로나19로 만남이 조심스러워지고 단절되는 분위기, 뭔가 새로운 시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해 평택구술생애사업을 함께 했지만 올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까지 발간되었던 책 속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을 틔우려 애쓴 참여자들의 열정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의 삶에 귀기울이려는 이가 있다는 것, 평택을 기억하고 남기려는 고단한 작업을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코로나 시대, 더욱 간절한 희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이 책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나와 이웃을 더욱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힘써준 사업담당자 김정옥 사서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삶은 향연이다

— **조은정** (문학치료 강사)

구술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난다. 시간을 직진해서 살아내야 하는 숙명을 지닌 인간에게 사연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내느라 수고한 소중한 인생의 주인에게서 좀 더 귀 기울여 담아 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더욱 살피게 된다.

개인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지고 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 속에서 개인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공동체의 이야기가 성장하는 것이 곧 내 삶의 이야기가 성장함을 의미할 것이다. 역사의 한 장면을 살아냈던 한 개인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결을 정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기록을 통해 공동체와 나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김진영의 『아침의 피아노』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삶은 향연(饗宴)이다. 너는 초대받은 손님이다. 귀한 손님답게 우아하게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 만남, 친밀감 쌓아올리기

— 한정은 (평택시기록전문요원)

인터뷰를 통해 기록하는 구술작업은 만나야 진행된다. 인터뷰는 라포(친밀감)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구술자와 면담자의 관계가 어색하고 어려우면 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는 작년에 이은 대유행병으로 인해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기, 이론 등 초반 수업 이후부터는 거의 비대면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거리두기, 비대면, 화상회의, 동영상 강의, 집콕 등 구술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과정마다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를 북돋고 의논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추가 되었다. 이번에 참여한 기억수집가는 주제와 구술자를 자신이 정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과 질문지를 만들었다. 인터뷰 진행 후 녹취록을 작성하고 편집을 진행하였다. 물론 진행 강사와 도서관 담당자의 조력으로 함께한 작업이다. 온·오프라인을 동원하여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 일정을 소화해 내었다.

인터뷰를 통한 어르신들의 삶이 구술기록화는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더하여 기억수집가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었다. 기억수집가가

선택한 주제 및 구술자를 통해 만족하든 부족하다고 느끼든 이번 활동경험을 통해 더 잘해보겠다는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의 활동에 더욱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싶다. 기획과 활동과정도 기록되어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기록으로 남겨지는 기록화 과정의 실천과 순환하는 현장을 보았다.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기록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사를 갖은 기억수집가가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는 켜켜이 쌓여 개인의 생애사, 지역의 생활사를 담아내는 통로 역할을 진지하게 해내고 있다. 지속하여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부록

2015년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에 수록된 허분순 어르신의 삶의 이야기를 2021년 <마을, 이야기가 되다>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일하랴 애들 키우랴 정신없이 살았네”

못 배운 게 한… 세 아이 악착같이 가르쳐

허분순

— 구술자 **허분순**(1946년생, 오성면 죽리)
— 면담일 **2015년 7월 25일**
— 장　소 **김정연, 임다윤, 김가희**
— 면담자 **오성도서관**

고덕면 문곡리에서 태어났어. 6·25전쟁 때 그때 태어났지. 스물두 살에 시집왔지. 시집을 고덕에서 청북으로 왔어. 청북면으로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살다가 여기 죽리로 이사 온 거야. 자녀는 2남 1녀. 우리 애가 지금 마흔일 곱이니까, 여기 산 지가 한 40년 넘었지.

시집가면 그 집의 귀신 되라

청북면에다 시집을 왔는데, 우리 남편이 큰집에서 살았어. 그래서 형네서 잔치를 하곤 그랬었어. 잔치를 하고 살았는데 옛날에 부모가 '시집가면 그 집의 귀신 되라' 그렇게 배운 거여. '시집가면 벙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그렇게 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두 달을 사는데 우리 남편이 사연이 있으니까, 나가 살자고 그러더라구. 내가 말을 안들으니께 시아버지가 "너 남편 말하는 대로 듣고 나가라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큰집이 지금 못살고 있어서 거기서 살면 너네가 다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냥 나가라." 그래서 오성에 사는 시큰아버지가 "그리 와서 살아라. 농사지으라" 그래서 집이 남은 걸 알아봐줘서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청북면에서 살았을텐데.

남편이 숙성리에서 살았는데 부모가 네 살 때 돌아가셨어. 외갓집 숙성리에 살았어. 서모(아버지의 첩)가 낳은 자식이 3남매인데, 아들 하나가 죽고 지금 그 며느리하고 살어. 홀며느리하고 사는 거야. 큰집에서 잔치를 하고 살았는데 서모가 큰집으로 내려와.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 그리고 얘기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 대접을 못 받고. 그러거나 말거나 오면 가만히 인사하고 난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그냥 마음이 터가지고

"우리 애미 왔니?" 그러더라구. 그냥 고마웠구 눈물이 다 나더라구. '이제 집안이 화목해지는구나.' 그리고 그냥 열심히 다녔어. 그러다 시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우울증 걸리시더라고. 시모가 아흔네 살인데 아파트니까 나와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저렇게 감옥살이 하고 사는 거야, 감옥살이. 그렇게 늙어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해. 며느리도 혼자 살면서 돈 벌러 다니니까 매일 혼자 계시지 뭐. 그래도 가끔 찾아가면 못 가게 붙들고 그래. "애비야, 와라." 고마운 거지 뭐. 애미, 애비 소리하니까. 처음엔 시집와서 욕하고 그러더니 그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나도 친정에서도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어. 옛날엔 밥도 못 먹었어. 내가 처녀 때 제일 부러웠던 게 교복 입고 하얀 칼라 달고 하얀 양말 신고 학교 다니는 거, 그렇게 부러웠던 거야. 그래서 내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으면 내가 저렇게 해줄 거라고. 근데 자식들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옷이 자율화가 된 거야.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남들이 하얀 넥타이에 양말 신고 가면 그럼 절로 쳐다봐져. (그래서) 내가 우리 손주들 학교 들어갈 때마다 교복 한번 씩 해줬어.

중매 반 연애 반

남편이랑은 중매 반 연애 반이여. 사촌언니가 숙성리로 시집을 왔는데 우리 신랑이 남자친구 들러리로 온거야. 사촌언니하고 학교 댕기고 그랬지. 우리 사촌 형부보고 "처제인가보다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해준 거여. 나는 가까운 데로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 거지. 나는 솔직히 싫었어. 농사짓고 외갓집에서 일해가면서 사는 거여. 한마디로 외갓집에서

머슴으로 사는 거여.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고생 줄로만 사는 거여. 내 꿈은 그게 아니었는데. 다 화산처럼 헛꿈이 된 거지. (지금은) 살림도, 돈 갖고 하는 거, 다 우리 남편이 갖고 해. '옛날에 돈 없이 구박만 받고 살고 그래서 그런 추억이나 갖고 살아라' 그러고서는 그냥 (살림) 내줬어. 혼수품이래봤자 장롱하고 그냥 이부자리하고 수 놓은 벽보, 상평, 뜨개질해 놓은 거 그런 거로 했지. 옛날에는 예단이란 게 삼일 날 가면은 버선하고 떡 해놓은 거 그게 예단이었어.

우리들이 못 배워서 자식만은 그렇게 가르쳤어

(남편은) 숙성리 외갓집에 살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숙부들이 나무 해 와라, 뭐 해 와라, 작대기 들고 쫓아다니고. '한문방'이 있었어. 한문 가르치는 방. 거길 기웃거리고 있으면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도 못하고. 우리 남편도 국민학교 졸업이고 나도 그래. 내가 자식을 낳으면 비료를 먹어도 자식은 가르친다고 둘이 결심을 하고 살은 거야.

고생을 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난 혼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서 사람이 메마르더라고.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혼자,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고 살아서 빈손으로 나와 공장에 다녀가며 살았지 뭐. 3남매를 죽어도 가르쳐야 한다고선 가르쳤어. 애들 대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엠티 가고 그러면 집에를 와. 집에서 힘들게 하는 걸 아니까 (돈을) 달래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를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 대학교 다닐 때도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

아들들만 대학까지 가르치고 딸은 상과를 다녔어. 딸이 "엄마, 오빤

대학교 가고 남자니까, 동생도 대학교 가야 밥벌이를 해먹고 살지. 나는 그냥 상과 갈게" 그러더라구. 이해를 해. (대학교) 간다고 했으면 어떻게서든 2년제라도 가르쳤지. 주산, 한자 그런 걸 다 했었잖아. 그 자격증을 따고. 농협에 취직을 해서 지금도 잘 다녀. 농협 과장이야. 송탄. 우리 큰아들은 회계과를 나왔어. 그래서 졸업한 다음 고시원에 들어가서 책값, 고시원비 그것만 해 준 다음 용돈 그런 것도 못 주고 5년을 고시공부하고 회계사에 붙었어. 지금은 회계사 사무실 내고 해. 우리들이 못 배워서 자식만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거 봐야지. 내가 그게 원이었는데. 이를 갈고 농사를 지어가매, 둘이 직장을 다녀가매, 밤에도 일해가매 그렇게 살았어. 우리 막내도 지금 좋은 곳 취직했어. 대기업 갔다가 또 어디로 스카웃 해갔어. 더 좋은 곳으로. 애들은 잘 풀렸어. 집에 손 안 벌리고 알아서 사는 게 고맙고, 애들이 용돈도 주고. 우리 큰며느리는 "울들은 이제 걱정 마시고 엄마 아부지는 몸 건강히 사시라"고 그래. 남편이 가끔 가다 남 가르치는 거 보고선 한문공부하고 그랬다는데, 신문에 한문 나오는 걸 다 봐. 머리가 좋은 것 같애. 애들이 지 아버지 머리를 닮은 것 같애. 공부도 하고 싶어도 못한 거야. 남편이 이장도 했고 새마을지도자도 했고.

천신만고 끝에 자식 얻은 어머니

우리 친정 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그냥 죽고 그랬대. 나중에는 어른들이 "집 좀 옮겨봐라. 왜케 자식을 못 키우고 죽니?" 그래서는 집을 옮겼대. '상량'이라고 알어? 집 지으면 가운데다 이렇게 이름 적고 날짜 적고 글케 해. 그렇게 해갖고 인제 대들보 양쪽에서 올리면 그걸 상량이라 그래. 그걸 하고서는 꿈을 꾸는데 여자가 사다리를 타고 둘이 쫄

랑쫄랑 올라가더니 끝에 가서 아들이 하나, 남자가 또 올라가더래. '꿈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남동생 그렇게 셋 낳아서 키웠어. 우리 친정 부모가 그렇게 상량을 했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우리 삼남매 키웠는데 늙었어. 옛날에는 그냥 환갑만 돼도 늙었잖아 못 먹으니까. 아버지는 남자 하는 일은 다했어.

옛날에는 자식을 엄하게 키웠는데. 아버지도 무섭고. 옛날에는 취미가 십자수 그런 거 했었어. 옛날에 시집가려면 벽보, 그 이렇게 벽에다 치는 거 수 다 놓고 양복갑개, 횃집 그런 거 수를 놓는데 우리 아버지가 밤에 막 불을 못 켜 놓게 하니까 등잔불을 요만한 등잔에다 옛날엔 속에 넣고선 불을 켰잖아. 호롱불을,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것도 아까워서 불을 못 켜놓게 했어. 울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 그런께 틈틈이 그냥 몰래몰래 썼지.

사친회비 못 내 쫓겨나고 맞고, 어렵게 다녔던 국민학교

우리 (학교까지) 가까웠어. 걸어 다니면 한 10분? 논만 건너면 학교였어. 국민학교도 아홉 살이나 됐나, 그때 들어갔나 봐. 아침에 열 시나 되면 시작했지. 일찍 끝날 땐 일찍 보내주고 그리고 집에 오면 일이지 뭐.

학교 갔다 오면은 얼른 풀 뜯으라고 야단내고 나무해오라고 야단내고……. (학교에) 돈을 몇 천 원씩 냈을 거여. 다달이 가져오라는데 돈이 있어야 주지. 안 가져오면 집에다 보내는 거야, 가져오라고, 집에 돈이 있어? 그냥 바깥에서 놀다가 가는겨. 맨날 쫓겨다니구, 때려요. 사친회비를 안 가져가면 손바닥 때려. 국민학교도 억지로 그냥 나온 거야.

광목 같은 걸로 다 꿰매서 물들여가지고 치마는 까만 거, 위에는 하얀 거 아님 노란 거 물들여서 입고 살았어. 꿰매갖고 바느질해서. 신발

은 꺼먼 고무신 신었지. 그것도 다 떨어질 때까지 신은 거야.

가방은 보재기, 보자기에 싸갖고 어깨에 메고 다녔지. 털렁털렁 뛰어다니면 이게 다 벗어져서 또 다 헤져요. 도시락은 요만한 거 밥 싸오는 사람이나 싸 오지. 보리밥도 못 싸고 다녔어. 거기 도시락 한 귀퉁이에다가 꼬추장, 짠지 그런거 넣어 갖구 점심 때 되면 흔들어 비벼 주는 거야. 그때 없는 집은 보리만 삶아 먹었어. 아침에 밥이라고 하면 보리쌀 먹고. 밀을 국수처럼 늘려갖고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겨울엔 추우니까 그냥 밥 한 사발 붓고 물 이만큼 붓고 뜨끈뜨끈하게 끓여가지고 배고프니까 물 채우는 거야. 머리, 귀 밑으로 그냥 뚝 짤라. (다 똑같이) 남자는 박박 밀고 다니고. 귀밑창으로 뚝 잘라서 박박 밀고 그렇게 했어. 그 전엔 학교에서 기생충 약을 줬어. 배운 과목은 국어 사회 산수 음악 체육 있고 그랬었어. 그렇게 늦게 들어 온 사람도 있어. 먹고 사는 것만 바쁘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걸 신경을 안 썼어. 공부해서 뭐 하냐 그러고.

큰아들 잃어버려 아찔했던 순간

우리 애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어떤 부잣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었어. 그전엔 다 없었었잖아. 맨날 거기 가서 텔레비전 보려고 하루 종일 심부름 해주고. 우리 애들만 시키는 거야.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고.

큰애는 홍역에 걸렸었어, 옛날엔 홍역으로 애들 많이 죽고 그랬어. 우리 큰애도 홍역에 걸렸었어. 열이 나가지고 내가 안고 있으면 나까지 더웠었어. 겨울인데도 얼마나 시뻘건지. 열꽃이라 하잖아. 빨갛게 다 올라오고. 홍역은 약도 없대. 열꽃도 활짝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대. 그래서 꽃이 활짝 열리는 주사를 맞추라고 하더

라고. 주사 맞추고 나니까 낫더라고.

그 아를 잃어버렸었잖아. 종자보급소 있지? 거기가 예전에 공동묘지였었대. 우리 동네도 공동묘지였었어. 지금 공장 지은 거야. 옛날에 우리 큰아들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서 찾았었잖아. 9월 보름날에 큰어머니 생일이었어. 큰집에 일하러 간 거야. 그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낮에 밭에 데려갔어. 그 공동묘지 있는 데로다. 빠이쁘 순경이 있어서 공동묘지에서 막 애우는 소리가 나드래. '이상하다 누가 애를 주워서 내버렸나.' 9월 보름달이니까 달이 또 여간 밝어? 애네가 무서워갖고 총을 이렇게 겨눠갖고 살금살금 올라갔대. 얘가 사람을 봤나보대요. 그냥 막 울면서 손을 이렇게 붙잡고 대들드래요. 총을 이렇게 그냥 여비고 자기 잠바에다가 (애를) 넣어가지고 그냥 왔대요. 그래서 봤더니 새근새근 자드래요. 기운으로다가 한 시간을 울었지. 저 울다가 그냥 새근새근 자드래 그냥.

옛날에는 스피커가 있었어. 스피커가 한 동네에 하나 둘 다 있었어. 방송에 인전, 라디오 방송 다 나고 그랬어. 그렇게 동네 소식을 알린 거여. 그 스피커로다가 방송을 했어. 애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난리친 거여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윗집에 있는 그가 그냥 동네 다 찾아봐도 없고, 우리 큰아버지가 여기 오다가 빠져 죽었나 그래서 그냥 작대기를 다 줍고. 그래도 없으니까 아저씨 하나가 신당으로 뛰어갔대요. 신당을 막 뛰어가니까 경비아저씨가 애를 이렇게 내서 보여 주드래. 애를 뺏어가지고 그냥 막 왔어. 그 아저씨가 숙성리에 살았었어.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 를 하러 갔어. 그랬더니 자기가 애를 못낳대. 그래서 찾는 사람 없으면 자기가 기를라 그랬대.

그때 살았던 오성마을 모습

여기도 북한이 내려왔지. 피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미군부대랑 와서 막 싸우고 아무데나 들어와서 누워서 자면 임자고 그랬대. 산 깊숙이 방공호를 파서 살았대. 막 총 쏘고 폭격하니까 방공호 들어가서 숨어 살았대. 일제 때 일본 정치하는 놈들이 처녀를 잡아가고 그랬대. 그래서 시집을 그렇게 일찍 보낸 것이여. 시집을 보내면 안 잡아간대. 일본사람들 들어왔을 때 여기 사람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어? 완장 달고 가마 칠하고 돈을 받아. 그냥 치는 것마냥 '퉁퉁퉁퉁' 소리 내고 그러고 살았대잖아.

땔감은? 나무하러 댕겼지, 산으로다. 구들장에 불 때는 거잖아. 검은 숯 걸어놓고 불 땠잖아. 지금은 산에 가면 천지가 나무잖아. 저기 산으로 뛰어 가서 서로 긁어오려고 청솔가지, 소나무 갖다 꺾어서 때고 힘들었어. 그러다가 연탄 나왔지. 그것도 다 때지 못 하는 거야. 하나 갖다 해놓으면 안 꺼지게만 해놓고 꺼질까 봐 (약하게 해놓으면 방이 살짝) 안 뜨겁지. 약하게 해놓으면. 그냥 미지근하게만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해다 때지. 그럼 좀 뜨끈뜨끈하게 했지. 나무 해 오려고 자는 애 놔두고 가서 한가득을 해놓고 오면 애는 깨서 마루에서 뚝 떨어져서 코피(나고), 눈물 콧물 다 흘러 갖고 범벅을 해갖고 울고 그렇게 키워 먹었어. 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있었지. 절도 있었는데 그런 데 다닐 새가 어딨어. 우리 엄마가 그 전엔 무당집 다녔지. 나는 안 다녔고 요즘엔 절 다녀. 마을에 김 씨가 제일 많았었어. 근데 지금은 다 이사를 가가지고 신씨가 많아.

짚으로 지붕 하고, 초가집에 까만 솥 걸어놓고 불 때서 밥해 먹고. 기와집 딱 한 집 있어. 새마을운동 할 때. 짚으로 이음(이엉) 엮었어. 1년

이면 한 번 씩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새마을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강제로 지붕을 슬레이트로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뜯었지. 새마을운동 때 밭에다 거름이랑 퇴비를 한아름 쌓고 그랬어. 그리고 동네에 풀 같은 게 많어. 그 풀들 같은 거 깎고 열심히 했는데.

뽐쁘(펌프) 물 퍼 먹는 거 없어진지 이십년 넘었어. 물 퍼서 빨래하고 그랬었는데. 비벼서 했지. 다 빨래판에다가. 세탁기가 난 지 얼마나 됐어. 우리네는 얼른 사지도 못했어. 맨날 빨래판에다가 비벼 빨아서 다 말르면 대렸어(다렸어). 공동우물도 있었지. 동네 몇 군데에 있었지. 우리 동네는 뜨문뜨문 있어. 여가서 몇집, 여가서 몇집, 동네마다 있었어. 이렇게 두레박으로 퍼 먹다가 나중엔 펌프질했어. 디딜방아는 있었대나 봐. 버스도 장에 다녀야지 타지. 안중에도 걸어 다녔어. 주막이 길음리 있는 데 거기 있었대.

오일장은 안중까지 걸어 다녔지. 농사 지은 거 뭐 쌀, 파, 콩, 닭을 집에서 키우면은 열 줄을 이렇게 묶었어. 그것도 갖다 파는 거야.

논이 많지. 밭은 집 근처에 텃밭 있는 거 조금씩 심어먹고, 옛날에는 품앗이라는걸 했어. 동네사람들이 다 품앗이를 해갖고 손으로 심었어. 손 모 심지. 낫으로 비지(베지). 그걸 마차로 꺼내와서 마당에다가 놓고 궁글통(물레방 아나 물레의 중심에 가로질러 놓은 굵은 나무) 거기다 대고 발로 밟고 터는 거여. 벼를. 그렇게 힘이 들었어. 농사 해먹기가. 비고 묶고 끌고 댕기고. 농사지으면 돈 못 벌어. 농사지어야 식량이야. 비어 놓은 걸 비 온다 그러면 다 묶어요. 밤에도 달밤에 다 묶어서. 그냥 해놔야지 비가 와서 다 젖으면 다 헤쳐 놓기 땜에.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둘이서 애들은 셋 집에 있는데 다 묶으고 들어가려니 이거 클났어(큰일났어). 다 묶으고 오니까 셋이서 그래도 아궁이 옆에서 불 때고 모여 앉아

있는 거야. 돈 벌러 같이 다니고 농사 같이 짓고 해래니까 밤에까지 하는 거야.

농사 지을 때 흉년 들면 아욱죽 쒀먹고 된장 넣고 쌀 쬐금 넣고 끓이고 아욱이라고 그래. 콩나물 넣고 쌀 쪼만큼 넣어서 묽게 먹고. 아산물 땜에 여기도 농사짓고 먹지. 아산물 아니면 여기도 농사 하나도 못 지어. 발동기라고 그걸 땅 파서 겨우 심어 놓는 거야. 안 되면 호미로 파고 심고 파고. 배가 자라다 말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 말고 벼 이삭도 너덜너덜 해갖고 얼마 안 남았어. 그런 게 흉년이야.